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책임 연구원 김창덕 (장량초등학교 교장)

공동 연구원 이가을 (장량초등학교 교사)

김병덕 (남성초등학교 교감)

이병한 (장량초등학교 교감)

김유리 (포항해맞이초등학교 교감)

김종득 (대이초등학교 교감)

구경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승현 (초곡초등학교 교사)

자문 위원 서정희 (포항장흥초등학교 교장)

정영석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책임 연구원 김창덕 (장량초등학교 교장)

공동 연구원 이가을 (장량초등학교 교사)

김병덕 (남성초등학교 교감)

이병한 (장량초등학교 교감)

김유리 (포항해맞이초등학교 교감)

김종득 (대이초등학교 교감)

구경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승현 (초곡초등학교 교사)

자문 위원 서정희 (포항장흥초등학교 교장)

정영석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 요약

국가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의 흐름과 학습자의 주도성 함양, 교육과정의 주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되게 되었으며 2025학년도 3~4학년부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아직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와 관련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며,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 실태 조사나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형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라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교자율시간 즉,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정책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율시간」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으로는 도내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과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학교자율시간을 선행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내 교육과정 연구학교 근무 교원과 컨설턴트 대상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학교자율시간 운영 관련 경험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정리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첫째, 학생들은 학교자율시간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학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교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자율시간 신설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교육과정 재구성 등과 학교 자율시간의 차이점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 정도가 학교자율시간의 신설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학교자율시간 운영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들의 선택권을, 교원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보장을 희망하고 있었다. 넷째,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와 단위학교의 여건 및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연구 문제 2] 「학교자율시간」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교사의 부담 가중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교사들의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실천 동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과 관련한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결과 처리 등 편성·운영의 절차와 방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안내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연구학교와 교원 학습 공동체를 통한 실천 사례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많은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특히 과목 또는 활동을 개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따라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관련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과정에서 소속 교원과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에 대해 즉각적인 자체 지원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단위의 여러 공통 지원과 함께 지역별 관련 협의체 구성, 교원 공동체 형성 지원 등 현장 중심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연구 문제 3]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첫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단위학교의 자발성에 가치를 두고 각종 제약을 최소화한 형태이기를 희망한다.

둘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연·인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셋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학생의 요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

넷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학교자율시간의 질적 제고와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 주도형 수업」의 실천 방법 및 미래 지향적 수업 매체 등을 적용한다.

다섯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모형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소통과 협

력을 바탕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제로 운영된다.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의 연구진은 다음과 같이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단위학교 정책 제안으로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교 단위 자율연수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실태 분석과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 도입 이전에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을 편성하기 위한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 소통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단위학교 내에 교육과정 운영 관련 토의·토론과 일상적인 수업 공유·소통 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과 유관 기관 정책 제안으로는 첫째,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과 기본적인 편성·운영 방법을 담은 안내자료의 제작·보급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학습 공동체의 운영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사례 및 과목(활동)의 예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연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역량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

넷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대상별 맞춤형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다. 교원은 물론 학생과 학부모까지 이해와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연수와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각종 자료와 사례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자료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기에 실천에 기반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및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가이드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실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문제	3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2022 개정 교육과정	4
2. 학교자율시간	5
3. 교사 교육과정	7
4. 학생 생성 교육과정	9
5. 타 시도 운영 사례	12
6. 학교 자율교육과정 해외 운영 사례	19
7. 경상북도 선행 연구학교 운영 사례	30
8. 시사점	40
III. 연구 절차 및 방법	42
1. 연구 절차	42
2. 연구 대상	43
3. 조사 도구	46
4. 분석 방법	49
IV. 연구 결과	50
1. 설문조사 결과	50
가. 학생 설문조사 결과	50
나. 교원 설문조사 결과	56

2. 심층면담 조사 결과	74
가.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및 실태	74
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75
다.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86
라. 학교자율시간 운영 성과 및 종합	91
3. 시사점	95
V. 결론 및 제언	102
1. 연구 결론	102
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	102
나. 「학교자율시간」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	103
다.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	105
2. 제언	107
가. 단위학교 정책 제언	107
나. 교육(지원)청 및 유관 기관 정책 제언	108
참고문헌	109
부록 1. 학생 대상 설문 조사지	111
부록 2. 교원 대상 설문 조사지	114
부록 3.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120

표 차례

<표 II-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확보 및 운영 방안	6
<표 II-2>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11
<표 II-3> 학교자율과정 편성·운영 방안 예시	13
<표 II-4> 충청북도교육과정 중 자율탐구과정 관련 내용	15
<표 II-5> 학교 교과목의 이해	16
<표 II-6>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교과(목)의 편제	17
<표 II-7> 교사 교육과정과 학교교과목의 관계	18
<표 II-8> 자료의 분석과 목표의 설정 단계	25
<표 II-9> 계절별·학년별 미래교육과정 영역별 시수	31
<표 II-10> 3학년 시수 편성 사례	32
<표 II-11> '우리 고장 지질 여행'학년별 지질 명소 권역	33
<표 II-12> '우리 고장 지질 여행'학습 범위	33
<표 II-13> 2023학년도 교육과정 시수 편성표	35
<표 II-14> 선택과목 '미래시민'의 내용 체계표 예시	36
<표 II-15> 2023학년도 교육과정 시수 편성표	38
<표 II-16>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선택활동 편성·운영 계획	38
<표 III-1> 연구 수행 절차	42
<표 III-2> 설문 대상자 지역 및 학급 규모별 분포(학생)	44
<표 III-3> 설문 대상자 지역 및 학교 규모별 분포(교원)	45
<표 III-4> 심층면담 조사 대상자 현황	46
<표 III-5> 설문 조사지 문항 구성(학생용)	47
<표 III-6> 설문 조사지 문항 구성(교원용)	47
<표 III-7> 심층면담 조사 문항 구성	48
<표 IV-1>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학생 학년별)	50
<표 IV-2>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학생 학급 규모별)	51

<표 IV-3>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택 방법(학생)	52
<표 IV-4>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학생)	53
<표 IV-5>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기를 정하는 방법(학생)	53
<표 IV-6>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 싶은 역량(학생)	54
<표 IV-7> 학생 대상 학교자율시간 자유 의견 서술 응답	54
<표 IV-8>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인식」분석	55
<표 IV-9>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주제」분석	55
<표 IV-10>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분석	55
<표 IV-11>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인식 및 실태	57
<표 IV-12> 교육경력별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인식 및 실태 비교	58
<표 IV-13>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운영 방향	59
<표 IV-14>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체로 적절한 단위(학교 규모별)	60
<표 IV-15>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체로 적절한 단위(교육경력별)	61
<표 IV-16>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편성·운영 방식	61
<표 IV-17>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로 적합한 주제	62
<표 IV-18>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 구성 방향	64
<표 IV-19>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평가 방식	64
<표 IV-20>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	65
<표 IV-21>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66
<표 IV-22> 학교자율시간 취지를 살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67
<표 IV-23>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학교 규모별)	69
<표 IV-24>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교육경력별)	70
<표 IV-25> 교원 설문 종합 의견 분석	70
<표 IV-26>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실태」분석	71
<표 IV-27>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 및 방법」분석	71
<표 IV-28>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지원 방안」분석	72
<표 IV-29>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여건 개선」분석	72
<표 IV-30> 심층면담 종합 의견 분석	92

그림 차례

[그림 II-1]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학교 선택과목(초등) 예시	7
[그림 II-2] 교사 교육과정의 유형	9
[그림 II-3] 에코스쿨 Pinterest 사이트 예시	21
[그림 II-4] 루우띠 운영 원리와 형태	28
[그림 II-5] 선택과목 운영 단계	35
[그림 II-6] '스스로 만드는 배움'내용 체계표	39
[그림 IV-1]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학생 기타 의견)	51
[그림 IV-2]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생 종합 의견	56
[그림 IV-3]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적합한 주제(교원 기타 의견)	63
[그림 IV-4]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교원 기타 의견)	67
[그림 IV-5]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교원 기타 의견)	68
[그림 IV-6]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기타 종합 의견	73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예측불가능(豫測不可能, unpredictability)의 시대’

이 용어는 디지털 대전환, 감염병 대유행 및 기후와 생태환경, 인구 구조의 변화 등 사회 변화 속도와 다차원적인 변화 양상을 대표하는 표제가 되었다. 교육과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권한이 기본적으로 국가에 주어졌던 우리나라에도 교육과정의 경직성을 탈피하여 불확실한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자율과 분권의 교육과정 운영 방식이 필연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다(임재일 외, 2022).

그간 국가 교육과정의 지역화, 분권화, 자율화의 흐름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의 개정에 부합하면서도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 교육과정 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김종훈 외, 2022). 게다가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서는 지식 구성의 시대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고 학교와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변화하고 있다.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짐에 따라 학교 지식은 더 이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며 단편적인 지식 습득보다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 및 극복할 수 있는 상황 맥락적인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교사 또한 더 이상 교육과정 실행자 내지는 사용자에게 한정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사결정자, 실천가, 나아가 개발자와 전문가로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 역시 직접 경험하게 될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인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들을 담고 있다(김종훈, 2023).

이러한 변화의 흐름과 학습자의 주도성 함양, 교육과정의 주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2007,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확대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자율화의 안정적인 정착을 꾀하였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권을 강화하고 학생의 개별 성장에 초점을 두는 교육과정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임재일 외, 2022).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학교자율시간’의 신설이다. 학교 자율시간이란 말 그대로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는 시수 감축 및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과정 자율성을 확보하여 교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정책이다.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기초연구인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온정덕 외, 2020)」에서 처음 제안되었다. 학교자율시수는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탐구를 통해 교과외의 내용을 심화 확장하고, 반성과 성찰을 제공하며,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한 시간이며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학교와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의 근거는 6차 교육과정에서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 수준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7차 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해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과정 차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이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러는 교과의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면서 시간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이 점차 확대되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전격적으로 도입하면서 학교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계를 넘어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과목을 신설하거나,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의 확보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구현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이미 2022학년도부터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경험의 총체로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자 주도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경상북도교육청, 2022).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시도로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를 바탕으로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며, 그 가운데 소통과 협력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성찰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영역의 제한 등으로 학생의 요구를 충족하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고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프로젝트 학습, 교사 교육과정 운영과 별 차이가 없다고 인식하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는 학교가 많지 않은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도 동시에 안게 되었다. 또한 서로 다른 자연환경과 인구, 발전 정도를 가진 23개의 시군으로 구성된 우리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의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통해 내실 있는 운영 방안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고시에 따라 우리 도의 여건을 고려한 효과적인 학교자율시간 즉,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학교자율시간」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셋째,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은 무엇인가?

3.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

본 연구의 범위와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을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로 한정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도내 중·고등학교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대상자 표집과 결과 분석의 제한으로 인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 기타 기술 내용은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발간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향후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Ⅱ. 이론적 배경

1.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의 미래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학생들을 어떤 배움으로 성장하게 할까?’, ‘어떻게 자신의 진로를 찾아 미래를 준비하게 할까?’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학생들과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희망을 말하며 오늘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교실 안에 존재한다.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강조되는 미래사회의 시대적 요청이고, 교육과정 및 수업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더불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수업을 하기 위해 자율권 확대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학교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 즉, 학교자율시간은 학생들의 자기 주체성(주도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주어진 내용을 수동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학생의 주도적인 배움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성과 예측 불가능성의 미래사회에 대응한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변화의 주도성을 가진 학생을 길러 내는 것이기에, 학생의 자기 주체성은 교육과정 자율권 확대와 연계된 가장 중요한 가치이다.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지난 1954년에 고시된 제1차 교육과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수차례 개발·개정되어 왔다. 초반에는 교육과정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해 왔다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등에 따라 ‘교육과정의 지역화’, ‘교육과정의 자율화’, ‘교육과정의 분권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제6차 교육과정(1992-1997)은 국가 교육과정을 지역 수준에서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역과 학교의 상황에 맞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제7차 교육과정(1997-2007)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학교만의 특색이 담긴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교육과정의 차별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교과목의 시수를 20%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목 및 창의적체험활동에서도 시수 20% 증감이 가능하게 되면서 시간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학교의 자율성이 과거에 비해 높아지기도 하였다. 이렇듯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은 국가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학교로, 그리고 학교 공동체를 이루는 교사에게로 조금씩 이양되어 왔다.

2022년 12월 22일 확정·발표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거의 국가 교육과정에 비해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 교육부(2022)는 '교육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새로운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①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 함양이 가능한 교육과정
- ②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과정
- ③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및 책임교육 구현
- ④ 디지털·AI 교육환경에 맞는 교수·학습 및 평가체제 구축

이 가운데 세 번째 개정 중점인 '지역·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는 '학교자율시간' 논의와 가장 근접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2022)는 '학생의 요구와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및 지역·학교 간 교육격차 완화와 책임교육 구현' 및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지역사회와 교육공동체 간 상호협조 체제 마련'을 골자로 교육과정의 자율화를 꾀하고 있다.

2. 학교자율시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학교 교육과정 확대 및 책임교육'을 중점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점 사항은 현장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교육 강화라는 과제로 이어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였다(교육부, 2022). 자율성은 자율적이되 책임 있게 행동하는 사람의 특성이라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면서 동시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 된다고 볼 때 학교자율시간이 학습자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고 학교가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이며 유연한 학습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동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이란 초·중학교 교육과정에 새롭게 도입되어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각 학교는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 중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학교만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발하게 된다. 따라서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선택 과목(활동) 신설·운영을 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교육부 보도자료, 2021)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에 필요한 시간을 다음과 같이 확보하여 운영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표Ⅱ-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확보 및 운영 방안(교육부, 2021: 20)

현행	개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군)별 증감 범위 활용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수업 시수 운영 ·중학교는 학교장 개설 선택과목 개발 가능(초등학교는 선택과목이 없음) ☞ 학교 특색 및 지역과 연계한 과목 및 활동 운영 시간 확보 어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증감 범위 활용 ·한 학기 17주 기준 수업시수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량 유연화 활용 ☞ 한 학기 17주 수업 → 16회(수업)+1회(자율운영) ※ 매 학년별 최대 68시간 확보 가능 ·초등학교, 중학교 선택과목 개발·운영 가능

국가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자율시간 도입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총론에 마련 ▶ (교과) 한 학기 17주 기준 수업시수를 16회로 개발하고 1회 분량은 자율 운영할 수 있도록 내용요소와 성취기준 등을 유연하게 개발
지역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학교의 교육 여건 등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 개발, 지역 특색을 살린 선택과목 및 체험활동 개발·운영(시·도교육청 개발 가능) ※ (예) 지역 생태환경, 인공지능으로 알아보는 우리 고장, 지역과 민주시민, 역사체험 등
학교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과정 및 프로젝트 활동 편성·운영, 학교 자율적으로 지역 연계 선택과목 개발·활용, 교과 교육과정(지역 연계 단위 구성, 성취기준 등)에 대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국가와 지역은 교육과정상 근거를 마련하거나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선택과목 및 활동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하며, 학교는 이를 토대로 지역과 연계한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학교자율시간의 가장 중요한 취지가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권 확대’에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 초등학교는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따라 선택과목(활동)을 신설하여 운영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학년별 2개의 선택과목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생들은 3~6학년까지 총 8개의 과목을 배울 수 있다. 지역과 연계된 과목이나 활동, 과학기술과 사회의 급속한 변화를 반영한 과목이나 활동 등이 사례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학교는 ‘삶과 학습에 필요한 기초소양, 학습 진단과 개별

보정 교육, 진로 선택 활동 등을 교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교육부, 2021: 21) 할 수 있다.



[그림 II-1]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학교 선택과목(초등) 예시(교육부, 2021: 21)

학교 또는 학년이 선택과목을 개발하면 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의미 있는 내용과 활동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에 잘 어울릴 뿐 아니라 '교사 교육과정'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된다. 앞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의 학교 선택과목 예시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3~6학년에서 동학년별로 특정한 과목을 선정하여 가르치게 되면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학교가 만든, 우리 학교만의' 과목을 최대 8개까지 배울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과목을 선정하고, 내용을 구성하며, 교재를 개발하고, 스스로 만든 교재를 가지고 가르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흔히 말하는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도 의미 있게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는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교사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3. 교사 교육과정

국가 교육과정 체제를 따르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책에 대한 권한은 국가에 주어져 왔다.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공식적인 개정의 출발을 알리는 '발의'로부터, 개발된 교육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고시'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 개정 전반을 정부(교육부)가 주도해 온 것이다. 그러나 교육과정을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실상 국가도, 전문 연구자도 아닌 교사다. 교사를 교육과정의 실행자, 사용자, 실천가 등으로

부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등장하고 있는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 역시 직접 경험하게 될 학생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체인 교사가 교육과정에 대해 가장 많은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기존에는 연구·개발을 포함한 교육과정 정책의 전반적인 과정에서 교사가 배제되어 왔다면(teacher-proof curriculum), 이에 대한 비판과 성찰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주인으로서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교사 교육과정’이다(김종훈, 2023).

사실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말은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거나 깊은 논의를 통해 만들어진 개념은 아니다. 교사와 교육과정을 단순 연결하여 만든 새로운 용어라는 점에서 어법적으로도 다소 어색한 측면이 없지 않으며, 오히려 ‘교사 중심 교육과정’(teacher-centered curriculum)이나 ‘교사 주도 교육과정’(teacher-driven curriculum)이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교사 교육과정을 논하기 전에 교육과정 개발의 ‘수준(level)’에 대해 살펴보자면 개발되는 수준에 따라 국가, 지역, 학교 교육과정으로 구분된다. 국가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국 공통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내용이다. 지역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시도교육청 등이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와 지역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의 관심과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학교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교사 교육과정은 국가, 지역, 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개별 교사가 학생의 교육적 필요를 반영하여 교실 수준에서 개발·운영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김덕년 외(2022)는 학생들에게 배움이 일어나도록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실에서 학생들을 만나는 교사가 실제로 실천하는 교육 활동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박수원 외(2020)는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되 교사가 교육과정 전문성(curriculum literacy)을 발휘하여 새롭게 수정·개발한 교육과정이며, 주로 교실 속 학생들과 직접적인 만남에서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교사 교육과정이란 교원이 교육과정 문해력을 바탕으로 학생의 삶을 중심에 두고 국가, 지역, 학교 교육과정의 기반 위에 학교공동체의 철학을 담아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전라북도교육청, 2022a).



[그림 II-2] 교사 교육과정의 유형(전라북도교육청b, 2022: 80)

이 외에도 김덕년 외(2022)는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를 통한 교사와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있고, 박수원 외(2020)에서는 전문성을 기초로 개발·실행되는 교사의 교육과정에 주목하며, 유영식(2020)은 교사의 수업 전문성에 관심을 둔다. 정리해 보면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기반으로 수업을 포함한 교육 활동 전반을 통해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교사 교육과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4. 학생 생성 교육과정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생이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경험의 총체이다. 이를 통해 학생의 교육과정 결정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습자 주도성(student agency)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은 불확실성과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미래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에서도 주어진 교육과정을 넘어 스스로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하고 성찰하는 학습경험이 필요하다.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계속해서 역량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AAR 사이클을 내면화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예측(Anticipation)-행동(Action)-성찰(Reflection)이 바로 그것인데, 학생들은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고, 되돌아보는 과정을 반복하며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도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을 벗어나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만들어가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시도로 학생은 자신의 흥미와 요구에 기초하여 스스로 문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워 실행하며, 그 가운데 소통과 협력을 경험하고 그 결과를 공유·성찰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 또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실제적인 맥락 속에서 학습이 이루어지므로 자신의 삶과 삶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학습 계획에서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므로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촉진하는 교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실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계획(Plan), 실행(Do), 공유(Share), 성찰(Review)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계획(Plan) 단계는 학습자의 학습 요구를 구조화하고 정교화하여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설계하는 과정이다. 학습자가 충분한 자유 탐색의 시간을 갖고 자신이 궁금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찾아 질문을 생성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질문을 유목화하여 팀을 구성하고 핵심 질문을 생성하게 하고 핵심 질문은 단원을 아우르는 큰 질문과 작은 질문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핵심 질문을 토대로 학생이 무엇을 배울 것인지 스스로 정하게 하고 교사는 이를 정교화, 구조화해서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연결하거나 새롭게 생성한다. ‘GRASPS’ 기법을 활용하여 수행 과제를 설정하고 성취기준에 학생들이 도달했는지를 알 수 있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며 마지막으로 과정 전체의 시간과 내용이 포함된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실행(Do) 단계는 수행 과제를 2~4개의 세부 과제로 나누어 실제 수행하는 단계로써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해결 방안을 찾고 해결한 결과를 발표물로 만드는 등의 세부 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를 해결한다. 공유(Share) 단계는 학생들이 수행한 결과물을 발표하고 보완하며, 발표하는 방법은 학습 조직의 규모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 성찰(Review) 단계는 계획 단계에서 작성한 평가 기준에 의해 자기 평가, 동료 평가를 실시하고, 자기 소감문 등의 활동을 통해 과정 전반을 되돌아보며 후속 수행 과제를 계획할 수 있다.

학교자율시간이란 학생 스스로 목표를 세우거나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탐구를 통해 교과와 학습의 내용을 심화 확장하고, 반성과 성찰을 제공하며,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을 위한 시간이다.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학교와 학습자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또는 교사가 학습자 주

도성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면 학생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교사는 이를 코칭하는 형태의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학습자의 문제해결 역량에 초점을 두는 수업을 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현실 상황의 문제를 제공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교과 통합 수업이 가능할 것이다(온정덕 외, 2020).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의 학교 자율시수 실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표 II-2>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온정덕 외, 2020)

구분	학생주도설계형	교과통합설계형
의미	학습자가 교사의 코칭을 받아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탐구를 통해 교과의 내용을 심화·확장하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함	교사가 현실 세계의 복잡한 문제 상황 또는 여러 교과의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학습자가 교사 및 또래와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탐구를 통해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형태의 교육을 의미함
형태	1단계: 학습자는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습하고자 하는 분야를 결정함 2단계: 교사와 학습자는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교육과정 내용과 관련지어 개개인 맞춤형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을 함께 개발하거나 유사한 흥미와 관심이 있는 학습자를 묶어 모둠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함 3단계: 학습자는 스스로 계획한 교육과정을 실행하며 교사는 문제해결 과정에서 코칭 역할을 수행함 4단계: 학습자가 학습한 내용을 교사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여 반성과 성찰 활동을 실시함	1단계: 교사는 당해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책적인 교육내용 또는 학습자의 실생활 맥락과 크게 맞닿아 있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교과 통합 교육과정을 개발함 2단계: 교사는 학습자에게 현실 세계의 문제 상황 또는 교과 지식을 통합하여 활용해야 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이를 프로젝트 형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함 3단계: 교사는 학습의 수행과정에서 협력적 문제 해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교과에서 배운 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록 코칭함 4단계: 문제해결 과정과 결과를 다른 학습자와 공유하여 반성·성찰함
유의 사항	학습자의 흥미로만 교육과정이 설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함. 교사는 학습과정의 2단계에서 반드시 학습자의 흥미나 관심이 적절한 교육내용과 연계되도록 안내해 주어야 함	통합 교육과정 설계의 주제 선정에 유의해야 함. 통합 교육과정의 주체는 전이가능성이 높은 지식,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개념, 학습자의 실생활 맥락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식이 되어야 함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2022년부터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연수 및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하여 다양한 수업 사례 및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역과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 여건과 학생의 필요에 맞춘 선택과목(활동) 신설·운영’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 때 단순히 여러 개의 선택 과목을 설정해 두고 주어진 과목을 선택한다고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학교자율시간이 수업이 펼쳐지는 교실의 입장에서는 국가수준이나 시·도수준, 학교수준 차원에서 주어지는 또 하나의 과목이라면 교육과정 개정의 의미는 찾기 힘들 것이다.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과목의 형태로 학교자율시간이 실행되면 이는 기존의 교과가 더 늘어난 것과 다를 바 없어 학습 부담의 가중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학교자율시간은 지역의 특색, 학교의 여건, 학생의 필요를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 주어진 대상에서 일부를 고르는 것은 소극적인 선택이고 새로운 대상을 찾아 만들어가는 일이 적극적인 선택의 개념이기 때문이다.

교육과정 자율화라는 큰 기조에서 살펴보더라도 학교자율시간의 이상적인 모습은 학생과 교사의 교육과정 의사결정 참여와 개발의 실천이다. 학교는 물론 교실에서 개별 학생과 교사가 협력적으로 배움의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적으로 실행하며 책임 있는 성찰로 채워가는 시간인 것이다. 현재 경북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은 학교자율시간을 온전히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사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의 역할을 시도해 봄으로써, 주어진 목표, 내용, 방법, 평가, 교과서가 없어도 학생들의 관심사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움의 주인이 되는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것이다(경상북도교육청, 2022).

5. 타 시·도 운영 사례

경기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의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이외에 단위학교의 상황과 요구를 고려한 특색 있는 자율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율교육과정은 각 시·도마다 다른 용어로 구체화 되었는데, 경기도에서는 ‘학교자율과정’으로, 충청북도에서는 ‘자율탐구과정’으로 전라북도에서는 ‘학교교과목’이라는 명칭으로 추진되고 있다.

가. 경기도 학교자율과정

경기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학교자율과정을 도입하여 편성·운영하고 있다. 「2023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율과정은 “학생이 주체적으로 삶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학습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습경험의 질과 폭을 심화하기 위해 교육공동체가 함께 개발하는 교육과정(경기도교육청, 2022)”으로,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체육, 예술 감축 제외)한 시수를 활용하여 체육, 예술(음악/미술)을 포함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편성 시간은 편성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자율과정을 통해 다루어야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배움의 기쁨을 누리며, 배움을 통해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교과융합활동,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 등을 예시로 제시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학교 자율과정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경기도교육청, 2022a).

〈표 II-3〉 학교자율과정 편성·운영 방안 예시(경기도교육청, 2022: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융합활동은 교과 지식의 심층적 이해를 바탕으로 심화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자율적, 전문적 판단하에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여 교과 내, 교과 간 내용을 연계하거나 새로운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마을과 연계한 교육활동은 학교와 마을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사회적 배움을 실천하기 위해 공동체적 가치와 문화, 민주적 시민의식 등에 관련된 역량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운영할 수 있다. ·학생주도 주제별 프로젝트 활동은 학습의 과정에서 학습자 스스로 선택과 결정, 그리고 타인과의 협력과 공감을 통해 배움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으로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적정 시간을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교 교육공동체 협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요구와 필요를 적기에 반영하는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자율과정을 실시한 결과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자율과정의 개념이 모호하다. 박승열 외(2021)의 학교자율과정 편성·운영 양상 및 이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연구한 것에 따르면, 교사들은 학교자율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 교육과정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자율과정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괴리이다. 현재 학교생활기록부를 전산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이 분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위학교가 교과 간 통합 프로젝트를 편성·운영해도 이를 입력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박승열 외, 2021).

셋째, 학교자율과정이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내 초등학교에서 학교자율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비율은 55.8% 정도로, 전체 학교의 절반 정도만 학교자율과정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율과정을 편성·운영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함(30.9%)’과 ‘학교자율과정 편성·운영에 대한 학교구성원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없음(23.8%)’, ‘교과 내용의 과다로 학교자율과정 편성·운영의 여력이 없음(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자율과정을 편성·운영한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났다는데, 평균적으로 교과+창의적체험활동형, 학생주도프로젝트형, 학교 단독형, 교과성취기준 재구조화형 순으로 많이 나타난 반면, 학교 간·학교급 간·학교-마을 연계를 선택한 학교나 성취기준 개발을 선택한 학교는 없었다(박승열 외, 2021).

넷째, 민주적 학교 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자율과정 활성화를 위해 교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은 ‘민주적인 학교교육과정 의사결정 문화(3.68, 5점 만점)’로, 학교자율과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문화가 확보되는 것이 중요하다(박승열 외, 2021).

나. 충청북도 자율탐구과정

충청북도에서는 2021년부터 초·중등 교육과정에 ‘자율탐구과정’을 신설하고, 교과(군)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한 시수를 활용하여 학교 특색 활동 및 학생주도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에서는 자율탐구과정의 의미를 “기존의 교과 프로젝트나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괄하고 확장하는 개념으로,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초등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자료」를 통해 자율탐구과정을 “교과 프로젝트나 창의적체험활동 운영할 때의 여러 제약(시수, 진도, 성취기준 등)으로 창의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느낄 때 활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자율탐구과정이 기존의 교과나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 구현하기 어려웠던 창의적이고 융통적인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이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충청북도교육청, 2022).

자율탐구과정의 내용으로 “민주 시민교육, 충북교육공동체현장 기반 주제중심수업, 문해력 교육, 마을 연계 교육과정,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초록학교와 연계한 생태교육” 등의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율탐구과정을 활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표 II-4> 충청북도교육과정 중 자율탐구과정 관련 내용(충청북도교육청, 2022)

항목	관련 규정
1. 기본 사항	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준 4)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의 삶과 얹이 연계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통하여 학교교육과정 자율화·다양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한 ‘자율탐구과정’을 신설할 수 있다. 나.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제 2)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탐구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학교는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군)내 시수 조정, 성취기준 활용, 재구조화, 개발, 교수 학습 및 평가 방법 설계·운영에 대한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진다.
3. 초등학교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 학교는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탐구과정을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교과(군) 시수 활용 시 20%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자율탐구과정으로 삶과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 충북교육공동체현장 기반 주제 중심수업, 문해력 교육, 마을 연계 교육과정, 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초록학교와 연계한 생태교육 등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6. 특수교육	다.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2) 기본 교육과정 가)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5) 학교는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율탐구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가)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활용하여 편성할 수 있다. (나)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30% 범위 내에서 교과 시수를 감축하여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다) 자율탐구과정으로 삶과 연계한 민주 시민교육, 충북교육공동체 기반 주제 중심 수업, 문해력 교육, 마을 연계 교육과정, 교과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충청북도 도내 전체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자율탐구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는 전체 259개교 중 46개교로, 17.7% 수준으로 전체적인 참여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탐구과정을 적용하는 학교의 경우,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의 시수를 활용하여 ‘삶과

연계한 민주시민 교육', '교과 융합형 프로젝트 수업', '마을연계 교육과정' 등으로 편성·운영하고 있다(충청북도교육청, 2022).

자율탐구과정은 충청북도의 혁신교육 모델인 행복자치미래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행복자치미래학교에서는 자율탐구과정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탐구과정의 활용 유형은 형식적 측면에서 주제 중심, 가치 중심, 교과목 중심으로, 내용 측면에서 마을 연계와 생활 교육으로 나타났다(이은주 외, 2021).

다. 전라북도 학교교과목

전라북도 일부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학교의 특색을 살린 교육과정을 위해 도입한 '학교 교과목'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학교교과목' 제도를 도내 다른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과정을 통해 공식화하였다.

전라북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전라북도교육청, 2022a)에 따르면, 학교교과목은 "단위 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차원에서 교과와 범교과 영역을 포괄하여 지역과 학생의 실정에 맞게 학교 자체적으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추어 개설하는 교과목"으로서, 교과(군)별 수업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창의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학교는 학교교과목을 주제에 따라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통합으로 개발하여 실천할 수 있으며, 주요 주제에는 마을,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예술 및 신체 활동, 민주시민, 환경, 인권, 평등, 평화 등이 있다. 또한 학교교과목 제도 신설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용어 및 개념 정의'라는 항목을 교육과정 문서의 도입부에 새롭게 배치함으로써 학교교과목에 대한 학교 현장과 교사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였다.

<표 II-5> 학교 교과목의 이해(전라북도교육청, 2022a: iv)

용어	내용		
공통(기본) 교과(군)	국가에서 대통령령으로 고시한 교과로 교육과정 편제표에 제시된 교과 및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과로서, 모든 초등학교에 적용함		
학교 교과목	유형	개념	활용 범위
	가	학교*에서 지역, 학교, 학생의 실정에 맞게 개발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교과목 * 학급(교실), 학년, 학교	단위학교 내
	나	학교에서 개발한 학교교과목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	도내 모든 초등학교
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목 * 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포함		

학교의 교사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학교교과목의 개설에 관한 사항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과 자율성을 기반으로 학교 구성원의 공동의 노력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학교는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교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나아가서 학급(교실), 학년, 학교 단위로 범위와 계열성을 갖춘 교과목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학교교육과정의 학교교과목으로 편제할 수 있다.

<표 II -6> 교육과정 편성·운영상 교과(목)의 편제(전라북도교육청, 2022a: iv)

교육과정 편성·운영		
범위	국가교육과정(교육부)	지역교육과정(전라북도교육청)
편제	교과(군)	학교교과목
시수배당	교과(군) 시수의 80%~100%	교과(군) 시수의 0%~20%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교과(군) (학교교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전라북도 교육과정에서 학교교과목은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학교의 특색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주된 장치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교과목 개념의 도입을 통해 “교육과정 차원에서 개별 학교와 교사의 노력이 단순히 ‘활동’이나 ‘특색사업’으로만 머무르던 한계를 넘어 정규교육과정의 ‘학교교과목’으로 편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학교교과목’에 대한 학교 현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학교 교과목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학교교과목이 교사 교육과정과 맺는 관계, 학교교과목의 편제와 시간 배당, 학교교과목 개설 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도교육청의 지원 사항’과 ‘교육지원청의 지원 사항’으로 구분하여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해야 하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도교육청에서는 “공통(기본) 교과(군)에서 사용된 성취기준을 지역에 맞는 내용으로 개발하거나, 도 단위 지역사회나 학교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학교교과목 개발·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자료(학교교과목 개설 방법 및 절차, 학교생활기록부 시스템 활용 등)를 제작하여 지원”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컨설팅 지원”, “학교의 학교교육과정 자율 편성, 학교교과목 개발,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제공”, “지역사회의 요구에 근거한 교사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목 개발을 위한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 등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명료화하였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 교육과정에서는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을 세분화, 구체화 및 체계화하였다.

<표 II-7> 교사 교육과정과 학교교과목의 관계(전라북도교육청, 2022a: v)

교사 교육과정은 어떻게 학교교과목이 되는가?			
교사 교육과정		학교교과목	
유형	실천 단위	절차	편제
교과서 재구성 국가에서 예시 활동*으로 제공한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것	학급(교실) 학년 학교	→ 학교운영 위원회 심의	학교교육과정의 학교교과목으로 편제
성취기준 활용 성취기준을 해석하여 새로운 활동*으로 실현하는 것			
성취기준 재구조화 성취기준을 통합하거나 일부 내용 압축, 내용 요소를 추가하는 것			
성취기준 개발 필요한 성취기준을 새롭게 개발하는 것			
① 활동*의 의미: 신체를 움직이는 체험, 놀이 등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지·정서·사회적 기능을 아우르는 용어로서 지식을 이해하고, 분석·종합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② 성취기준을 재구조화하거나 개발할 때에는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 일부가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한 성취기준의 내용 요소를 추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및 평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 초등학교 교육목표인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을 기르고 바른 인성을 함양하기에 적합한가? - 국가교육과정의 핵심역량 또는 전라북도의 미래역량과 연결되는가? - 학생의 인지·정서·사회적 발달 단계에 적합한 내용과 기능인가? - 학생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고려하고 있는가? ※ 참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2021.7.20.) 제8조(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행위 금지 등) 제①항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과후학교 과정도 또한 같다.			

전라북도 학교교과목 편성·운영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첫째,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된 상향식 접근의 특수성을 들 수 있다. 전라북도 학교교과목의 경우, 혁신학교 내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도입된 제도가 전체 지역단위로 확산된 상향식 제도로서, 교사들의 높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기존에 이미 학년별로 운영되던 교육과정에 학교교과목을 통해 체계성과 지속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 학교 내·외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김세영, 이윤미, 2020; 박승열 외, 2021).

둘째, 학교교과목 개설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학교교과목의 유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교과목으로 편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학교에서 지역, 학교, 학생의 실정에 맞게 개발한 교과목으로 단위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다. 나) 가)에서 개발한 교과목 중에서 일정한 절차에 따라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교과목으로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다) 학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교과목으로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서 필요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단위학교에서 학교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 활용가능한 다양한 선택지를 명료화하고 학교 내에서만 학교교과목을 활용할 경우 교과목 개설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였다(전라북도교육청, 2022b).

6. 학교 자율교육과정 해외 운영 사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앙집중형 교육과정 개발 체제를 유지하며 [국가 교육과정 고시→ 시도별 교육과정 지침 → 단위학교 교육과정 계획 → 학급 교육과정 운영]과 같이 선행 주체들의 교육과정 개발 후 상위기관의 행정명령이나 지침 및 공문을 통해 교육과정을 계층적(교육부-교육감-교육장-학교장)으로 집행해 왔다(정광순, 2020).

이후 학교교육이 사회의 변화와 함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기 위한 맥락에서 교육과정의 분권화, 지역화, 자율화가 강조되고(김종훈 외, 2022) 교육과정 생태계의 중심점이 '국가교육과정'중심에서 교사의 실행 및 학생의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로컬교육과정'으로 옮겨가게 되었다(정광순, 2020). 특히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되는 '학교자율시간'은 단위학교가 지역과 연계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과목'이나 '활동'의 개설을 가능하게 하여 이전의 중앙집권형 교육과정의 획일성과 경직성의 문제를 보완하고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에 비해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구현의 여지를 더 확대하고자 한 데 의의가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학교자율시간이 내재하고 있는 '자율'은 내재된 자율이라기보다 강제된 자율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선택'에 있어서도 초등의 경우 학생의 선택에 제한이 있는 소극적 선택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데(이광우, 임유나, 2023) 이는 국가 주도가 아닌 교육의 분권화와 자율화에 기반하여 상당한 경우 학교 교육과정이 기본적으로 단위학교를 중심으로 개발되는 해외 운영 사례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작동하는 학교자율시간의 정착을 위해서 오랫동안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신뢰에 기반한 교육의 분권화를 성공시켜 단위학교 중심의 자율교육과정을 개발·실행해 온 해외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해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절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현장 적용 방안을 찾는 데 유용한 통찰을 얻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학교 자율교육과정 사례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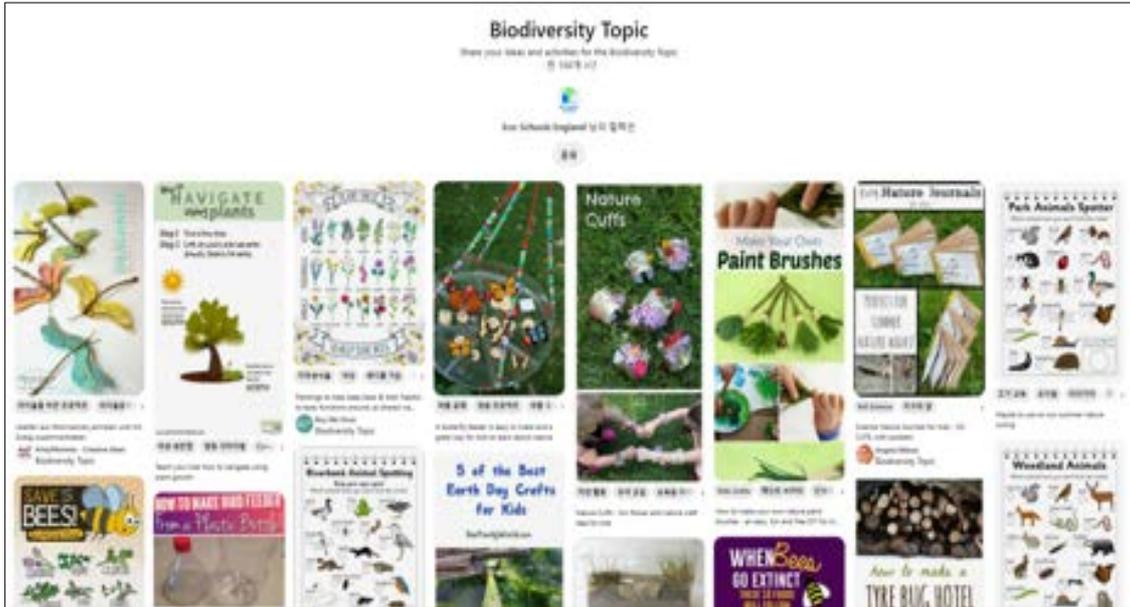
가. 영국의 에코스쿨(Eco-School)

지속가능발전과 환경 문제는 전 세계가 다 함께 동참하여 해결해야 하는 글로벌 과제임과 동시에 각 개인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과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환경 교육의 차원에서 학교라는 공간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과 시설만을 의미하지 않고, 학교 공간 자체가 변화를 위한 에이전트(agent)의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환경 문제를 주체적으로 인식하여 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체험형 환경 교육의 장으로서 학교 공간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수영(2021)은 우리나라의 그린 스마트 학교나 에코스쿨이 친환경 건축이나 디자인, 학교 시설물과 관련된 물리적인 것에 상당 부분 치우쳐 있는 것과 달리 영국과 독일 등 유럽의 에코스쿨은 학교 시설 그 자체를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교육적 도구로 활용함과 동시에 학생 스스로가 직접 학교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하고 실천하는 교육 경험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에코스쿨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학생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도록 준비시키고,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이 같은 맥락에서 영국의 에코스쿨(Eco-School)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수영(2021)의 보고서를 통해 영국 에코스쿨에 대해 요약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국의 에코스쿨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자 수준에 맞춰 에코스쿨 7단계 프레임워크와 10개의 환경 주제를 안내하고 있고 각 환경 주제와 관련한 활동과 아이디어를 핀터레스트(Pinterest) 플랫폼을 통해 공유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 강점이다. 에코스쿨 사이트의 특징은 단계별로 필요한 자료와 구체적인 참고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여 처음 참여하는 학교의 학생과 교사가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에코스쿨 참여 학교는 웹사이트를 통해 더욱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https://www.pinterest.co.kr/ecoschoolsengla/biodiversity-topic/>).



[그림 II-3] 에코스쿨 Pinterest 사이트 예시

영국의 에코스쿨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7단계로 운영된다.

1단계는 **에코위원회(Eco-Committee)** 구성으로 에코위원회에는 모든 학년 대표가 한 사람 이상 포함되도록 하며 한 학기에 2회 이상 회의를 할 것을 권고한다. 모든 회의는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에코보드(Eco-Board)에 게시하여 학교 구성원과 공유하도록 한다. 학생이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각종 학생 자체(Eco-monitors, Energy rangers 등) 활동을 통해 주도성을 갖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교직원, 학부모, 지역공동체 등이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2단계는 **환경검토(Environmental Review)**로 에코스쿨 사이트에 이에 사용 가능한 체크리스트가 학생 수준에 맞게 제공되며 환경검토 결과는 에코보드에 게시하여 공유하도록 한다. 특히 초등학생은 자연을 많이 접하고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환경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학교 텃밭 가꾸기, 바깥 놀이가 가능한 자연친화적 공간을 구성하고 이러한 공간에서 학생들이 쉬고, 놀고, 배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 스스로가 환경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기를 수 있다.

3단계는 **행동(실천) 계획(Action Plan)** 작성인데 2단계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동(실천) 계획에는 구체적 일정과 책임자, 그리고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며 이 역시 에코보드에 게시하여 모든 학생과 공유한다. 특히 계획에 따른 실천을 위해 학생으로 구성된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여 효과를 높이도록 하며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실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여 학생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을 강조한다

4단계는 **모니터링 및 평가(Monitor & Evaluate)**로 에코스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니터링 자료를 수집하고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에코보드를 활용하여 학교 전체 구성원과 공유한다. 이 과정은 수학 교과와 연계하여 에너지나 물 절약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계량기 검침이나 쓰레기 배출량과 재활용률 모니터링을 할 수 있으며 학교 구성원, 지역사회 구성원의 의견 조사, 활동의 전 과정에 대한 사진 기록, 학교 주변 야생 동식물 목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학기말이나 학년말에 그동안의 성과를 축하하고 다음 단계의 구체적 목표를 함께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5단계는 **교육과정 연계(Curriculum Work)**로 초등학교 특정 교과와 프로그램이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 학년별 구체적인 교육과정 상 성취수준을 에코스쿨 단계 및 주제에 맞춰 보여 주게 된다. 10개 주제와 관련하여 교과와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질학회 도서와 BBC 온라인 학습자료를 소개하거나 다양한 경진대회를 통해 미술과 에코스쿨 활동을 학교 전체에 걸쳐 연계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플라스틱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고 난 후 국어 시간과 연계하여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슈퍼마켓에 비닐 포장지 사용을 줄여 달라는 편지를 쓰거나 미술 시간과 연계하여 비닐 포장지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에코백을 디자인하는 활동을 실시하는 것 등이다.

6단계는 **전파 및 참여 독려(Inform & Involve)**의 단계로 모든 학생 및 학교 구성원들로 하여금 에코스쿨 프로그램의 계획, 과정, 결과를 공유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에코보드를 게시하고, 학급별 발표회, 학생회, 경진대회 등 학교 구성원이 모두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거나 교내 방송국이나 신문사,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Eco-Time' 쇼를 통해 에코위원회의 회의 내용, 학생 인터뷰, Eco-Work (시, 연구 결과물 등)를 교내 방송하거나 'Eco-Blog'를 통해 학교에서 진행되는 에코 프로젝트를 학부모와 학교 전체에 홍보할 수 있다. 또한 'Eco-Conference', 'Eco-Fashion Show'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유지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7단계는 **에코코드 제정(Produce an Eco Code)**으로 학생은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전체 구성원의 약속을 에코코드로 제정하고 에코보드에 게시한다. 에코코드의 형식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노래, 시, 서술, 그림, 애니메이션, 포스터 등 어떤 형식도 가능하다. 에코코드 제정은 전(全) 학교 구성원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이렇듯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비전으로 에코코드를 제정하고 게시함으로써 일상에서 친환경적 행동과 태도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환기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나.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community school)

학교는 한정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 학교가 해야 할 일은 늘어나는데 가용한 자원은 늘어나지 않으며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계속되는 역할과 책임을 맡아서 교육을 수행해야 하므로 항상 새로운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와 지역 사회의 연계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하다. 학교는 지역의 일부이며 학교 구성원은 곧 지역사회 일원이다. 또한 학교를 개방하여 지역사회와 연계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즉시적이고 추가적인 자원의 확보를 통해 학생의 교육적 성장을 위한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학교를 다양한 교육과 사회활동의 장(場)으로 개방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확충하는 데 활용하거나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제영(2015)이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 사례를 통해 학교와 지역 사회 간 연계를 제시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 주정부(state government), 교육구(school district) 수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주제로 미국의 커뮤니티 스쿨은 '학교의 교육활동과 지역사회의 생활이 함께 어우러져서 운영되는 공립학교'를 의미하며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자원이 연계되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의 의미를 갖는다. 커뮤니티 스쿨은 학생의 학습 개선,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발전을 목표로 교육활동, 청소년 발달 지원, 가족 지원, 건강과 복지 서비스, 지역사회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신시내티 교육청의 Community Learning Centers(이하 'CLC')는 1990년대 이후 100년이 넘는 학교 건물을 포함하여 오랫동안 사용한 신시내티 공립학교 건물들을 리

모델링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학교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학교의 리모델링을 위해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른 지역의 학교들을 방문하면서 CLC모델에 대해 검증 절차를 거쳐 2002년에 공립학교 건축을 위한 마스터 플랜(master plan)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을 위한 건축에 들어갔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신시내티 교육청은 사업담당자(Resource Coordinator)를 각 학교에 배치하게 되었고, 이후 찾아가는 캠페인과 지역사회 단체의 참여를 통해 신시내티 지역사회에서 학교 건물의 리노베이션과 지역사회 활성화의 필요성을 이해하게 되어 2003년에는 신시내티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사업을 위한 채권 발행을 승인하는 등 1억 달러가 넘는 재원이 신시내티 공립학교 재건축을 위한 자금으로 마련되었다. 마침내 2005년에 개교한 Rockdale Academy에는 학교 건물 안에 1,200 평방피트 규모의 건강 클리닉이 지어졌고 2006년에 개교한 Riverview East Academy에는 보육시설이 특별하게 설계되었다. 미국 연방 교육부에서는 신시내티 교육청의 9개 CLC의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4년간 180만 달러의 재정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후 개별 학교들에 맞는 고유한 서비스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의 협업이 촉진되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기업들의 개입도 이루어졌다.

신시내티 교육청의 CLC가 성공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모델은 'REFORM model'로 REFORM은 'Review data and set goals, Engage partners, Focus on individual students, Offer support, Reset, Measure impact'의 약자이다. 6개의 과정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순환의 과정이지만 개별 학교의 상황은 모두 다르고 사업담당자나 교직원의 역량, 지역의 참여 기관이나 대상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복합적으로 진행되거나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1) 자료의 분석과 목표의 설정(Review data and set goals)

우선 학교의 학업성취도 자료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의 상황에 맞도록 필요로 하는 것, 부족한 부분에 대해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최종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먼저 사업담당자는 학교장과 함께 자료분석팀을 구성하여 자료의 추세를 분석하여 CLC의 목표와 특정 학생 집단의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취 지표를 설정한다. 목표는 학교가 설정한 성취지표와 일치하며 영역별로 변화 추세에 맞게 세부적이고, 측정 가능하도록 하며 함께 참여하는 집단의 참여 방법과 동기화에 적합하여야 한다. 자료분석팀은 한 학년도 동안 새로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목표에 맞는 지점하며 새로운 자료에 대해서는 팀 미팅에서 공유하여 한 학년도 동안에 사업담당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한다.

〈표 II-8〉 자료의 분석과 목표의 설정 단계(정제영, 2015: 16)

구분	객관적 자료(정량 지표)	주관적 자료(정성 지표)
학업성취도	·주정부 평가 결과 ·전년도 성적, 사전 평가 ·출석률, 훈육(징계), 대학 진학 결과	·학교 문화 ·학습의 장애물
건강과 안녕	·건강 검진, 시력, 치과, 정신건강	·건강에 대한 이해 ·문화적 영향 ·가족의 식사 습관
파트너	·활동에 참여한 학생수 ·Learning Partner Dashboard의 학생성취도 향상 결과	·만족도 ·학생과 학부모의 서술 평가
학부모	·학부모 교육과 행사 참여 ·학부모의 인구학적 특성 ·학교 웹사이트 활용율 ·학교 방문 횟수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학부모의 관심
지역사회	·학교에 관련된 지역사회 인사의 인원 ·지역사회 인사의 인구학적 특성 ·업무상 파트너의 숫자	·지역사회의 연계 수준 ·지역사회에서 학교의 평판

2) 파트너의 선정과 참여(Engage partners)

2단계로는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파트너를 선정하는 것이다. CLC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한 파트너를 선택하여 운영과정에서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파트너는 프로그램, 활동, 학생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나 조직을 의미한다. 파트너의 선정과 참여 과정은 다시 7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차이 분석(complete a gap analysis)으로 CLC의 목표와 현재 학교의 상황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 차이를 메우기 위해 가장 필요한 자원과 적절한 파트너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요구사항을 정의하는 것(know your 'ask')으로 사업담당자는 무엇이 필요하고, 다양한 주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파트너들이 학생들에게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열정을 쏟도록 할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세 번째는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것(reach out to invite in)이다.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하고 뉴스레터를 보내고 지역사회 행사에서 만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파트너로 만들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explore the networks),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학부모와 학교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오리엔테이션이다. 여섯 번째는 다양한 방식의 협약

(formal agreement)으로 파트너와 학교는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예상되는 목표 성과를 기술한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교환하며 협력을 촉진한다. 일곱 번째는 모든 파트너에 관한 자료와 성과에 대해 기록하는 것(recording the partner)이다. 이것은 사업과 교육의 지속성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3) 개별 학생에 초점을 맞추기(Focus on individual students)

이 단계에서는 개별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개별 학생의 데이터를 좀 더 심층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객관적인 지표 점검과 담임교사의 다양한 의견 수집을 통해 집중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여 이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관리하고 성과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및 지원한다. 이후 다양한 파트너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학생의 상황이나 필요한 부분에 맞도록 학생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해 주는 것이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개별 학생들의 성과에 대해 담임 교사와 다양한 회의 방식을 통해 상시로 의사소통을 가진다.

4) 지원 제안(Offer support)

이 단계에서는 CLC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학교의 파트너들이 학생과 가족들에게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이다. 파트너들은 CLC의 성과를 위해 본인들의 시간과 자원을 활용하고 있고 그 대가로 CLC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사업담당자는 파트너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훈련과 정보 제공을 받도록 지원해야 하며 학생들의 성장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5) 중간 점검 및 재조정(Reset)

이 단계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조정하는 것이다. 모든 일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면 그 프로그램은 더욱 확대하고 문제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재조정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이다. 학생이 튜터링에 잘 참여하고 있고,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학업성취도 결과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튜터가 교육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교재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학교 전체의 프로그램을 재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등 객관적인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6) 성과 관리(Measure impact)

마지막 단계는 학년도 마지막에 모든 CLC 자료를 분석하여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성과 관리는 CLC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와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내용은 신시내티의 CLC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REFORM 프로세스의 첫 번째 과정에서 자료분석팀은 전년도의 자료를 분석하여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도 성과관리 보고서를 참고하게 된다. 객관적인 기관에 의해 수집되고 분석된 결과보고서는 공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특히 성공사례에 대해서는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거나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

다. 핀란드의 루우티(Ruuti)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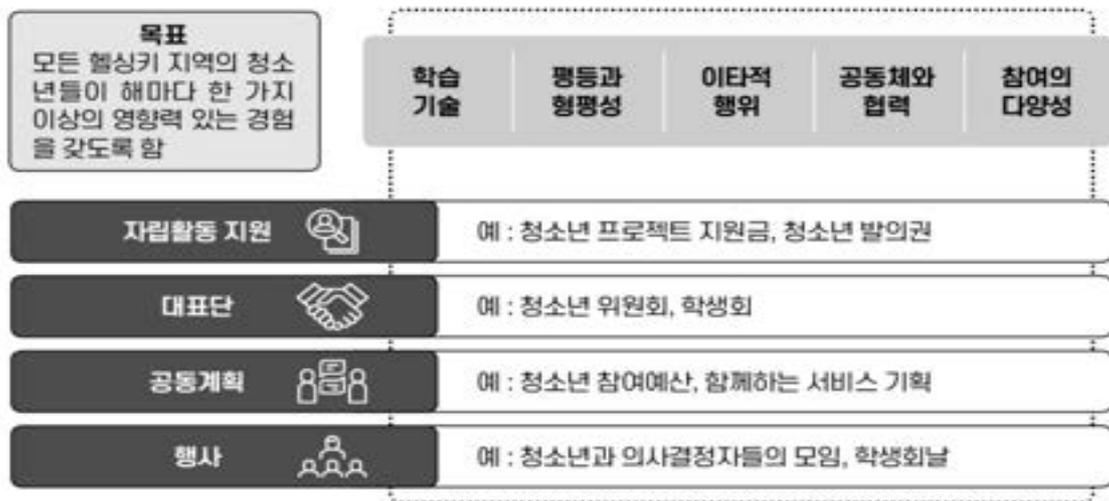
최근 몇 년간 전세계의 아동·청소년들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신체적, 정서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왔으며 심리·사회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인한 병리 현상의 심화는 아동·청소년들의 인지적·정서적·사회적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을 개발하려는 노력으로도 이어졌다(이동섭, 2022).

사회·정서적 역량은 아동과 청소년의 웰빙, 정신건강 및 진로 개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위한 21세기 핵심 기술로 인식된다. 이에 사회·정서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녹여 통합하는 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심리적 웰빙을 지원하고 그들의 힘과 회복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 중 하나이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코로나 대유행 이후 학생의 정서적,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학교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상담교사만의 업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보고 수업 외 교사의 과중한 업무량을 감안, 교육과정에서 학습과 교육복지를 심층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및 심리학자와 같은 더 많은 인적 자원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즉, 학생 복지서비스와 양질의 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를 늘리기보다 학교에서 사회복지사나 심리학자의 학생 대 비율을 줄이는 것을 택하여 고등학교 진학을 향상, 따돌림을 퇴치할 기회 개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및 복지의 격차를 메우는 데 주력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에서 학생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다.

다만 다수의 사회 심리학자와 교육학자들은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 방과후 클럽, 청소년 사회 참여 활동 등 정규 학교 교육과정에 다른 프로그램이 개입되었을 때 사회·정서적 역량이 더욱 발전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균형감각을 가지면서도 다양한 비형식 학습(non-formal learning)과 확장학습(expansive learning)을 통해 더 많은 역량을 개발하는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이동섭(2022)이 보고한 ‘루우띠’ 시스템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헬싱키시는 아동·청소년들의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효과성 극대화를 위해 지역 교육과정 안에서의 청소년 사회 참여 시스템인 ‘루우띠’를 구축하고 있다. 지자체는 청소년이 중요하다 하고 여기는 문제를 홍보할 기회를 주어, 지자체의 모든 청소년이 적어도 매년 한 번은 개인과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험을 갖도록 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은 자기주장, 낙관주의, 사교성, 책임감, 호기심, 창의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회·정서적 기술을 개발하도록 도움을 받는다. 루우띠 활동은 ‘권한 부여 및 참여 기술 학습’, ‘평등과 형평성’, ‘타인에게 봉사’, ‘학교와 지역공동체의 협력(지역주의와 집단작업)’, ‘참여의 다양성’이라는 5가지 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루우띠의 운영원리와 형태는 [그림 II-4]와 같다.



[그림 II-4] 루우띠 운영 원리와 형태(이동섭, 2022: 36)

루우띠는 헬싱키시 청소년의 목소리가 지자체의 의사 결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시의 모든 행정부서 및 산업체가 루우띠 시스템과 직접 연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루우

떠는 청소년에게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개별 청소년이나 그룹이 지역사회의 더 광범위한 문제에 영향을 미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거나 기존의 좋은 상황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참여 활동으로 청소년이 주변 환경이나 도시 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스타일로 활동하도록 지자체는 격려하고 지원한다. 핀란드의 청소년법 (Youth Act)과 지방자치단체법, 같은 다른 법률에도 의사 결정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지역 주민과 상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헬싱키의 모든 청소년은 1년에 한 번 이상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의사 결정자와 토론할 기회를 얻는다. '루우띠'는 청소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사익을 추구하거나, 기존 활동을 중복하여서 참여할 수는 없다.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 분야가 같은 기존 그룹에 가입하거나 생각이 같은 친구 10명을 모아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루우띠 웹사이트(ruuti.net)에 블로그나 게시물을 작성하여 타인에게 문제를 홍보한다.

참여 절차와 방법은 ① 웹사이트를 통해 활동 계획 작성하기 ② 거주지역에 대한 루우띠 예산에 참여하기 ③ 학교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기 ④ 청소년 서비스에서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과 재정 지원 받기 ⑤ 헬싱키 청소년 위원회의 후보자가 되거나 청소년 위원회 선거에 투표하기 ⑥ '청소년 소리 편집'에 가입하기 ⑦ 가장 가까운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받기이다.

또한 헬싱키시는 13~17세의 청소년 발의(Nuorten aloitteet)를 위한 전용 웹페이지가 있어 ① 제출된 발의안은 담당 부서에 전달 ② 초안 담당 작성자와 발의자의 소통 ③ (부)시장의 결정 답변 이메일 확인 및 초기 답변 청소년 웹사이트에 게시 ④ 청소년의 발의안과 그 결과 취한 조치는 연 2회 시의회에 전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은 학교 옆 공원에 벤치를 설치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제안이나 주변의 위험한 교차로에 농구 코트를 요청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된 사례를 구축하고 자신의 제안이 공동체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헬싱키 청소년 위원회의 대표는 청소년 발의안을 논의할 때 시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가 있다.

주민참여 예산제도인 루우띠 예산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가 구현되고 자신의 주거 지역과 학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발의권 및 의사 결정 회의를 통해 청소년이 민주주의를 취하도록 직접 독려하고 청소년의 적극적인 옹호 활동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회적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과 경험이 이루어지므로 '루우띠'는 지자체의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의사 결정 시스템'의 일부인 셈이다.

7. 경상북도 선행 연구학교 운영 사례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변화가 가속화되고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변화 대응력을 키워주는 역량 함양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의 삶 속에서 무언가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자기관리·지식정보처리·창의적 사고·공동체·의사소통·심미적 감성이라는 핵심역량을 제시하였고 2022 개정 교육과정 방향도 학습자가 자신의 삶과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구성하는 능력을 통해 미래 사회 변화의 주체가 되는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에는 3~4학년, 2026학년도에는 5~6학년에 순차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은 2025학년도부터 전 학교에서 시행된다. 학교자율시간 신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이며 가장 눈에 띄는 변화의 상징으로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간, 즉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유연하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작동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도 적합한 교육과정상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김종훈, 2023).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자율과정, 충청북도교육청의 자율탐구과정, 전라북도교육청의 학교교과목 등 앞서 살펴 본 타·시도의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경상북도교육청에서도 이미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이 주도적으로 배움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찰하는 자율 교육과정 운영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과 학교자율시간의 실험적·선행적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에서의 적합성 파악을 위해 2021학년도부터 중점 연구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절에서는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모색과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선행 연구학교 세 곳의 운영 사례를 연구학교 계획서와 보고서를 통해 살펴보았다.

가. 파천초등학교 미래 교육과정

경상북도 청송군에 위치한 파천초등학교는 전교생이 39명(학급당 학생 수 10명 이내)인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로 2021학년도부터 2023학년도까지 3년간 교육과정 혁신 방안을 위한 정책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미래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신장'이라는 주제 아래 미래 교육과정을 통해 학습자 주도성을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가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의 힘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연구학교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 구성원의 고유성과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과업을 만들고 성취하기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학습자 주도성을 신장하는 파천초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미래 교육과정(FUTURE CURRICULUM)’으로 정의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향은 [FUSION(융합형 교육활동)], [TURNING(전환기 교육활동)], [RELATION(공동체 교육활동)]의 3가지로 정하였으며, 각 영역별 교육활동은 사계절 학기제(봄학기: 3. 1. ~ 5월 중순, 여름학기: 5월 중순 ~ 8월 중순, 가을학기: 8월 중순 ~ 11월 초, 겨울학기: 11월 초 ~ 학년도 말)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다(파천초, 2022; 파천초, 2023). 특히 미래 교육과정의 영역 중 ‘융합형 교육활동’ 운영 시 3~6학년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확보하였으며 1학기는 지역 연계 과목, 2학기는 학생 생성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수 확보 현황은 <표 II-9>과 같다.

<표 II-9> 계절별·학년별 미래교육과정 영역별 시수(파천초, 2023: 13)

영역	교육활동 (선택 주제)	계절 학기	계절별 시수(시수 확보의 출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FUSION 융합형 교육활동	우리 고장 지질여행	여름	-	-	29 (학교자율시간)	29 (학교자율시간)	32 (학교자율시간)	32 (학교자율시간)
	우리가 만드는 과목	가을 겨울	18 (창제)	18 (창제)	29 (학교자율시간)	29 (학교자율시간)	32 (학교자율시간)	32 (학교자율시간)
TURNING 전환기 교육활동	새학년 로그인 (학급 개설 활동)	봄	86 (교과, 창제)	8 (창제)	8 (창제)	8 (창제)	8 (창제)	8 (창제)
	중학교 즐겨찾기 (학급 개설 활동)	가을 겨울	-	-	-	-	-	24 (교과, 창제)
RELATION 공동체 교육활동	꿈소슬 IT 놀이터 (학년군 개설 활동)	여름	14 (창제)	14 (창제)	14 (창제)	14 (창제)	14 (창제)	14 (창제)
	꿈소슬 6남매 (학교 개설 활동)	연중	32 (창제)	32 (창제)	32 (창제)	32 (창제)	32 (창제)	32 (창제)
연간 운영 시수			150	72	112	112	118	142

<표 II-9>와 같이 미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시수는 학교자율시간과 창의적 체험 활동 시수 순증을 통해 확보하였으며 학교자율시간은 3~6학년 융합형 교육활동 운영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우리 고장 지질여행’은 학교 개설 과목으로 학년별로 여름학기에 29~32시간을 운영하고 ‘우리가 만드는 과목’은 학생 생성 과목으로 학년별로 가을학과 겨울학기에 29~32시간을 할애하여 운영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감축하여 확보한 3학년의 학교자율 시간 시수 편성과 계절학기별 운영 시수를 살펴보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3학년 시수 편성 사례(파천초, 2023: 16)

3~4학년군			3학년							
구분	학년군 기준 시수	학년 기준 시수	편성 시수(*괄호는 학교자율시간)							
			시수 순증	최종 편성		교과·창체 편성		미래교육과정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군)	국어	408	204	-	102	102	96	96	(6)	(6)
	사회/도덕	272	102	-	51	51	48	48	(3)	(3)
			34	-	17	17	16	16	(1)	(1)
	수학	272	136	-	68	68	64	64	(4)	(4)
	과학	204	102	-	51	51	48	48	(3)	(3)
	체육	204	102	-	51	51	48	48	(3)	(3)
	예술	272	68	-	34	34	32	32	(2)	(2)
			68	-	34	34	32	32	(2)	(2)
	영어	136	68	-	34	34	32	32	(2)	(2)
소계(A)	1,768	884	-	442	442	416	416	(26)	(26)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204	102	+24	29	45	12	40	14+(3)	2+(3)
	동아리활동				8	8	-	-	8	8
	봉사활동				4	4	2	2	2	2
	진로활동				18	10	6	6	12	4
소(B)	204	102	+24	59	67	20	48	36+(3)	16+(3)	
연가 수업 시수(A+B)	1,972	986	+24	1,010		900		52+(58)		

3학년 미래교육과정			계절학기별 운영 시수			
			봄학기	여름학기	가을학기	겨울학기
FUSION 융합형 교육활동	우리 고장 지질여행	학교개설과목	-	29 (학교자율시간)	-	-
	우리가 만드는 과목	학생생성과목	-	-	29 (학교자율시간)	
TURNING 전환기 교육활동	새학년 로그인	학급개설활동	8 (진 8)	-	-	-
	중학교 즐겨찾기	학급개설활동	-	-	-	-
RELATION 공동체 교육활동	꿈소슬 IT 놀이터	학년군개설활동	-	12 (자 12)	-	-
	꿈소슬 6남매	학년군개설활동	16 (자 2, 동 8, 봉 2, 진 4)		16 (자 2, 동 8, 봉 2, 진 4)	
소계			65		45	
연간 운영 시수			110			

3~6학년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개발한 새로운 과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학기에는 지역 연계 과목인 '우리 고장 지질여행'을 학급 담임교사가 학년별로 운영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교사와 학생으로 구성된 배움팀 단위의 학생 생성 과목인 '우리가 만드는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특성을 적극 반영하여 지역 연계 과목으로 개설한 '우리 고장

지질 여행'은 청송 유네스코 세계 지질 공원을 중심으로 지질학, 사회학 미학 등 다양한 학문을 융합하고 지역민의 삶과 연계된 학습활동 제공을 통해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다루는 지질 명소는 학년별로 권역을 달리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II-11>'우리 고장 지질 여행'학년별 지질 명소 권역(파천초, 2023: 25)

3학년 [신성계곡 권역]	4학년 [북부 권역]	5학년 [주왕산 권역]	6학년 [남부 권역]
[지질명소 4곳] 방호정 감입곡류천, 신성리 공룡발자국, 만안 자암 단애, 백석탄 포트홀, 청송자연휴양림 퇴적암층	[지질명소 5곳] 파천 구상 화강암, 청송 구과상 유문암(꽃돌박물관), 송강리 습곡구조, 노루용추 계곡, 달기 약수탕	[지질명소 6곳] 기암 단애, 주방천 페퍼라이트, 연화굴, 용추 협곡, 용연 폭포, 급수대 주상절리	[지질명소 8곳] 청송얼음굴, 법수도석, 병암 화강암 단애, 나실 마그마 혼합대, 면봉산 칼데라, 수락리 주상절리, 절곡협곡, 주산지

학교에서 개설하는 '과목'으로서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학습의 범위와 위계를 설정하고 성격, 목표, 내용, 방법, 평가로 이루어진 교육과정과 교과용도서(학교 교과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교실 수업과 탐방(체험) 학습이 각 학년별로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청송 지오파크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최종 학습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

<표 II-12>'우리 고장 지질 여행'학습 범위(파천초, 2023: 26)

구분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
청송 지오파크의 지질자원	·형성과정 ·지질현상 ·암석	·지도에서 지질 명소의 위치와 정보 확인하기 ·지질자원의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야외에서 관찰 및 조사 수행 하기	·지질장원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 ·지질자원이 만든 자연 환경에 대한 감수성
청송 지오파크가 지닌 가치	·경제적 가치 ·교육적 가치 ·심미적 가치	·지오파크의 정보 수집하고 비교하기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지오파크의 가치 탐색하기	·지오파크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 ·지오파크의 가치 창출에 대한 관심
청송 지오파크와 인간의 삶	·지질명소 이야기 ·청송인의 삶 ·지속가능한 지오파크	·지질명소에 깃든 이야기 조사하기 ·지오파크와 관련된 사람과 하는 일 탐색하기 ·지속가능한 지오파크가 되기 위한 방안 탐색하기	·지질명소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흥미 ·개발과 보전에 대한 균형 있는 관점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

나. 명호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경상북도 봉화군에 위치한 명호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5명(학급당 학생 수 10명 이내)인 농촌 지역 소규모 학교로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교육과정 정책 연구학교를 운영 중이다. '학교자율시간 확보·운영을 통한 협력적 주체성 신장'을 주제로 학교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물적 자원의 유연한 활용, 학생의 흥미를 고려한 학생 주도 설계형의 선택과목 운영 및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학습자의 공동체 가치 함양과 역량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협력적 주체성'을 신장하는 것을 연구학교 운영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협력적 주체성'을 학생 주체성(학생의 행위 주체성)과 교사 주체성(교사의 행위 주체성) 둘 다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개인 차원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성의 의미로 규정하고 학생 주체성은 학생이 사회에 참여하여 주변의 타인, 사건,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책임감을, 교사 주체성은 전문성 발달을 위해 목적 지향적이고 건설적으로 행위하는 능력과 학생과 동료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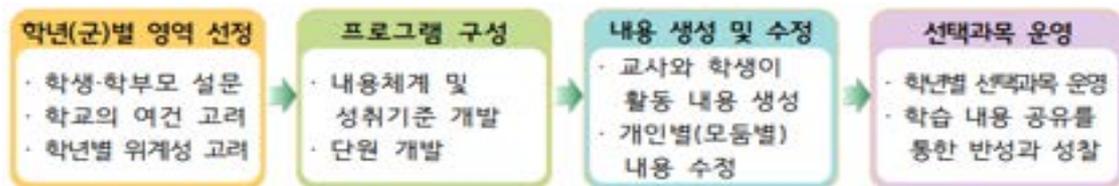
또한 2022학년도(1차년도)와 달리 2023학년도(2차년도)에는 기후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추구하며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생태적 전환을 이끄는 능력 함양을 위해 생태전환교육 운영을 주요 연구과제로 삼고 교과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과 교과 운영 시수 감축을 통해 확보한 시수를 활용하여 '명호 생태 프로젝트'와 월별 체험형 생태전환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였으며, '명호 한울림 자치회'조직으로 대표되는 민주 시민교육도 주요 연구과제로 설정하였다. 시수는 생태전환교육과 같이 교과 성취기준 중심의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 운영 시수 감축을 통해 확보하고 소규모 학교의 특성을 살려 '명호 아고라', '명호 해결사'를 운영하며 지역의 전문 교육 관련 기관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명호초, 2022; 명호초, 2023).

이러한 연구 목적과 주요 과제 실행을 위해 구체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은 학습 경험 확대를 위한 학교 교육과정 시간 편성의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2022학년도(1차년도)에 교과 내 20% 범위의 시수 증감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순증 운영을 통해 시수를 확보한 반면 2023학년도(2차년도)에는 <표 II-13>의 6학년 예시와 같이 교육과정 시수를 순증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증감을 통해 시수를 확보하여 운영하였다.

<표 II-13> 2023학년도 교육과정 시수 편성표(6학년, 명호초)

5-6학년군					6학년(2023)						
구분	학년군 기준 시수	학년 기준 시수	시수 증	편성 시수							
				최종 편성		운영 시수		학교자율시간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교과	국어	408	204	+8	112	100	97	90	10	15	
	사회	204	102	0	52	50	44	46	8	4	
	도덕	68	34	0	17	17	14	13	3	4	
	수학	272	136	+4	73	67	73	67	-	-	
	과학	340	204	102	0	52	50	41	50	5	4
			136	68	0	34	34	29	34	5	-
	체육	204	102	+2	53	51	53	51	-	-	
	예술	음악	136	68	+2	36	34	36	34	-	-
		미술	136	68	+2	36	34	36	34	-	-
	영어	204	102	+2	53	51	53	51	-	-	
계(A)	1,972	986	+20	518	488	476	470	31	27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204	102	-4	36	33			-	-	
	동아리활동				10	10			-	10	
	봉사활동				2	3			-	-	
	진로활동				2	2			-	-	
	계(B)	204	102	-4	50	48			0	10	
연가 수업 시수(A+B)	2,176	1,088	+16	1,104		1,036		68			

또한 학생의 희망 및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 의뢰 결과에 기반한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목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는데 개발의 절차는 1) 설문 및 심리검사 결과 분석 2) 선택과목에 대한 교육공동체(학생, 교원, 학부모, 지역 특성 고려)의견 수렴 3) 학년(군)별 선택과목 개설 4) 학년(군)별 선택과목 운영 5) 학년(군)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의 5단계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선택과목의 교과명은 '미래 시민'으로 목표, 영역, 핵심 아이디어 및 학년군별 내용요소를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범주화한 내용 체계표를 마련하여 [그림 II-5]와 같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실시하였다.



[그림 II-5] 선택과목 운영 단계(명호초, 2023: 14)

구체적으로 선택과목 ‘미래 시민’의 영역은 활동 위주의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 ‘꿈을 찾는 아이들’과 체험 위주의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의 3개로 설정하고 영역별 내용 요소는 <표 II-14>와 같이 학년군별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로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표 II-14> 선택 과목 ‘미래시민’의 내용 체계표 예시(명호초, 2023: 16)

선택과목	미래 시민		
영역	학생 맞춤형 교육활동		공동체 가치 함양 교육활동
	문화를 즐기는 아이들	꿈을 찾는 아이들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영역명	함께 성장하는 아이들		
핵심 아이디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환경 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한다. ·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치회를 이끌어가며 민주적인 학교 분위기를 조성한다. · 개인 및 집단의 능력과 특성에 맞춘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 		
구분	학년군별 내용 요소		
범주	1~2학년	3~4학년	5~6학년
지식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의 개념 · 환경보호의 중요성 · 공동체 의식 · 대화화 소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 온난화의 원인 및 영향 · 탄소 발자국의 개념 · 생활 속 회의 · 주도적 의사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 변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 국제 협력 및 정책 · 참여 민주주의 · 인권교육
과정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 환경 관찰하기 · 환경 보호 실천하기 · 협동학습 체험하기 · 협력적 소통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 발자국 계산하기 · 친환경 에너지 활용하기 · 절차에 따라 회의하기 · 바른 의견 제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역 사회 활동 참여 · 기후변화 정보 및 지식 전파 · 학교의 문제 해결하기 · 인권의 중요성 탐구하기
가치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호에 대해 관심 기울이기 · 지구 생태계 존중하기 · 공동체 의식 기르기 · 소통의 중요성 알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호 책임감 기르기 · 친환경 에너지 활용의 중요성 인식하기 · 회의의 중요성 알기 · 타인의 의견 존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에 대한 존중과 보호 의식 기르기 ·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의지 다지기 · 민주주의의 중요성 알기 · 인권의 소중함 알기

명호초등학교는 교육과정 시수를 순증하고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자율 증감을 통해 학교자율시간 시수를 확보하였으며 학생의 희망과 전문기관 의뢰 결과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주요 연구과제인 공동체 가치 함양 교육과정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문덕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경상북도 포항시에 위치한 문덕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009명인 농촌지역 대규모 학교로 2022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 3년간 교육과정 정책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앞선 두 연구학교와 달리 2022학년도(1차년도)에 비해 2023학년도(2차년도)에는 연구 주제와 학교자율시간 운영 및 선택활동의 방점이 대폭 수정된 것이 특징인데, 이는 1차년도 운영의 결과 분석을 토대로 각 학년 선택활동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기초학력 저하 등의 학교 및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수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덕초등학교는 ‘선택과목’개발이 아닌 ‘선택활동’을 운영하면서 주제 선정, 성취기준 개발, 학년별 위계 등을 학교 자율적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충분한 연구 시간과 전문성이 확보되어 질적 수준이 담보된 교육과정 개발이 요구되는 ‘학교 단위의 선택과목 개발’이라는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맞춤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향상’이라는 연구 주제로 초등학교 교육 목표의 핵심인 기초·기본 소양 함양에 중점을 둔 선택활동을 구성하였으며 대규모 학교의 특성상 학년 단위의 교육과정 운영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 학년별 다양한 활동들을 통합하여 위계를 가진 학년 공동 프로젝트로 학교자율시간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선택활동은 ‘배움의 바탕’,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 ‘스스로 만드는 배움’의 3가지로 선정하였는데 ‘배움의 바탕’이란 학년초 학급 세우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방법을 익히는 학습 방법에 대한 학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기초 어떻게 학습해야 하는지 방법과 절차를 체계화하여 기초·기본교육을 위한 학습 습관을 형성하고 다른 과목에의 전이를 목표로 하는 개념이다.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은 언어 소양 강화를 목적으로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생각을 넓혀 주어 학습의 전이가 일어나는 독서활동을 의미, ‘스스로 만드는 배움’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요구를 토대로 스스로 성취기준을 생성하고 실행하며 성찰(A-A-R)하는 학습자 주도성이 발현된 학생 개인 프로젝트 교육과정으로 그간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강조해 온 학생생성교육과정 운영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이와 같은 주요 연구 과제 실행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은 2022학년도(1차년도)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편성한 것과는 달리 2023학년도(2차년도)에는 <표 II-15>와 같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감축을 통해 3~4학년군에는 각각 58시간을, 5~6학년에는 각각 64시간을 확보하여 편성하였다(문덕초, 2022; 문덕초, 2023).

<표 II-15> 2023학년도 교육과정 시수 편성표(문덕초, 2023: 6)

구분	국가 기준	1·2학년		국가 기준	3·4학년		국가 기준	5·6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교과 (군)	공통 교과	국어	482	241	244	408	195	200	408	198	200	
		도덕/사회 (바쟁)	도덕 사회	144	72	72	68	30	32	68	31	31
							204	95	100	204	100	99
		수학	256	128	128	272	135	133	272	130	132	
		과학/실과 (슬쟁)	과학 실과	224	112	112	204	98	98	204	98	98
										136	68	64
		체육(즐거운)	400	200	210	204	102	102	204	102	102	
		예술				음악	136	68	68	136	68	68
		음악/미술				미술	136	68	68	136	68	68
		영어	·	·	·	136	65	64	204	98	97	
학교자율시간		·	·	·	·	58	58	·	64	64		
창체(자·동·진)		238	122	144	204	91	82	2054	85	86		
소계		1744	875	880	1972	1005	1005	2176	1110	1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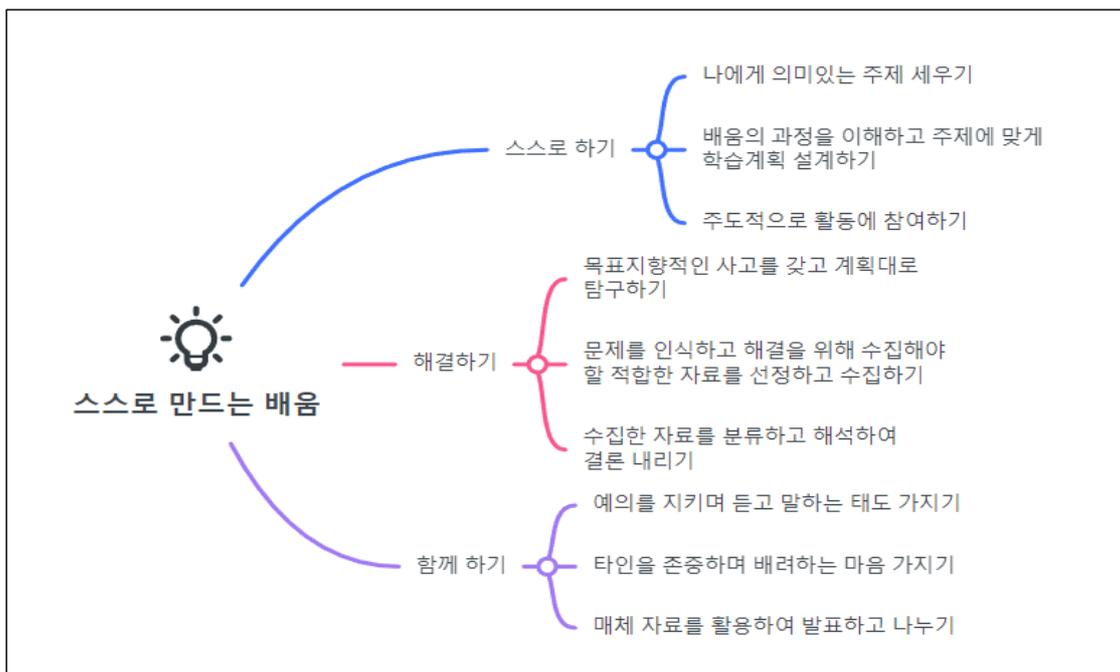
다만 선택활동이 학년의 위계성을 고려하여 전 학년에서 이루어지므로 1~2학년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감축하여 선택활동 운영 시수를 확보하였고 3~6학년은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운영하였으며 구체적인 학년군별, 학기별 운영 시기와 시수 편성은 <표 II-16>과 같다.

<표 II-16>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선택활동 편성·운영 계획(문덕초, 2023: 6)

내용	학년군별 시수			운영 시기											
				1학기						2학기					
	1, 2	3, 4	5, 6	3	4	5	6	7	8	9	10	11	12		
▶ 배움의 바탕	(9/8)	9/8	9/8	■	■					■	■				
▶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	(8/9)	12/12	15/15			■	■	■			■	■	■	●	
▶ 스스로 만드는 배움	·	17/0	17/0	■	■	■	■	■							
계	(17/17)	38/20	41/23	· ()는 교과 및 창체 편성 시수											
	(34)	58	64	· ※ 1학기 시수/2학기 시수											

3가지 선택활동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배움의 바탕'활동은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학기 초에 집중 운영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비율이 높아 기초학력오름학교,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맞춤형 코칭 등의 다양한 관련 교육 활동(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학교의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성에 맞게 ‘학습방법을 학습’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깊이 읽기를 통한 배움’활동도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되 학기 중 3개월에 걸쳐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언어 소양 강화를 목표로 학생의 삶과 연계된 책을 선택하여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생각을 넓혀 결국 학습의 전이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 독서 활동에 중점을 두는 활동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만드는 배움’은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배움을 스스로 계획, 실행, 성찰하는 단계를 거치므로 1~2학년을 제외하고 3~6학년을 대상으로 학년별 17차 시씩 운영하되 학년이나 학급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3개의 선택활동은 모두 각각의 목표, 내용 체계, 교수·학습 및 평가 방향, 학년군별 세부 활동 계획을 설정하였으며 특히 기존 성취기준을 통합, 재진술하여 학생들의 삶에 맥락화할 수 있는 성취기준을 마련하였다. 내용 체계의 예시는 [그림 II-5]와 같다.



[그림 II-5] ‘스스로 만드는 배움’ 내용 체계표(문덕초, 2023: 16)

문덕초등학교는 3~6학년에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고 학생과 교육공동체,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기초·기본 소양 교육에 중점을 둔 선택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거나 지역과 연계하는 선택활동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

8. 시사점

그동안 2009 개정 교육과정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성을 교과(군)별 20% 시수 증감 비율로 제시해 온 방식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의미있게 작동하는 지침이 되지 않는 못했다는 한계와 비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국가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의 교육과정 자율성을 비로소 명문화해주었다는 점에서는 중요한 의미가 되었다(이광우, 임유나, 2023). 이는 교과(군)별 기준 수업 시수의 20% 증감 지침을 활용하여 기존의 교과 프로젝트 및 학교 특색활동을 뛰어넘거나 포괄하는 수준의 새롭고 창의적인 학교교육활동을 운영한 경기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및 전라북도교육청 등 앞서 살펴본 타시도의 학교자율과정 모든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2024학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의 범위에서만 적용하던 시수 증감 지침을 창의적 체험활동까지 확장하고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단위학교가 지역과 연계하거나 학교와 학생의 필요를 고려한 다양하고 특색있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함으로써 교육과정 자율화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게 작동하도록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지금까지 살펴본 국내·외 학교 자율 교육과정 및 경북 도내 선행 연구학교 사례들에서 향후 단위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필요한 다음의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먼저 학교 개설 '활동'과 '교과'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이 간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교자율시간이 그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구현되려면 단위학교마다 처한 다양한 상황(학생 실태와 학습 수준, 지역 여건, 규모, 학교 문화, 학부모 특성 등)에 맞게 해당 학교가 선택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활동'이나 '과목'개설을 통해 운영되어야 하는데 개설 절차가 행정적으로 복잡할 경우 운영의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김종훈 외, 2022).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된 상향식 접근의 전라북도 학교교과목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는데 학교교과목의 승인 절차에 따라 유형을 3가지로 구분하여 단위학교 내에서 활용 가능한 개발 교과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개설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사들의 높은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었다.

둘째,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데 있어서 교육과정 문서의 추상적인 지침을

반복하는 수준(가령, 교과(군)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20% 시수 증감 가능 및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 학교 여건에 맞는 적절한 교과 활동이나 과목을 개설하라는 등)에서 벗어나 지역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지침을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대학 입시에 비교적 영향을 적게 받는 초등학교급의 경우는 중고등학교급보다 가장 적극적이고 다양한 시도와 방식 적용이 가능한 만큼 학교급별 맥락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교육과정 상위기관의 '획일적인 지침 하달'이나 '강제적, 표준화된 자율성'이 되지 않도록 학교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양한 매뉴얼과 사례를 제시하는 등 학교마다의 실질적 자율화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해외 학교의 사례들과 도내 선행 연구학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듯이 지역 사회와의 협력과 연계가 필연적이라는 점이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 사회의 여러 유관 기관과 다양한 방식의 협력이 이루어질 때 교육과정의 구성과 프로그램 개발이 보다 풍성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체험하거나 반대로 여러 전문 기관의 소속원들이 교육의 동행자로서 학교를 방문하여 교육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교육과정 제공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율시간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이고 의미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자율시간 운영 필요성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제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2021학년도부터 학교자율과정을 선행적으로 도입한 경기도교육청과 충청북도교육청의 경우 각각 도내 초등학교의 55.8%와 17.7%만이 운영에 참여하였다.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낮은 참여율의 이유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교사들은 학교자율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성이나 교사 교육과정 운영과 별 차이가 없다고 느끼고 기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적절히 구성하여 편성·운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므로 학교 구성원의 필요성과 공감대가 거의 없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상북도교육청의 경우 2022학년도부터 도내 전 학교에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교육과정(수업) 설계에 참여하도록 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프로젝트 학습과 연계하여 실시해 오고 있는 바, 학교자율시간이 기존의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과 어떻게 구별되며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파악하여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Ⅲ. 연구 절차 및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팀에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학교자율시간’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문헌과 선행연구 사례 분석을 우선 연구 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학교자율시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주체들의 인식 실태 분석과 이에 따른 공감대 형성 지원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도내 전 초등학교 학생 및 교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학교자율시간’ 관련 도내 교육과정 연구학교 소속 교원과 담당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과 그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수집한 자료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단위학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과 교육청 단위의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연구 결과와 연구 과정 전반에 대한 성찰 및 후속 연구과제에 대한 담론을 담아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절차는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수행 절차

시기	활동 주제	세부 실행 내용	비고
2023년 2월	연구 계획 수립	- 연구 진행 절차 협의 - 연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3월	착수 보고	- 연구 계획 보고 - 연구 계획 컨설팅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연구 기반 조성	- 정책 연구 수행 협의 - 정책연구팀 연구 과제 관련 전문성 함양	장량초
4월	문헌 연구	- 관련 교육과정 분석 - 타 시·도 관련 운영 사례 분석 - 선행 연구 및 운영 우수 사례 분석	
5월	설문 도구 작성 및 검토	- 선행 연구의 조사 도구 분석 - 설문지 및 심층면담 도구 1차 작성 및 검토 - 전문가 컨설팅 및 사전검사를 통한 타당성 검증, 설문 문항 수정·보완	

시기	활동 주제	세부 실행 내용	비고
5월	중간 보고	- 1차(중간) 보고서 제출 - 연구 추진 상황 보고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6월	설문조사 및 자료 분석	- 설문조사 실시 - 설문조사 결과 분석	도내 초등학교 교원 및 학생
7월	심층면담 도구 작성 및 검토	- 심층면담 내용 보완(설문조사 결과 반영)	
	심층면담 실시 및 자료 분석	-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실시 - 심층면담 결과 분석	도내 연구학교 교원 등
8월	시사점 및 결론 작성	- 시사점 및 결론 초안 작성 - 학교자율시간 활성화 지원 방안 등 정책 반영 제언 내용 작성	
	검증 및 수정·보완	- 전문가 컨설팅 및 현장성 검토 - 최종 보고서 수정·보완 작성	
	종결 보고	- 최종 연구 결과 보고 및 보고서 제출	경상북도교육청 연구원

2. 연구 대상

가. 설문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3~6학년 학생 및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주소 제공과 설문 참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1) 학생 설문조사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응답한 학생은 1,863명이었고 참여 학년으로는 6학년이 1,139명(61.1%), 5학년 625명(33.6%), 4학년 88명(4.7%), 3학년 11명(0.6%)이었다. 지역별로는 포항 419명(22.5%), 경주 343명(18.4%), 경산 253명(13.6%), 구미 221명(11.9%) 순으로 참여하였다. 또 학급 규모에 따른 학생 참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학급 학생수 10명 이하인 경우가 192명(10.3%), 11명 이상 20명 이하 156명(8.4%), 21명 이상 30명 이하 1,479명(79.4%), 31명 이상의 경우는 36명(1.9%)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지역 및 학급 규모별 학생 현황은 <표 III-2>와

같다.

<표 Ⅲ-2> 설문 대상자 지역 및 학급 규모별 분포(학생)

지역명	합계	학급 규모(학급 학생 수, 단위: 명(%))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1명 이상
전체	1,863(100)	192(10.3)	156(8.4)	1,479(79.4)	36(1.9)
포항	419(22.5)	8(0.4)	30(1.6)	349(18.7)	32(1.7)
경주	343(18.4)	10(0.5)	58(3.1)	275(14.8)	0(-)
김천	131(7)	0(-)	17(0.9)	113(6.1)	1(0.1)
안동	57(3.1)	20(1.1)	0(-)	37(2.0)	0(-)
구미	221(11.9)	17(0.9)	3(0.2)	201(10.8)	0(-)
영주	21(1.1)	0(-)	0(-)	21(1.1)	0(-)
영천	16(0.9)	10(0.5)	4(0.2)	2(0.1)	0(-)
상주	78(4.2)	24(1.3)	1(0.1)	53(2.8)	0(-)
문경	30(1.6)	9(0.5)	2(0.1)	18(1.0)	1(0.1)
경산	253(13.6)	3(0.2)	2(0.1)	247(13.3)	1(0.1)
의성	18(1.0)	18(1.0)	0(-)	0(-)	0(-)
청송	21(1.1)	7(0.4)	13(0.7)	1(0.1)	0(-)
영양	10(0.5)	10(0.5)	0(-)	0(-)	0(-)
영덕	39(2.1)	3(0.2)	0(-)	36(1.9)	0(-)
청도	13(0.7)	13(0.7)	0(-)	0(-)	0(-)
고령	15(0.8)	14(0.8)	0(-)	0(-)	1(0.1)
성주	46(2.5)	8(0.4)	11(0.6)	27(1.4)	0(-)
칠곡	86(4.6)	3(0.2)	14(0.8)	69(3.7)	0(-)
예천	0(-)	0(-)	0(-)	0(-)	0(-)
봉화	9(0.5)	5(0.3)	0(-)	4(0.2)	0(-)
울진	36(1.9)	9(0.5)	1(0.1)	26(1.4)	0(-)
울릉	1(0.1)	1(0.1)	0(-)	0(-)	0(-)

2) 교원 설문조사

교원은 총 77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직위별로는 교장 및 교감 105명(13.6%), 담임 교사 466명(60.5%), 전담교사 179명(23.2%), 기타 20명(2.6%) 이었다. 경력별로는 20년 이상 275명(35.7%), 10년 이상 15년 미만과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각 130명(16.9%),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23명(16.0%), 5년 미만 112명(14.5%) 순으로 응답하여 고른 응답 비율을 보였다. 또한, 학교 규모에 따라서는 6학급 미만 103명(13.4%),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290명(37.7%),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175명(22.7%), 24학급 이상 36학급 미만 121명(15.7%), 36학급 이상 81명(10.5%)으로 학교 규모별로도 적정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지역 및 학교

규모에 따른 응답 현황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설문 대상자 지역 및 학교 규모별 분포(교원)

지역명	합계	학교 규모(학급 수, 단위: 명(%))				
		6학급 미만	6~11학급	12~23학급	24~35학급	36학급 이상
전체	770(100)	103(13.4)	290(37.7)	175(22.7)	121(15.7)	81(10.5)
포항	141(18.3)	10(1.3)	38(4.9)	31(4)	38(4.9)	24(3.1)
경주	80(10.4)	5(0.6)	31(4)	27(3.5)	13(1.7)	4(0.5)
김천	38(4.9)	2(0.3)	10(1.3)	8(1)	16(2.1)	2(0.3)
안동	42(5.5)	9(1.2)	12(1.6)	8(1)	12(1.6)	1(0.1)
구미	76(9.9)	8(1)	12(1.6)	31(4)	10(1.3)	15(1.9)
영주	22(2.9)	1(0.1)	9(1.2)	11(1.4)	0(-)	1(0.1)
영천	26(3.4)	5(0.6)	15(1.9)	0(-)	0(-)	6(0.8)
상주	47(6.1)	10(1.3)	24(3.1)	8(1)	5(0.6)	0(-)
문경	29(3.8)	2(0.3)	19(2.5)	5(0.6)	3(0.4)	0(-)
경산	63(8.2)	0(-)	14(1.8)	11(1.4)	11(1.4)	27(3.5)
의성	22(2.9)	10(1.3)	10(1.3)	2(0.3)	0(-)	0(-)
청송	10(1.3)	3(0.4)	4(0.5)	3(0.4)	0(-)	0(-)
영양	6(0.8)	1(0.1)	5(0.6)	0(-)	0(-)	0(-)
영덕	30(3.9)	14(1.8)	10(1.3)	2(0.3)	4(0.5)	0(-)
청도	13(1.7)	5(0.6)	8(1)	0(-)	0(-)	0(-)
고령	13(1.7)	2(0.3)	7(0.9)	4(0.5)	0(-)	0(-)
성주	22(2.9)	2(0.3)	16(2.1)	4(0.5)	0(-)	0(-)
칠곡	39(5.1)	1(0.1)	21(2.7)	9(1.2)	7(0.9)	1(0.1)
예천	10(1.3)	3(0.4)	6(0.8)	1(0.1)	0(-)	0(-)
봉화	20(2.6)	6(0.8)	8(1)	6(0.8)	0(-)	0(-)
울진	12(1.6)	1(0.1)	5(0.6)	4(0.5)	2(0.3)	0(-)
울릉	9(1.2)	3(0.4)	6(0.8)	0(-)	0(-)	0(-)

나. 심층면담 대상

1) 심층면담 조사 대상

학교자율시간 운영과 관련한 선행 연구의 질적 분석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심층면담 조사는 도내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초등학교 소속 교원 8명과 해당 연구학교 컨설턴트 5명, 총 13명을 대상으로 방문, 온라인 화상 회의, 전화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교원 직위 구분으로는 교장·교감 6명, 수석교사 1명, 교사 6명이 참여하였다. 심층면담 조사 대상자 현황은 <표 Ⅲ-4>와 같다.

<표 Ⅲ-4> 심층면담 조사 대상자 현황

연번	학교 소재지	학급 규모	직위	성명(기호)	비고
1	포항	44	교장	A	교육과정 연구학교 소속교원
2	포항	44	교사(담당 부장)	B	
3	포항	44	교사	C	
4	청송	7	교사(담당 부장)	D	
5	청송	7	교사	E	
6	봉화	6	교감	F	
7	봉화	6	교사(담당 부장)	G	
8	봉화	6	교사	H	
9	포항	24	교장	I	교육과정 연구학교 컨설턴트
10	포항	52	수석교사	J	
11	안동	12	교감	K	
12	안동	7	교감	L	
13	구미	21	교감	M	

3. 조사 도구

가. 설문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년, 학급 학생 수, 지역 등 배경 변인과 함께 학교 자율시간의 주제와 주제 선택 방법, 수업 방법, 운영 시기, 기대 효과 등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을 실시하였다.

교원을 대상으로는 배경 변인 외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실태, 운영 방향과 개발 주제, 편성 및 운영 방식, 주제, 평가 방법,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17개 문항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의 설문지(김종훈 외, 2022)를 참고하여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 고시 내용 및 경상북도 실정을 반영하여 제작하였다. 학생 및 교원 대상

설문지의 문항 구성은 <표 Ⅲ-5>, <표 Ⅲ-6>과 같다.

<표 Ⅲ-5> 설문 조사지 문항 구성(학생용)

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배경 변인	학년	1	3
	학급 학생 수	2	
	지역	3	
편성·운영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	4	6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서술)	5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정 방법	6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	7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기	8	
	기대 효과	9	
종합	기타 의견(서술)	10	1

<표 Ⅲ-6> 설문 조사지 문항 구성(교원용)

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배경 변인	직위	1	5
	담당 학년	2	
	경력	3	
	학교 규모	4	
	지역	5	
인식 및 실태	학교자율시간 신설 및 필요성 인식, 효과성에 대한 기대, 단위학교 실태 등	6	1(하위 문항 12)
편성·운영	과목, 활동, 혼합형 선택	7	7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체	8	
	학교자율시간 시간 편성	9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택	10	
	평가 방식	11	
	기대효과(핵심역량)	12	
	성취 기준	13	
지원	예상되는 어려운 점	14	2
	필요한 지원	15	
지역화	우리 지역 실태와 여건 고려 방안	16	1

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종합	기타 의견(서술)	17	1

나. 심층면담 조사 도구

심층면담 조사를 위한 문항은 학생 및 교원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내용에 구체성과 현실성을 더할 서술식 내용으로 구성하여 제작하였다. 심층면담 조사 문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인식, 운영 방향, 편성·운영, 지원, 성과 및 종합의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심층면담 조사 내용은 <표 Ⅲ-7>과 같다.

<표 Ⅲ-7> 심층면담 조사 문항 구성

영역	문항 내용	문항 번호	문항 수
인식	학교자율시간 인식 실태 및 개선 방법	1	1
편성·운영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	2	11
	학교자율시간 시간 편성	3	
	시수 확보 방안 및 적정 시수 의견	4	
	학교자율시간 주제	5	
	단위학교의 과목(활동) 개발 방안	6	
	과목(활동) 개발 과정	7	
	과목(활동)의 질적 제고	8	
	과목(활동) 학년별 편성 방식	9	
	학교 규모·특성 고려	10	
	학교자율시간 운영 모형	11	
	평가 및 기록	12	
지원	공통으로 예상되는 어려운 점	13	4
	지원 방안(기반 마련)	14	
	구성원 참여 방안	15	
	매뉴얼, 지침의 범위 설정	16	
성과	학교자율시간으로 인한 변화	17	1
종합	기타 의견	18	1

4.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과 편성·운영 방법, 지원 내용 등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선택형 문항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택형 설문 각 항목은 설문을 실시한 유레카 사이트(<https://www.statschool.net/>)을 활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 문항 성격에 따라 응답자의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응답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 설문은 학년 및 학급 규모(학급 학생수)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원의 경우는 교육경력 또는 학교 규모에 따른 비교를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특히, 교원의 경우 교육경력 간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및 실태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은 Scheffé 방법으로 분석하여 차이를 비교하였다. 그리고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적합한 주제를 선택하는 문항,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묻는 문항과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대해 조사한 문항 등은 복수 선택이 가능한 항목으로 제시하여 이를 고려한 결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술형 문항은 설문조사의 선택형 문항에서 기타 항목을 선택한 경우 구체적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또 설문 마지막에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종합 의견을 받기 위한 질문으로 사용하였다. 서술형 응답 결과는 무의미한 응답을 제거하고 키워드 분석을 위한 텍스트 마이닝 작업을 거쳐 범주화하여 각 범주 관련 키워드의 빈도분석을 하였고, 동시에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제시하였다. 워드 클라우드 제작은 무료 워드 클라우드 생성 사이트인 아트워드 사이트(<http://art.wordrow.kr>)와 워드클라우드(<https://wordcloud.kr>)를 활용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설문조사 결과

가. 학생 설문조사 결과

1) 학교자율시간 운영 주제

학생들에게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로 희망하는 것 3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21.4%)', '생태환경 관련 활동 및 체험(18.1%)',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사회 대비하기(16.4%)'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으며, '교과학습 진단 및 보충 활동하기'가 가장 낮은 응답 빈도(5.2%)를 보였다. 전반적으로는 예시로 제시한 주제들이 모두 일정 비율 이상 선택되는 것으로 볼 때 학생들의 흥미와 요구가 다양한 것으로 해석된다.

학년에 따른 응답 빈도는 3~4학년의 경우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사회 대비하기'를, 5~6학년의 경우에는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를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3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언어, 수리, 디지털 관련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익히기'의 선택 비율이 높았다. 다만, 3학년의 경우 전체 응답 참여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설문 결과의 확대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1>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학생 학년별)

구분	학년별 응답 빈도(3가지 선택, 단위: 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우리 고장의 역사 또는 문화 알아보기	4(12.1)	25(9.5)	205(10.9)	358(10.5)	592(10.6)
언어, 수리, 디지털 관련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익히기	7(21.2)	33(12.5)	271(14.5)	481(14.1)	792(14.2)
교과학습 진단 및 보충 활동하기	2(6.1)	10(3.8)	99(5.3)	177(5.2)	288(5.2)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사회 대비하기	7(21.2)	61(23.1)	302(16.1)	545(15.9)	915(16.4)
생태환경 관련 활동 및 체험하기	2(6.1)	58(22.0)	371(19.8)	583(17.1)	1,014(18.1)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알아보고 실천하기	3(9.1)	12(4.5)	95(5.1)	199(5.8)	309(5.5)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	7(21.2)	39(14.8)	386(20.6)	765(22.4)	1,197(21.4)
내가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1(3.0)	26(9.8)	146(7.8)	309(9.0)	482(8.6)
계	33(100)	264(100)	1,875(100)	3,417(100)	5,589(100)

<표 IV-2>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학생 학급 규모별)

구분	학급 규모(학급 학생 수)별 응답 빈도(3가지 선택, 단위: 명(%))				
	10명 이하	11~20명	21~30명	30명 이상	전체
우리 고장의 역사 또는 문화 알아보기	78(13.5)	48(10.3)	459(10.3)	7(6.5)	592(10.6)
언어, 수리, 디지털 관련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익히기	84(14.6)	67(14.3)	626(14.1)	15(13.9)	792(14.2)
교과학습 진단 및 보충 활동하기	34(5.9)	23(4.9)	223(5.0)	8(7.4)	288(5.2)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사회 대비하기	87(15.1)	77(16.5)	733(16.5)	18(16.7)	915(16.4)
생태환경 관련 활동 및 체험하기	103(17.9)	82(17.5)	805(18.1)	24(22.2)	1,014(18.1)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알아보고 실천하기	31(5.4)	25(5.3)	246(5.5)	7(6.5)	309(5.5)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	111(19.3)	96(20.5)	967(21.8)	23(21.3)	1,197(21.4)
내가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48(8.3)	50(10.7)	378(8.5)	6(5.6)	482(8.6)
계	576(100)	468(100)	4437(100)	108(100)	5,589(100)

학급 학생수에 따른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모든 규모의 학급에서 응답 빈도 순위가 거의 동일하여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10명 이하 소규모 학급의 경우 '우리 고장의 역사 또는 문화 알아보기'를, 31명 이상 대규모 학급의 경우에는 '생태환경 관련 활동 및 체험하기'를 다른 학급 규모 집단보다 비교적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로 '내가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를 선택한 학생들이 기재한 자유 응답으로는 신체 활동과 스포츠 관련 주제가 많았고, 그 외 선택 주제 항목으로도 제시하였던 환경, 진로, 기초소양 등의 내용이 반복해서 언급되었다. 자유 응답 내용을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하여 워드클라우드로 제작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학교자율시간 희망 주제(학생 기타 의견)

2)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택 방법

학교자율시간에 공부할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알아보기(32.5%)’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학년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29.0%)’, ‘학급에서 원하는 주제 정하기(27.4%)’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우리 교장 및 지역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는 가장 낮은 응답 빈도(3.0%)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를 볼 때 내가 스스로 주제를 정하거나 학급 또는 학년에서 의견을 모아서 정하는 방법과, 학교 선생님들이 정하거나 지역에서 정한 주제를 학습하는 것의 응답 빈도차가 매우 커 학생들은 주제 선정에 본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앞서 질문한 학교자율시간의 희망 주제에 대해서는 ‘내가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가 8.6%인 것에 비해, 주제를 선택할 때는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기를 다수가 원하는 것을 볼 때 주제는 진로 탐색, 생태환경, 인공지능과 로봇 등 다양하고 적절한 영역을 제시해 주되 선택과 학습 계획 수립은 본인들이 스스로 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3>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택 방법(학생)

구분	응답 빈도(단위: 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알아본다	3(27.3)	37(42.0)	188(30.1)	377(33.1)	605(32.5)
학급에서 원하는 주제를 1가지 정하여 계획을 세워 알아본다	3(27.3)	18(20.5)	184(29.4)	305(26.8)	510(27.4)
같은 학년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학년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본다	2(18.2)	20(22.7)	185(29.6)	334(29.3)	541(29.0)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본다	2(18.2)	8(9.1)	51(8.2)	91(8.0)	152(8.2)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우리 교장 및 지역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본다	1(9.1)	5(5.7)	17(2.7)	32(2.8)	55(3.0)
계	11(100)	88(100)	625(100)	1,139(100)	1,863(100)

3)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

학생들은 학교자율시간의 수업 방법에 대해 의견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친구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31.8%)’, ‘방문 체험 또는 실습(22.5%)’, ‘조사활동 및 교내 체험 또는 실습을 통한 방법(21.2%)’, ‘디지털 기기나 기술 활용(19%)’순으로 응답하였다. 학년별로는 큰 특징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4학년의 경우 다른 학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문형 체험 또는

실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5.5% 학생들이 선택한 기타 방법의 내용으로는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자유활동', '재미있게' 등의 응답이 확인되었다.

〈표 IV-4〉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학생)

구분	응답 빈도(단위: 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조사활동 및 교내 체험 또는 실습	3(27.3)	16(18.2)	139(22.2)	237(20.8)	395(21.2)
친구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	3(27.3)	28(31.8)	185(29.6)	376(33.0)	592(31.8)
우리 지역의 관련 장소나 공간을 방문해서 체험 또는 실습	2(18.2)	27(30.7)	142(22.7)	248(21.8)	419(22.5)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	2(18.2)	15(17.0)	127(20.3)	210(18.4)	354(19.0)
기타(자유 응답)	1(9.1)	2(2.3)	32(5.1)	68(6.0)	103(5.5)
계	11(100)	88(100)	625(100)	1,139(100)	1,863(100)

4)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기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시기를 정하는 방법으로는 <표 IV-5>와 같이 '일주일에 1~2시간씩 학교자율시간을 갖는 방법'을 60%의 학생들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한달에 1~2일 학교자율시간의 날을 운영하는 방법(25.1%)', '학기 말 등 특정 기간에 집중하여 운영하는 방법(8.5%)'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본 설문 마지막의 기타 의견과 연구팀 소속교 학생 면담을 토대로 분석해 볼 때 학생들은 학교자율시간을 자유시간의 성격으로 이해하거나 기타 재미있는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시간으로 기대하고 있어 학교자율시간을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나누어 운영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5〉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기를 정하는 방법(학생)

구분	응답 빈도(단위: 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일주일에 1~2시간씩 요일을 정해 학교자율시간을 갖는다	2(18.2)	45(51.1)	376(60.2)	695(61.0)	1,118(60.0)
한 달에 1~2일 학교자율시간의 날을 정하여 하루동안 학교자율시간을 갖는다	1(9.1)	28(31.8)	172(27.5)	267(23.4)	468(25.1)
학기 말 등 특정 기간에 일주일 동안 학교자율시간 주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7(63.6)	7(8.0)	41(6.6)	104(9.1)	159(8.5)
위의 방법들을 학습 내용이나 학년에 따라 혼합하여 운영한다	1(9.1)	8(9.1)	36(5.8)	73(6.4)	118(6.3)
계	11(100)	88(100)	625(100)	1,139(100)	1,863(100)

5)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 싶은 것

학생들에게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어떤 능력을 기르고 싶은지 조사한 문항에는 60% 이상의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64.5%)'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여러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13.4%)', '정보를 찾고 정리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7.0%)'의 순으로 선택되었다.

<표 IV-6>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 싶은 역량(학생)

구분	응답 빈도(단위: 명(%))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전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9(81.8)	42(47.7)	369(59.0)	782(68.7)	1,202(64.5)
정보를 찾고 정리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0(-)	13(14.8)	54(8.6)	64(5.6)	131(7.0)
여러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0(-)	18(20.5)	89(14.2)	143(12.6)	250(13.4)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글이나 말로 친구들에게 잘 표현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1(9.1)	7(8.0)	40(6.4)	46(4.0)	94(5.0)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	0(-)	2(2.3)	22(3.5)	45(4.0)	69(3.7)
책임감 있게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친구를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고 싶다	1(9.1)	6(6.8)	51(8.2)	59(5.2)	117(6.3)
계	11(100)	88(100)	625(100)	1,139(100)	1,863(100)

6) 종합 의견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하여 자유 의견을 기술하는 서술형 문항은 학생들의 응답을 주요 키워드로 추출하여 1차로 3가지 범주 '학교자율시간 운영 인식',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주제',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으로 분류한 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차 범주는 응답자가 여러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각각의 범주에 따로 중복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IV-7> 학생 대상 학교자율시간 자유 의견 서술 응답

범주	빈도(건)	비율(%)
학교자율시간 운영 인식	73	20.6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주제	139	39.3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	142	40.1
계	354	100

<표 IV-7>과 같이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에 대한 응답이 40.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주제(39.3%)', '학교자율시간 운영 인식(20.6%)'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V-8>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인식」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기대된다	60	82.2
잘 모르겠다	12	16.4
별로라고 생각된다	1	1.4
계	73	100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생 자유 응답에 포함된 학교자율시간 운영 인식 관련 의견으로는 '기대된다'가 82.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잘 모르겠다' 16.46%, '별로라고 생각된다' 1.4%로 나타났다.

<표 IV-9>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주제」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신체 활동	37	26.6
예술 활동(미술, 음악)	14	10.1
진로 및 자아 탐색	46	33.1
학습역량 및 교과 보충	42	30.2
계	139	100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에 관한 의견은 139건 중 '진로 및 자아 탐색'이 33.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습역량 및 교과보충(30.2%)', '신체 활동(26.6%)', '예술 활동(10.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0>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다양한 체험 활동	34	23.9
학생 희망 주제 활용	57	40.2
친구들과의 협력 학습	51	35.9
계	142	100

학생 설문 종합 의견의 40.1%는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수업 방법에 관한 자유 응답으로 그 중 '학생 희망 주제 활용'이 40.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 '친구들과의 협력 학습(35.9%)', '다양한 체험활동(23.9%)'이 있었다.

이와 같은 키워드들을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나타낸 결과는 [그림 IV-2]와 같다.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두드러진 키워드는 '기대', '성장', '협력', '친구들', '스스로', '배움'등이며, 학생들의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다양한 기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IV-2]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생 종합 의견

나. 교원 설문조사 결과

1)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및 실태

본 연구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먼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12가지 문항을 5단 척도 형태로 제시하였다. 12가지 문항은 학교자율시간의 신설과 편성 방법에 대한 인식, 학교자율시간 도입 효과에 대한 기대 정도, 단위학교의 관련 실태에 대한 인식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 학교자율시간 도입에 따른 기대 정도는 학교교육과정 자율화, 학생 성장, 교사 역량 신장, 학생·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 반영에 대한 내용으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인식 및 실태

영역	구분 문항	응답 빈도(단위: 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교 자율 시간 관련 인식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자율 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75(9.7)	122(15.8)	99(12.9)	208(27.0)	266(34.6)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교과(군)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20% 범위 내 시수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44(5.7)	91(11.8)	92(12.0)	251(32.6)	292(37.9)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신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53(6.9)	56(7.3)	169(22.0)	296(38.4)	196(25.5)
	학교자율시간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정 재구성, 범교과 학습,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115(14.9)	178(23.1)	207(26.9)	168(21.8)	102(13.3)
	소계(행백분율)	287(9.3)	447(14.5)	567(18.4)	923(30.0)	856(27.8)
학교 자율 시간 운영 효과	학교자율시간이 지역 또는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62(8.1)	64(8.3)	190(24.7)	313(40.7)	141(18.3)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63(8.2)	57(7.4)	188(24.4)	296(38.4)	166(21.6)
	학교자율시간 도입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67(8.7)	61(7.9)	219(28.4)	272(35.3)	151(19.6)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68(8.8)	78(10.1)	235(30.5)	249(32.3)	140(18.2)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가 더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60(7.8)	88(11.4)	183(23.8)	292(37.9)	147(19.1)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가 더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63(8.2)	114(14.8)	216(28.1)	257(33.4)	120(15.6)
	소계(행백분율)	383(8.3)	462(10.0)	1,231(26.6)	1,679(36.3)	865(18.7)
학교 자율 시간 관련 실태	우리 학교에서는 자체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41(5.3)	87(11.3)	222(28.8)	283(36.8)	137(17.8)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력 확보, 환경 조성 등 단위학교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124(16.1)	168(21.8)	186(24.2)	174(22.6)	118(15.3)
	소계(행백분율)	165(10.7)	255(16.6)	408(26.5)	457(29.7)	255(16.6)
계(행백분율)		835(9.0)	1,164(12.6)	2,206(23.9)	3,059(33.1)	1,976(21.4)

조사 결과 학교자율시간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에 ‘매우그렇다’와 ‘그렇다’로 긍정 응답을 한 비율이 61.6%, ‘학교자율시간 신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에 긍정 응답 비율은 63.9%로 다수의 교원이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여부와 필요성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정 재구성, 범교과 학습,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은 35.1%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아 학교자율시간이 형식 및 내용 면에서 현행 교육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자율시간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그렇다’이상의 응답 비율이 평균 55.0%, ‘보통이다’이상은 81.7%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에는 ‘매우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비율이 60%, ‘보통이다’이상은 84.4%로 학교자율시간으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 중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학교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우리 학교에서는 자체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에 ‘그렇다’ 이상 긍정 응답이 54.5%, ‘보통이다’ 이상은 83.4%로 다수의 학교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지역 특색 또는 학교 자율성을 살린 교육활동을 실천하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력 확보, 환경 조성 등 단위학교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에는 ‘그렇다’이상이 37.9%, ‘보통이다’이상의 응답이 62.1%로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2> 교육경력별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인식 및 실태 비교

구분(요인)	교육경력(집단)	N	평균	F값	사후검증 (Scheffe)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10년 미만(A)	242	13.24	13.934***	C > B > A
	10년 이상~20년 미만(B)	253	14.03		
	20년 이상(C)	275	14.91		
학교자율시간 효과에 대한 기대	10년 미만(A)	242	20.44	2.602	.
	10년 이상~20년 미만(B)	253	20.45		
	20년 이상(C)	275	21.53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교 실태	10년 미만(A)	242	6.46	.067	.
	10년 이상~20년 미만(B)	253	6.51		
	20년 이상(C)	275	6.52		

***p < .001

다음으로 이와 같은 교원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및 실태가 경력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실시하였다.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및 실태를 묻는 각 문항별 답변을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 ~ '매우 그렇다'(5점)로 환산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과 현재 실태를 긍정적으로 보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경력은 집단 간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력별 총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계수로 추정된 신뢰도는 .928이다.

<표 IV-12>와 같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교육경력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며, 교육경력이 높아질수록 학교자율시간의 도입과 필요성 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 정도,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교 현장의 관련 활동 및 여건 마련 실태는 교육경력별로 인식하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2)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

교원 대상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과 관련하여 과목과 활동 중 어떤 성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교원의 51%가 학교 또는 학년에서 지정하는 '활동'으로, 약 43%의 교원은 '과목'과 '활동'의 병행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은 5.6%의 교원만이 선택하여 학교 단위에서 '과목'의 개발과 운영하는 것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과목' 또는 '활동'의 선택과 관련하여 교육경력이나 학교 규모별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표 IV-13>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운영 방향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학교 또는 학년 지정 '활동' 개발·운영	60(53.6)	76(58.5)	63(48.5)	66(53.7)	128(46.6)	393(51.0)
학교 또는 학년 지정 '과목' 개발·운영	4(3.6)	5(3.9)	12(9.2)	7(5.7)	15(5.5)	43(5.6)
혼합형으로 운영(과목과 활동 병행)	48(42.9)	49(37.7)	55(42.3)	50(40.7)	132(48.0)	334(43.4)
계	112(100)	130(100)	130(100)	123(100)	275(100)	770(100)

3)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체

학교자율시간에 적용할 과목이나 활동의 개발 주체와 관련한 의견을 묻는 항목에는 ‘동학년 또는 동교과 단위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이 32.6%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 단위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25.6%)’, ‘교사(학급) 수준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21.3%)’순으로 조사되었고, ‘학생 스스로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은 8.2%로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기타 의견으로는 ‘학교나 학년 학급 상황에 따라, 여건에 맞게’, ‘교사와 학생이 함께 만들어가기’, ‘학생 스스로 과목과 지역단위 과목 병행’등의 의견이 있었다.

이 결과를 학교 규모별로 비교해보면 <표 IV-14>와 같이 12학급 미만의 경우 전체 결과와 달리 ‘학교 단위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이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였고, 12학급 이상의 경우는 ‘동학년 또는 동교과 단위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이 가장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미만의 교원의 경우 ‘교사(학급) 수준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의 응답률이 약 30%인 것에 비해, 경력 20년 이상의 경우 12.7%의 교원만 해당 항목을 선택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저경력 교원의 경우 교사 수준에서 많은 자율성이 부여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경력이 올라갈수록 학년 또는 학교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4>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체로 적절한 단위(학교 규모별)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단위: 명(%))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36학급 이상	전체
지역 단위 과목/활동 개발	9(8.7)	36(12.4)	20(11.4)	16(13.2)	7(8.6)	88(11.4)
학교 단위 과목/활동 개발	35(34.0)	83(28.6)	42(24.0)	27(22.3)	10(12.4)	197(25.6)
동학년(동교과) 단위 과목/활동 개발	33(32.0)	70(24.1)	63(36.0)	47(38.8)	38(46.9)	251(32.6)
교사(학급) 수준 과목/활동 개발	15(14.6)	75(25.9)	33(18.9)	24(19.8)	17(21.0)	164(21.3)
학생 스스로 과목/활동 개발 (‘학생 생성 교육과정’)	11(10.7)	22(7.6)	16(9.1)	7(5.8)	7(8.6)	63(8.2)
기타	0(-)	4(1.4)	1(0.6)	0(-)	2(2.5)	7(0.9)
계	103(100)	290(100)	175(100)	121(100)	81(100)	770(100)

〈표 IV-15〉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제로 적절한 단위(교육경력별)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단위: 명(%))					전체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지역 단위 과목/활동 개발	11(9.8)	11(8.5)	18(13.9)	18(14.6)	30(10.9)	88(11.4)
학교 단위 과목/활동 개발	27(24.1)	31(23.9)	27(20.8)	21(17.1)	91(33.1)	197(25.6)
동학년(동교과) 단위 과목/활동 개발	36(32.1)	36(27.7)	42(32.3)	46(37.4)	91(33.1)	251(32.6)
교사(학급) 수준 과목/활동 개발	31(27.7)	42(32.3)	30(23.1)	26(21.1)	35(12.7)	164(21.3)
학생 스스로 과목/활동 개발 (‘학생 생성 교육과정’)	7(6.3)	8(6.2)	12(9.2)	10(8.1)	26(9.5)	63(8.2)
기타	0(-)	2(1.5)	1(0.8)	2(1.6)	2(0.7)	7(0.9)
계	112(100)	130(100)	130(100)	123(100)	275(100)	770(100)

4)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방식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시기를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물어보았다.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설문 참여 교원의 36.4%가 응답한 ‘집중형’이었다. 즉, 학기 중 또는 학기말 한 주에 집중 편성하여 운영하는 방식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학생 대상 조사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다음으로는 ‘혼합형(과목과 활동에 따라 집중형과 분산형을 병행)’29.6%, ‘분산형(전일제: 매일 1~2일 학교자율시간의 날 운영)’17.7%, ‘분산형(정일제: 매주 1~2시간 학교자율시간을 특정 요일에 고정하여 운영)’14.7%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운영 주제, 학교 여건, 교사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제안되었다.

본 항목과 관련하여 학교 규모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24학급 이상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집중형 방식보다 혼합형 방식의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6〉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편성·운영 방식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단위: 명(%))					전체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36학급 이상	
집중형: 학기 중 또는 학기말에 집중 편성 (학교자율시간의 주간 등) 하여 운영	39(37.9)	109(37.6)	68(38.9)	40(33.1)	24(29.6)	280(36.4)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단위: 명(%))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36학급 이상	전체
분산형(전일제): 매월 1~2일 학교자율시간의 날 운영	19(18.5)	49(16.9)	33(18.9)	20(16.5)	15(18.5)	136(17.7)
분산형(정일제): 매주 1~2시간 학교자율시간을 특정 요일에 고정 운영	15(14.6)	49(16.9)	22(12.6)	15(12.4)	12(14.8)	113(14.7)
혼합형: 집중형과 분산형을 병행 (과목/활동 하나는 집중형, 나머지 과목/활동은 분산형 등)	28(27.2)	78(26.9)	49(28.0)	44(36.4)	29(35.8)	228(29.6)
기타	2(1.9)	5(1.7)	3(1.7)	2(1.7)	1(1.2)	13(1.7)
계	103(100)	290(100)	175(100)	121(100)	81(100)	770(100)

5)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주제(영역)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에 가장 적합한 주제(영역)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3가지를 복수 선택하도록 한 문항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은 '진로 탐색 및 계발(20.1%)'로 학생 설문 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다음으로는 '지역 연계 특색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이 15.0%, 학생 자유 주제 13.5%, 기초 소양 교육 11.6% 등의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학교 규모에 따른 특징으로는 2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서는 그 이하 규모의 학교에 비해 '진로 탐색 및 계발'의 비율이 높았고,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역 연계 특색 교육'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다.

<표 IV-17>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로 적합한 주제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3가지 선택, 단위: 명(%))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36학급 미만	36학급 이상	전체
지역 연계 특색 교육 (지역사회 이해)	59(19.1)	137(15.7)	68(13.0)	53(14.6)	30(12.3)	347(15.0)
기초 소양 교육 (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29(9.4)	97(11.1)	64(12.2)	43(11.8)	34(14.0)	267(11.6)
학습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17(5.5)	51(5.9)	34(6.5)	20(5.5)	13(5.3)	135(5.8)
디지털전환 관련 교육	29(9.4)	85(9.8)	50(9.5)	37(10.2)	19(7.8)	220(9.5)
생태전환교육	53(17.2)	139(16.0)	78(14.9)	47(12.9)	29(11.9)	346(15.0)
민주시민교육	26(8.4)	65(7.5)	47(9.0)	36(9.9)	18(7.4)	192(8.3)
진로 탐색 및 계발	53(17.2)	173(19.9)	103(19.6)	78(21.5)	58(23.9)	465(20.1)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3가지 선택, 단위: 명(%))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36학급 미만	36학급 이상	전체
학생 자유 주제	41(13.3)	116(13.3)	73(13.9)	46(12.7)	36(14.8)	312(13.5)
기타	2(0.6)	7(0.8)	8(1.5)	3(0.8)	6(2.5)	26(1.1)
계	309(100)	870(100)	525(100)	363(100)	243(100)	2,310(100)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으로 적합한 주제에 관한 기타 의견으로는 ‘환경교육’, ‘경제교육’, ‘학교 특성에 맞게’, ‘놀이활동’ 등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의 주요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면 다음 [그림 N-3]과 같다.



[그림 N-3]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적합한 주제(교원 기타 의견)

6)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 마련 방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은 <표 N-18>과 같이 ‘별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38.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활용’이 27.1%, ‘개설 과목에 적합하도록 성취기준을 함께 개발’이 19.2%, ‘관련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은 14.8%로 가장 낮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기타로는 ‘교사 개개인이 성취기준을 개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문항의 선택 항목에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인 항목이 ‘별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하지 않음’이기는 하나 그 외 약 62%의 다수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성취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성취기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교원의 다수가 기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성취기준 마련에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V-18>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 구성 방향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개설 과목에 적합하도록 성취기준을 함께 개발	22(19.6)	18(13.9)	21(16.2)	21(17.1)	66(24.0)	148(19.2)
관련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활용	14(12.5)	22(16.9)	25(19.2)	17(13.8)	36(13.1)	114(14.8)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활용	37(33.0)	25(19.2)	35(26.9)	30(24.4)	82(29.8)	209(27.1)
별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하지 않음	38(33.9)	65(50.0)	49(37.7)	55(44.7)	89(32.4)	296(38.4)
기타	1(0.9)	0(-)	0(-)	0(-)	2(0.7)	3(0.4)
계	112(100)	130(100)	130(100)	123(100)	275(100)	770(100)

7)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평가 방식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평가 방식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에 대한 응답이 48.2%로 가장 높았고, '특기사항 중심 누가 기록(22.0%)', '관찰 등에 의한 서술 평가(18.4%)'가 뒤를 이었다.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루브릭 형태로 평가하는 방식'은 11.0%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를 살펴보면 20년 이상 교원들은 여러 가지 평가 방식에 대해 비교적 고른 선택 양상을 보였으나, 그 이하 경력을 가진 교원 특히, 15년 미만 교원은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앞서 언급한 성취기준과 함께 학교자율시간의 평가에 대해서도 부담과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9>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평가 방식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루브릭 평가(잘함, 보통, 노력요함 3단계 평가 등)	17(15.2)	10(7.7)	13(10.0)	14(11.4)	31(11.3)	85(11.0)
특기사항 중심 누가 기록(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방식)	17(15.2)	24(18.5)	28(21.5)	33(26.8)	67(24.4)	169(22.0)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관찰 등에 의한 서술평가 (관련 교과 또는 종합 의견에 기록하는 방식)	20(17.9)	19(14.6)	17(13.1)	16(13.0)	70(25.5)	142(18.4)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	58(51.8)	77(59.2)	72(55.4)	60(48.8)	104(37.8)	371(48.2)
기타	0(-)	0(-)	0(-)	0(-)	3(1.1)	3(0.4)
계	112(100)	130(100)	130(100)	123(100)	275(100)	770(100)

8)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관련하여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대체로 고른 응답 결과를 나타내었다. 개수에 제한 없이 복수 선택이 가능하게 한 본 문항에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항목은 '협력적 소통 역량'으로 26.4%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공동체 역량(22.4%)', '자기관리 역량(18.1%)', '창의적 사고 역량(17.1%)'순이었고, '지식정보처리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은 각 9.2%, 6.8%로 10% 미만이 응답하여 현장 교원들은 학생들이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협력과 소통 관련 역량을 기르기를 우선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학교 규모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6학년 미만 소규모 학교에서 그 이상 규모급의 교원들보다 협력적 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을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게 확인되었다.

〈표 IV-20〉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역량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복수 선택, 단위: 명(%))					
	6학년 미만	6학년 이상 12학년 미만	12학년 이상 24학년 미만	24학년 이상 36학년 미만	36학년 이상	전체
자기관리 역량	40(19.6)	110(17.2)	72(18.1)	50(19.2)	30(18.0)	302(18.1)
지식정보처리 역량	12(5.9)	61(9.5)	36(9.1)	27(10.3)	18(10.8)	154(9.2)
창의적 사고 역량	33(16.2)	120(18.8)	65(16.4)	38(14.6)	30(18.0)	286(17.1)
심미적 감성 역량	13(6.4)	46(7.2)	26(6.5)	18(6.9)	11(6.6)	114(6.8)
협력적 소통 역량	57(27.9)	166(25.9)	106(26.7)	69(26.4)	42(25.1)	440(26.4)
공동체 역량	49(24.0)	137(21.4)	92(23.2)	59(22.6)	36(21.6)	373(22.3)
계	204(100)	640(100)	397(100)	261(100)	167(100)	1,669(100)

9)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을 3가지 복수 선택하도록 한 결과, 여러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고른 선택을 받는 결과를 보였다. 그 중 가장 다수가 선택한 항목은 18.5%의 교원들이 택한 ‘학교자율시간 편성 및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이었다. 다음으로는 ‘과목 또는 활동 개발’, ‘운영 사례 등 관련 자료 부족’,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시수 확보’, ‘평가, 기록, 통지 등 결과 처리’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항목들은 각 10% 미만의 응답 빈도를 보였으며, 응답률이 가장 낮은 항목은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승인 절차의 어려움’으로 확인되었다.

교육경력별로는 10년 미만 교원 그룹에서는 주로 시수 확보, 시스템 미비를 15년 이상 이상의 경우에는 과목/활동 개발, 결과 처리, 학생의 필요와 학부모 및 사회적 요구 파악에 대한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1>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3가지 선택, 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협력	25(7.4)	38(9.7)	35(9.0)	29(7.9)	80(9.7)	207(9.0)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시수 확보	52(15.5)	57(14.6)	47(12.1)	46(12.5)	88(10.7)	290(12.6)
과목/활동 개발(주제 선정, 내용 구성, 자료 제작 등)	49(14.6)	58(14.9)	76(19.5)	79(21.4)	148(17.9)	410(17.7)
과목/활동 승인 절차의 어려움	11(3.3)	18(4.6)	13(3.3)	16(4.3)	23(2.8)	81(3.5)
운영 사례 등 관련 자료 부족	51(15.2)	62(15.9)	55(14.1)	52(14.1)	126(15.3)	346(15.0)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	37(11.0)	33(8.5)	29(7.4)	27(7.3)	49(5.9)	175(7.6)
평가, 기록, 통지 등 결과 처리	33(9.8)	43(11.0)	49(12.6)	45(12.2)	99(12.0)	269(11.6)
학생의 필요, 학부모 및 사회적 요구 파악	19(5.7)	13(3.3)	12(3.1)	10(2.7)	37(4.5)	91(3.9)
편성 및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시간, 노력, 질 등)	58(17.3)	66(16.9)	71(18.2)	61(16.5)	171(20.7)	427(18.5)
기타	1(0.3)	2(0.5)	3(0.8)	4(1.1)	4(0.5)	14(0.6)
계	336(100)	390(100)	390(100)	369(100)	825(100)	2,310(100)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어려움과 관련한 기타 의견으로는 ‘불필요한 문서 작성에 따른 행정 업무 부담’, ‘예산 부족으로 인한 운영 제한’, ‘학습 내용 과다로 인한 부담’, ‘과밀 학급으로 실질적 운영이 어려움’ 등이 있었으며, 기타 의견의 주요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정리한 결과는 다음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교원 기타 의견)

10)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도입될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선택하도록 한 물음에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인 항목은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 최소화’로 전체 응답의 20%를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공’이 18.5%의 응답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외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승인 절차 간소화(13.5%)’, ‘학교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10.0)’, ‘지역단위 개설 과목 또는 활동 개발과 보급(9.6%)’순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지원 요구 사항을 교원의 교육경력별 비교해 보면 ‘학교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교원 교육과정 관련 역량 제고’, ‘학교자율시간 지원과 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은 경력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고,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 최소화’,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승인 절차 간소화’는 저경력 교원에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학교 규모별 응답 분포는 크게 차이는 없었으나 6학급 미만 소규모학교 소속 교원의 경우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승인 절차 간소화’와 ‘지역 내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프라 조성’을 선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2> 학교자율시간 취지를 살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3가지 선택, 단위: 명(%))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전체
학교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24(7.1)	35(9.0)	37(9.5)	38(10.3)	98(11.9)	232(10.0)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 최소화	75(22.3)	84(21.5)	85(21.8)	69(18.7)	149(18.1)	462(20.0)

11)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선택형 설문 문항의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묻는 질문에 교원의 22.3%는 ‘학교급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을 선택하였다. 이는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실태와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추진해 온 ‘경북형 교육과정’의 영향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이 20.8%, ‘경상북도교육청 체험 기관 활용’ 17.0%, ‘진로 교육 연계 운영’ 14.3%로 조사되었다. 그 외 기타 항목의 자유 의견으로는 ‘학교 자율로 선택’, ‘주제별 전문 강사 초빙’, ‘관련 자료 및 교내외 인프라 구축’, ‘이미 구성된 공간과 자료의 활용’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설문 결과를 학교 규모별로 비교해 보면 12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서 공동 교육 과정 등 농산어촌 여건을 고려한 운영 방안의 선택 비율이 높았고, 대규모학교에서는 AI·디지털 기술 접목 방안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교육경력별 비교를 통해서 <표 IV-24>에서 볼 수 있듯이 15년 미만 교원들은 상대적으로 AI·디지털 기술 접목 방안을 선호하였고, 15년 이상 교원의 경우에는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 방안에 대한 응답 빈도가 저경력 교원에 비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IV-23>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학교 규모별)

구분	학교 규모별 응답 빈도(단위: 명(%))					
	6학급 미만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24학급 이상 36학급 미만	36학급 이상	전체
학교급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20(19.4)	67(23.1)	45(25.7)	24(19.8)	16(19.8)	172(22.3)
소규모 농산어촌 여건을 고려한 운영(공동교육과정 등)	20(19.4)	49(16.9)	10(5.7)	7(5.8)	2(2.5)	88(11.4)
AI·디지털 기술 접목	10(9.7)	27(9.3)	19(10.9)	17(14.1)	14(17.3)	87(11.3)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	23(22.3)	60(20.7)	35(20.0)	27(22.3)	15(18.5)	160(20.8)
교육청 체험 기관(시설) 활용	14(13.6)	44(15.2)	31(17.7)	29(24.0)	13(16.1)	131(17.0)
진로교육 연계(초-중 전환기 등)	14(13.6)	39(13.5)	27(15.4)	14(11.6)	16(19.8)	110(14.3)
기타	2(1.9)	4(1.4)	8(4.6)	3(2.5)	5(6.2)	22(2.9)
계	103(100)	290(100)	175(100)	121(100)	81(100)	770(100)

<표 IV-24>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교육경력별)

구분	교육경력별 응답 빈도(단위: 명(%))					전체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학교급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28(25.0)	34(26.2)	31(23.9)	22(17.9)	57(20.7)	172(22.3)
소규모 농산어촌 여건을 고려한 운영(공동교육과정 등)	17(15.2)	12(9.2)	11(8.5)	14(11.4)	34(12.4)	88(11.4)
AI·디지털 기술 접목	17(15.2)	22(16.9)	20(15.4)	13(10.6)	15(5.5)	87(11.3)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	8(7.1)	22(16.9)	21(16.2)	28(22.8)	81(29.5)	160(20.8)
교육청 체험기관(시설) 활용	26(23.2)	20(15.4)	22(16.9)	25(20.3)	38(13.8)	131(17.0)
진로교육 연계(초-중 전환기 등)	14(12.5)	18(13.9)	21(16.2)	16(13.0)	41(14.9)	110(14.3)
기타	2(1.8)	2(1.5)	4(3.1)	5(4.1)	9(3.3)	22(2.9)
계	112(100)	130(100)	130(100)	123(100)	275(100)	770(100)

12) 종합 의견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의 방향 설정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 의견으로 다양한 의견이 기술되었다. 교원들은 기존에 운영되던 프로젝트 학습, 학생생성교육과정, 창의적 체험 활동(범교과)과의 중복 및 유사성,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및 나이스 기록으로 인한 업무 부담 가중 등에 대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 우수 운영 사례 및 예시 자료의 개발과 보급, 교원의 역량 강화 및 이해를 위한 연수,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문서 간소화 등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들도 제안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키워드로 정리하여 1차적으로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실태', '희망하는 운영 방향 및 방법', '지원 방안', '여건 개선', '기타'로 분류한 후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응답자가 여러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 각각의 범주에 따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IV-25> 교원 설문 종합 의견 분석

범주	빈도(건)	비율(%)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실태	22	4.4
희망하는 운영 방향 및 방법	244	48.4
지원 방안	179	35.5
여건 개선	53	10.5
기타	6	1.2
계	504	100

<표 IV-25>와 같이 '희망하는 운영 방향 및 방법'에 대한 응답이 4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두 번째로는 '지원 방안'에 대한 자유 의견을 제시한 비율이 35.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건 개선(10.5%)',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실태(4.4%)', '기타(1.2%)'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6>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실태」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 부족	8	36.6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필요성 공감 부족	9	40.8
운영에 대한 기대감	5	22.6
계	22	100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자유 응답에 포함된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관련 의견으로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 부족'의 응답 비율이 각각 40.8%와 36.6%로 나타났으며, '운영에 대한 기대감'은 22.6%로 학교자율시간을 바라보는 교원들의 인식에 온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 및 방법에 관한 기술은 총 244건으로 이에 대한 응답 결과를 <표 IV-27>과 같이 2차 범주화하여 나타내었다.

<표 IV-27>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 및 방법」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학교 및 교사의 재량권 확대	59	24.2
기존 프로젝트학습, 학생생성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또는 차별성 필요	57	23.4
기초 학력 저하 우려 및 기초 교육 강화	10	4.1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과의 합의 필요	11	4.5
시수 부담 최소화	5	2.0
절차 및 행정 업무의 간소화	81	33.2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 필요	6	2.5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	6	2.5
지역 인력 및 프로그램 자료 활용	9	3.6
계	244	100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향 및 방법과 관련한 자유 의견은 '학교자율시간의 절차 및 행정 업무 간소화'가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교 및 교사의 재량과 확대(24.2%)', '기존 프로젝트 학습, 학생생성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과의 연계 또는 차별성 필요(23.4%)'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과의 합의 필요(4.5%)', '기초 학력 저하 우려 및 기초 교육 강화 필요(4.1%)', '지역 인력 및 프로그램 자료 활용(3.6%)',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 필요(2.5%)',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운영(2.5%)'에 대한 응답도 관찰되었다.

<표 IV-28>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희망하는 지원 방안」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학교자율시간 연수 실시 및 교원의 역량 강화	57	31.9
운영 사례 및 자료 개발·보급	87	48.6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 마련	18	10.0
예산 운영 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 지원 확대	17	9.50
계	179	100

희망하는 지원 방안에 관한 자유 응답은 '운영 사례 및 자료 개발·보급'이 4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학교자율시간 연수 실시 및 교원의 역량 강화'가 31.9%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그 외 의견으로는 '운영을 위한 제반 시설 마련(10.0%)', '예산 운영 절차의 간소화 및 예산 지원 확대(9.5%)'가 있었다.

<표 IV-29> 교원 설문 종합 의견의 「여건 개선」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기존 교육과정 내용 및 시수 축소	25	47.2
학급 인원 감축	4	7.5
업무 경감을 통한 연구 시간 확보	16	30.2
교직 문화 개선	8	15.1
계	53	100

<표 IV-29>와 같이 학교자율시간 자유 응답의 10.5%는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기술하였는데 그 중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 및 시수의 축소’관련 의견이 47.2%로 가장 높은 응답 빈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업무 경감을 통한 연구 시간 확보(30.2%)’, ‘교직 문화 개선(15.1%)’, ‘학급 인원 감축(7.5%)’순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의견 응답의 범주 중 ‘기타’에 속하는 의견으로는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관리·감독 실시’, ‘교사의 책임감 있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환경 교육 실시’,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강화’등이 있었다. 끝으로 이상의 학교자율시간 종합의견의 주요 키워드를 워드클라우드로 시각화하여 정리하였고, 그 결과는 [그림 IV-6] 과 같다.



[그림 IV-6]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기타 종합 의견

2. 심층면담 조사 결과

가.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및 실태

물음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기존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어떻게 구분하고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설문	설문 결과, 다수의 교원들이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학교자율시간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있으나, '학교자율시간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정 재구성, 범교과 학습,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35.1%로 낮게 조사됨(<표 IV-11> 참조)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과 실태 관련 면담 결과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육과정 연구학교 담당 교원과 컨설턴트들은 학교자율시간은 주어진 교육과정의 재구성 수준이 아니라 지역과 학교, 학생의 필요와 여건에 맞게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편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과 외 지역과 학교에서 특색있는 내용을 발굴하고 새로운 성취기준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내용과 방법 면에서 차별화나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현재까지 많은 교원들이 자발적 또는 교육청 정책의 일환으로 실천해 온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교육과정 등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활동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학교자율시간의 성공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교자율시간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 외에 지역의 다양한 특성과 학생들의 필요에 맞춘 선택과목(활동)을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학교 단위에서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며 새로운 교과(활동)을 구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연구학교들이 학교자율시간을 선택활동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기존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과 뚜렷한 차별성을 가지기가 어렵고, 심화활동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 3~6학년에 도입될 학교자율시간이 기존 교과, 창체와의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선택 과목(활동)이 개발되어 단위학교에 선택지를 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기존의 프로젝트 학습, 생성교육과정은 교과성취기준 재구성을 통해서만 운영되는 것에 반하여 학교자율시간은 교과의 성취기준과 별개로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새로운 성취기준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초등 교육의 경우, 교실에서 실제 운영되던 교육과

정과 문서상의 교육과정이 상이하게 운영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역량이나 특기에 따라 혹은 학교의 특색 교육에 따라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운영되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한 교사,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을 실제 교육과정의 문서로 담아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심층면담 응답, D교사)

“기본적으로 기존 교과나 창체와 다르게 학교자율시간에는 지역과 학교의 여건, 학생의 흥미나 관심을 좀 더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자 주도성을 기르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법으로 질문에서 제시한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F교감)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과정 재구성과 편성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할 수 있었던 반면 학교자율시간은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편성할 수 있는 자율성에 기반한 권한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1)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과목 또는 활동 선택)에 대한 의견

물음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교는 선택 활동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적합하다는 응답이 다수인데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가장 적합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다수의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운영 방향으로 과목과 활동 중 활동 또는 과목과 활동을 병행하는 방향이 적합하다고 응답함 (<표 IV-13> 참조, 활동: 51%, 과목: 5.6%, 혼합형(과목과 활동 병행): 43.4%)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 즉, 과목과 활동 중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에 대한 질문에는 초등학교의 특성과 학교자율시간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활동’의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을 확보를 위해서도 ‘활동’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 단편적인 ‘활동’에서 출발하더라도 점차 경험과 사례가 누적되고 체계성을 갖추어간다면 향후 단위학교의 특화된 ‘과목’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다수의 면담 대상자들은 현재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단위학교에서 과목과 활동을 편성·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교과의 범위 안에서 학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깊이와 범위를 결정하여 과목을 만드는 것은 학교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다양한 과목이 개발되어 학교 단위에서 선택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과목은 하나의 과목이 되기 위한 요건이 많습니다(교육감 사전 승인도 받아야 함).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충분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선 ‘활동’이 현장에서 접근하고 교육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고, 교육청이나 연구학교, 혹은 학교에서 제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일반학교에 보급이 이루어진 후에는 과목과 활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활동은 단위학교에서 과목보다는 부담이 적게 느껴지므로 학교나 학년, 학생의 요구와 특색을 살린 교육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I교장)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있어 초등학교는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여겨집니다. ‘과목’의 형태로 운영할 경우에는 개별 교사와 단위 학급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것 같고, 활동으로 열어두었을 때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수준에 따라 과목의 형태 또는 활동의 형태 등 자유롭게 운영하는 사례가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 시행되니 교사들을 믿고 교육과정 자율성에 방점을 두고 첫 발을 내딛어보기를 기대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J수석교사)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교자율시간에 과목과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단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목의 성격, 목표, 내용(성취기준), 방법, 평가를 시퀀스와 스킵을 갖추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학교의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북에서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개설을 권장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을 알기에 시도교육청에서 학년에 맞는 과목을 만들고 학교는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합니다. 그러나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와 목적을 볼 때, 학교에서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적용의 단계에서는 효과적이라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2) 단위학교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 방안 및 과정에 대한 의견

물음	과목 또는 활동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귀교(컨설팅 담당교)의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 개발 주체로 적합한 단위는 동학년 단위(32.6%), 학교 단위(25.6%), 교사(학급) 수준(21.3%), 지역 단위(11.4%), 학생 스스로(8.2%) 순으로 조사됨(<표 IV-14> 참조)
설문	학생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주제 선택 방법으로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32.5%), 학년별로 정한 주제(29.0%), 학급에서 원하는 주제(27.4%) 순으로 응답 빈도수가 많았음(<표 IV-3> 참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방법과 과정에 대한 면담 결과 과목(활동)의 개발을 위해서는 그 과정에 교육공동체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는 점, 학교 및 교사의 자율과 자발에 기반해야 한다는 점 등에서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또, 개발 단위에 대해서는 학교 특성에 따라 교육공동체 특히, 학교 전 교원의 참여와 합의가 어려울 수 있는 점, 이런 경우 교육과정 위원회 등 학년 대표가 참여하는 TF팀을 통해 과목 또는 활동 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단위학교에서 과목 또는 활동이 구성되는 절차의 예시도 면담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한 과목·활동의 구성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교사공동체 활성화와 연수를 통한 전문성 강화, 지속적인 행정 업무 경감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 학교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반영하되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개발해야 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D교사)

“학생들의 선호도를 조사한 뒤,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 소재를 교사가 학생과 함께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목 또는 활동을 생성하는 과정은 ‘교육과정 반성회를 통한 개선점 도출 → 교원 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사) 설문 조사 → 단순한 흥미 위주의 키워드 삭제 및 공통 키워드 추출 → 키워드 분류를 통한 적합한 영역 선정 → 학교 및 지역의 특색을 고려한 내용 요소 선정 → 학년별 교육활동 개발’순이 될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G교사)

“단위학교에서 과목 또는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사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연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 제공하는 형태는 교사의 교육적 책무성과 자율성에 오히려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교사 공동체가 편하게 만나 연구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확보해 주시는 것이 가장 큰 지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J수석교사)

“과목 또는 활동을 구성하는 절차는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 → 학교교육과정위원회 협의를 통해 과목 또는 활동 선정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교육청 보고(승인)’ 정도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과목(활동)의 구성과 승인 절차는 향후 개정 교육과정의 해설서에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K교감)

“현재 연구학교에서 운영하는 활동은 지역 여건, 시대 상황, 학교 상황, 교사의 요구 등을 반영하여 전체 교사 협의회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연구학교라 구성원의 참여가 매우 우수한 상황입니다. 그 외 학교에서는 학교 규모 등 학교 특성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L교감)

3) 학교자율시간 시간 편성 방법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집중형과 분산형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에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운영 방식은 집중형, 분산형, 혼합형 순으로 조사됨(<표 IV-16> 참조, 집중형: 36.4%, 분산형(전일제 또는 정일제): 32.3%, 혼합형(집중, 분산 병행): 29.6%) 학생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기를 정하는 방법에 응답 빈도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일주일에 1~2시간씩 요일을 정해 학교자율시간을 갖는 방법(60%)'임(<표 IV-5> 참조)

학교자율시간의 교육과정 시간 편성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는 집중형과 분산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또, 각각의 방법이 장점이 분명한 만큼 혼합형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많았다. 그리고, 향후 단위학교의 학교교육과정 편성 시 시수 배정 단계에서 학교자율시간의 내용이 명확히 구성되지 않아 적합한 시간 편성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3·4학년 58시간, 5·6학년 64시간까지 운영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 시수를 고려해 보았을 때 혼합형의 방식이 초등학교에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학교가 선택한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집중형으로 운영했을 때는 학생들이 확실히 주제에 몰입해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지만 학교자율시간과 교과가 단절되는 현상이나 학생 삶과 학교자율시간에서 학습 한 부분이 연결 지어지지 못하고 이벤트성으로 끝나버리는 단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산형 운영의 장점은 일정기간 동안 꾸준히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생활 속에 과목과 비슷한 느낌으로 일상화될 수 있다는 점과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주제나 활동들을 다른 교과에도 적용하여 심화시켜 운영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자율시간 주제에 따라 학생들이 지루하게 느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학교자율시간 주제의 성격이나 학교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본교의 경우에는 연구학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기 초에 교과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 시수표와 배정 계획까지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의 경우, 학기 초에 주제 선정이나 운영 방식까지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E교사)

“집중형, 또는 혼합형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중형은 학생들이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혼합형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초기 주제 탐색 및 설정 단계에서는 분산형으로 실시를 하고, 이후 공동 작업이 많은 과제 탐색 및 발표 단계에서는 집중형으로 실시를 하는 것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F교감)

“운영 방식은 교육 내용, 즉 과목이나 활동의 내용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할 경우 혼합형이 적절하고, 과목을 할 경우 분산형이, 교과 외 심화보충을 할 경우는 집중형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4)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

물음

귀교(컨설팅 담당교)의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방법은 무엇이었고 학교자율시간의 적정 시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프로젝트학습이나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과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학교 사례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개정 교육과정 적용으로 인해 창의적체험활동 시수의 감축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적정 시수에 대해서는 개정 교육과정에 의해 3·4학년 58시간, 5·6학년 64시간 운영하는 것이 기준이며, 이에 준하여 연구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었다. 다만, 면담 대상자 일부는 학교 규모와 특성에 따라 20시간 내외 정도가 적정 시수라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

“본교는 학교자율시간을 학년별 최대인 3·4학년 58시간, 5·6학년 64시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년협의회에서 학교자율시간 주제와 연계된 교과 및 창체의 시수를 증감하여 학년교육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적정 시수는 학교에서 선정한 과목(활동)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학기당 17시간(주 1회)은 운영하여야 체계를 갖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본교는 3~4학년은 각각 연간 58시간, 5~6학년은 각각 연간 64시간을 학교자율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해 특별히 확보된 시수가 아니라 각 과목에서 감축할 수 있는 최대 시수의 총합으로 기존에 있는 시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또는 국가수준교육과정의 기준시수를 제외하고 학교 자체적으로 순증되는 시수를 학교자율시간에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D교사)

“성취기준 분석을 통한 교과 간 시수 통합, 교과 분석을 통한 교과 내 시수 감축, 학교자율시간 활동과 연계한 교과 운영으로 시수를 확보했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학기당 20시간 내외의 시수가 줄었습니다. 너무 길거나 짧을 경우 학생들이 지루해하거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H교사)

“학교자율시간은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 시수의 편성 기준을 학기당 17주에서 16주로 줄여서 1주를 학교자율시간으로 운영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하되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와 목적을 살려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5)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의견

물음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사회적 요구,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내용(주제)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진로탐색및계발(20.1%), 지역 연계 특색 교육(15.0%), 생태전환교육(15.0%), 학생 자유 주제 13.5% 등의 순으로 조사됨(<표 IV-17> 참조)
설문	학생 대상 설문에서는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28.6%), 생태 환경 관련 활동 및 체험하기(18.0%),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사회 대비하기(14.6%), 내가 직접 정한 주제 알아보기(13.3%) 순으로 응답 빈도수가 많았음(<표 IV-1> 참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의 주제 즉, 내용 구성에 관한 질문에는 면담 대상자 대부분이 개정 교육과정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과 같이 학교의 자율에 기반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거의 모든 면담 대상자들이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로 학생 생성 교육과정에 의한 학생 자유 주제 운영을 언급하였다.

“학교 규모에 따라 내용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특히, 대규모 학교에서는 지역 여건을 고려한 활동을 진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 학년별 운영하고 있는 첫 번째 활동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 중심의 활동이고, 두 번째는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통해 그동안 본교에서 운영하고 있던 독서교육을 학년성에 맞게 특색을 살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성원의 협의를 거치되 완전히 새로운 것에 대한 접근만 방법이 아니라 학교에서 꾸준히 실천하고 있던 활동을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좀 더 자유롭게 특색있게 운영한다면 부담을 줄이면서 긍정적인 성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A교장)

“학교자율시간의 주제에 대한 부분은 학교마다 처한 사정과 관심사가 달라 구성원의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미래에 대응하고 학습자가 자신의 주변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나가고자 지역의 현안을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주제가 학교자율시간 으로서 적합한 활동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학교 자율에 의하되, 진로 관련 활동은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한 부분인 만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린다면 기존의 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과는 별개의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E교사)

“주제 선정의 시간이 학생들에게 주어진다면 학생 자유 주제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원하는 주제로 추진하였을 때 집중과 몰입, 우수한 산출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H교사)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했을 때, 저는 지역 연계 특색 교육과 학생 자유 주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성취기준이 도단위의 학생들이 지역적 특성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고민해 보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자율시간을 할애하여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상의 이러한 한계점이 해결 된다면 ‘학생 자유 주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J수석교사)

6) 단위학교의 과목 또는 활동의 질적 제고에 대한 의견

물음	단위학교에서 개발하는 과목 또는 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련 설문	학생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의 수업 방법으로 친구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31.8%), 방문 체험 또는 실습(22.5%), 조사활동 및 교내 체험 또는 실습을 통한 방법(21.2%), 디지털 기기나 기술 활용(19%)순으로 응답 빈도수가 많았음(<표 IV-4> 참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의 질적 제고에 대해서는 학생 대상 설문 결과 처럼 효과적인 수업 방법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원 역량 제고와 함께 교육과정 운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단위학교 자체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성찰과 평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제공하고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적 체제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하였다.

<p>“아무리 잘 계획한 활동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영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찰과 평가를 통한 피드백으로 다음 운영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p> <p>(심충면담 응답, A교장)</p> <p>“학교의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규모 학교의 경우 학년부장 중심의 학년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기적인 학년협의회를 통해 활동의 전체 계획을 수립하고 성찰 및 반성을 통해 활동 내용의 정교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또, 비슷한 규모 및 주제를 중심으로 협의회가 이루어지면 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p> <p>(심충면담 응답, B교사)</p> <p>“학생들이 주제를 선택하고 탐색할 때 교사가 얼마만큼 지도 시간을 할애하고 적합한 피드백을 주는가가 중요합니다. 전담교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대규모 학교와 달리 본교와 같은 규모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수만큼 지도를 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합니다.”</p> <p>(심충면담 응답, F교감)</p> <p>“학교자율시간의 내실을 기하고 과목 또는 활동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청 차원의 지속적인 연수, 교사동아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 단위학교 업무지원팀 활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p> <p>(심충면담 응답, I교장)</p> <p>“구성원들의 합의와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질적인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를 줄이고 교사에게 진정 교재연구 시간, 교사 주체성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p> <p>(심충면담 응답, L교감)</p>
--

7) 단위학교의 과목 또는 활동의 편성 방식에 대한 의견

<p>물음</p>	<p>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과목 또는 활동의 교육과정 편성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공통 주제의 과목/활동을 학년별 계열화하여 편성, 학년별로 각기 다른 주제의 선택 과목/활동 편성, 학교 공통 주제 과목/활동과 학년별 과목/활동의 병행 등)</p>
-----------	---

과목 또는 활동의 편성 방식은 학교의 여건이나 과목 또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적합한 편성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과목이 아닌 활동 형태로 운영하더라도 학교 단위의 활동을 학년별로 계열화하여 편성하는 방식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 이유는 학년별 계열화하여 편성하는 방식이 지역이나 학교의 특성을 반영하기에도 적절하고, 학년별로 서로 다른 다양한 과목이나 활동을 제시할 경우 자칫 학생에게 학습 부담이 가중되는 역효과가 생기지 않을지 우려한 결과로 보인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학교 단위의 선택과목(활동)을 운영하는 것이 학년 간 연계성을 이룰 수 있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시수를 배분하여 학교 차원의 과목(활동)을 운영하고 학년(학급)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한 시수를 배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학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실제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반영하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 학교 공통 주제의 과목(활동)을 학년별 계열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각 학교 규모, 학급 학생 수, 학급 특성, 학생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F교감)

“개인적으로는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학교 공통 주제의 과목 또는 활동을 학년별 계열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듯합니다. 아니면 공통과 학년별이 병행이 되도록 하여 나름 6년 간의 학생들의 배움이 계열화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L교감)

“과목이나 활동에 따라 편성 방식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년에 따라 과목을 달리 한다면 교사는 과목을 만들면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전문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학생의 입장에서는 배워야 할 교과만 더 늘어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활동을 학년별로 연속성을 가지되 계열화하여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하는 경우, 3~4학년에서는 교과 학습 후 더 탐구하거나 해결하고 싶은 삶의 문제를 학습하는 활동을, 5~6학년은 주제를 정하고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8) 학교자율시간의 학교 규모 및 특성 고려에 대한 의견

<p>물음</p>	<p>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학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 규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p>
<p>관련 설문</p>	<p>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 주체로 적절한 단위에 대해 12학급 미만 소속 교원의 경우 '학교 단위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이 가장 많은 응답 빈도를 보였고, 12학급 이상의 경우는 '동학년 또는 동교과 단위의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이 가장 많았음(<표 IV-14> 참조)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주제로 24학급 이상 대규모 학교에서는 그 이하 규모의 학교에 비해 '진로 탐색 및 계발'의 비율이 높았고, 6학급 미만 소규모 학교에서는 '지역 연계 특색 교육'을 선택한 교원이 많았음(<표 IV-17> 참조)</p>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으로 학교급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22.3%),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20.8%), 경상북도교육청 체험 기관 활용(17.0%), 진로교육 연계 운영(14.3%) 순으로 응답 빈도수가 많았음(<표 IV-23> 참조)
--	--

학교 규모를 반영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해서는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을 편성하는 단위를 학교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즉, 대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년이나 학급(교사) 단위로 과목·활동을 편성하고, 소규모 학교는 학년 군 또는 학교 전체 단위로 편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 소규모 학교가 많은 경상북도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학교 간 연계를 통한 공동 운영 방법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학교 교사 공동체 구성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다.

<p>“학교 규모에 따라 같은 주제라도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사와 학생 수가 많을수록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고 이것을 풀어가는 교육활동들을 선정해 나가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규모가 큰 학교의 경우 학년 전체에게 적합한 활동인지, 물리적인 여건이 가능한지 충분히 협의해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충면담 응답, C교사)</p>
<p>“학교 규모에 따라 그 특성을 반영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학교는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학교 전체의 주제에 따라 교사 중심으로 활동을 만들어서 이를 학생들이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충면담 응답, E교사)</p>
<p>“소규모학교는 여건에 따라 인근 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또는 학년군으로 운영하거나 필요에 따라 개별학년으로 운영할 수 있겠죠. 대규모학교는 동학년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충면담 응답, I교장)</p>
<p>“대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학년별로 교사 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체계화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업무량도 많고, 함께 고민할 동료가 적어서 더 힘들거라 예상합니다.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끼리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충면담 응답, J수석교사)</p>
<p>“학교 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학교 전체가 한 가지 과목이나 활동을 위계를 정하여 하는 것이 교원의 수나 지원 인력을 고려하였을 때 적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년에서 학교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지침을 토대로 과목이나 활동을 설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충면담 응답, M교감)</p>

9) 학교자율시간 운영 모형에 대한 의견

물음 귀교(컨설팅 담당교)에서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시 참고한 모형이 있었습니까?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해 학교자율시간에 특화된 모형(모델)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일반적인 학교 교육과정 운영 단계를 따르거나 경상북도교육청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모형을 활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선행 교육과정 연구학교 중 탄력적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충면담 응답, B교사)

“학생 생성 교육과정 운영 형태 중에서 학생주도설계형, 교과통합설계형을 참고하였습니다.”
(심충면담 응답, F교감)

“스나이더 외(J. Snyder, F. Bolin, & K. Zumwalt)의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한 관점 중 생성(형성) 관점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포함한 연구학교 전반의 운영은 에드워즈 데밍의 P-D-C-A(Plan-Do-Check-Action) 사이클을 활용했습니다.”
(심충면담 응답, I교장)

10) 학교자율시간의 평가 및 기록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하셨으며, 단위학교에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은 별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하지 않거나(38.4%),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27.1%)는 응답이 다수였음(<표 IV-18> 참조). 또, 적합한 평가 방식으로는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48.2%), 특기사항 중심 누가 기록(22.0%), 관찰 등에 의한 서술 평가(18.4%),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루브릭 형태로 평가하는 방식(11.0%) 순으로 응답 빈도수가 많았음(<표 IV-19> 참조)

면담 대상 교원의 소속교인 도내 교육과정 연구학교들은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었다. 또, 평가 결과를 나이스에 기록할 때는 현재는 관련 교과 등에 반영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활동 상황 또는 평가 결과를 별도로 기록할 수 있도록 나이스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엄격한 성취기준 및 평가보다는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두고 과정 중심의 피드백을 위한 평가와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본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을 3개의 과제로 편성하였으며, 각 과제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교과 및 창체의 시수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교과에 누가기록 및 평가결과를 입력하였습니다. 나이스가 개편되면 학교별 선택과목(활동)에 누가기록 및 평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층면담 응답, B교사)</p> <p>“학교 자체 워크북 개발을 통해 기록과 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이스에는 따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이스 기록을 해야 한다면 관련 교과에 넣기보다는 학교자율시간 기록 영역이 마련되면 좀 더 쉽게 기록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층면담 응답, F교감)</p> <p>“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평가 역시 교육과정이므로 결과를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과목이든 활동이든지 목표를 잘 설정하고 이를 학생들이 도달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엄격한 성취기준이나 성취수준에 목표와 평가를 맞추기보다 학생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목표를 설정하고 과정 중심의 피드백으로 지원하여 역량을 키우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심층면담 응답, I교장)</p>
--

다.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1)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어려운 점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였습니까? 또는 전체 학교에서 운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은 학교자율시간 편성 및 운영에 따른 교사 부담(18.5%), 과목 또는 활동 개발(17.7%), 운영 사례 등 관련 자료 부족(15.0%),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시수 확보(12.6%), 평가·기록·통지 등 결과 처리(11.6%) 등의 순으로 조사됨(<표 IV-21> 참조)

심층면담을 통해 확인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에 따른 어려운 점으로는 교사의 부담, 참고 사례의 부족, 편성·운영 과정에서 구성원의 협의, 과목(활동) 검증, 학생의 이해와 참여 제고, 지도 인력 부족, 연구 시간 부족 등이 있었다. 특히, 심층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같이 교사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언급되었다. 또, 향후 전체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이 운영 될 때 우려되는 점으로는 주제 선정과 지도교사 편성의 어려움,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과목만 하나 더 추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또, 학교 간 격차 발생,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의 어려움 등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자율시간을 미리 적용해 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로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충분치 않았고, 본교에 적합한 선택 활동을 선정하는 데에 구성원의 많은 협의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체 학교에서 운영 시 과목(활동)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분한 사전 고민과 협의 과정이 없다면 이는 과목이 하나 더 추가되는 정도의 의미밖에 되지 않아 교사와 학생에게 모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이 주제가 본교 학생들에게 적합한 주제인지, 또 학년에서 설계한 활동들이 학교자율시간이라는 과목으로서 가치가 있는지 검증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활동들을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 계속 고민이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운영하는 과목이나 활동들이 상이하고 교사의 역량이나 구성원 소통의 정도에 따라서 학교마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점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학생의 입장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이 과목으로 들어오면 학생에게 배워야 하는 당위성을 줘야 하는데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고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예산 확보,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E교사)

“활동 중심으로 운영할 때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는 다양한데, 다양한 수의 주제만큼 지도 교원을 확보하기 어려워 담임선생님들께서 운영하시기에 어려운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과목으로 운영할 때는 교과서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 시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F교감)

“학생 개별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였을 때는 학생들의 집중과 몰입이 가장 높았으나 교사의 학습 준비에 따른 수고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학급 단위로 운영하였을 때는 학생 간 의견 충돌로 모둠을 다시 편성하거나 주제를 다시 선정하는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전체 학교에서 운영될 때는 주제 선정, 지도교사 편성 및 협력 등에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심층면담 응답, H교사)

“무엇보다 학교자율시간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점이 어려운 점입니다. 향후 우려되는 점은 학교자율시간이 자칫 획일화되거나 교육행사처럼 일사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학생의 요구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배움이 일어나지 않는 재미나 체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I교장)

2)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지원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 최소화(20.0%),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공(18.5%),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승인 절차 간소화(13.5%), 학교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10.0), 지역단위 개설 과목 또는 활동 개발과 보급(9.6%) 등의 순으로 조사됨(<표 IV-22> 참조)

면담 대상자들은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 제고, 학교 구성원 간 자율적 토의·토론 문화 조성, 교사 교육과정 문해력 신장, 업무 경감을 통한 연구 시간 확보, 과목·활동의 인정 절차 간소화 등을 제안하였다.

“2025학년도부터 3, 4학년이 학교자율시간을 처음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단위학교에서 선택과목(활동)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전 연수를 통해 선택과목(활동)을 이해하고 학교, 학년단위로 활동을 선택한 후 새 학년 준비기간 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어야 원활한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학교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주제(과목)를 선정하기 위한 토론 문화 조성과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자율시간을 편성하고 운영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해석하고 바라보는 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이 신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연수 및 활동들도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학급당 학생수 적정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업무 경감과 연구 시간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활동이 아닌 과목으로 하는 경우 교과서 인정 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안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F교감)

“교사의 자율적인 토의·토론 문화, 그를 위한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J수석교사)

3)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방안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귀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

면담 대상자들은 학교자율시간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기 협의회 등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 교사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사 자율성이 확보되고, 교사들이 만족감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p>“본교는 매주 월요일에 이루어지는 학년 정기협의 시간을 운영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각 학년의 운영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지난 내용을 성찰하고 해야 할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학년의 결정을 존중하고 운영을 지원하여 책임 있는 학년 단위학교자율시간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p>	(심충면담 응답, B교사)
<p>“평소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많이 마련이 되면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위한 노력을 알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것만으로 힘을 많이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준비물 구입비 뿐만 아니라 협의회 비도 충분히 마련이 되길 바랍니다.”</p>	(심충면담 응답, F교감)
<p>“학교 차원의 교사 교육활동 지지 및 지원, 전 교원의 역할 분담, 수업탐구공동체(동아리)를 통한 연구 활동과 협력적인 분위기 조성 등이 있습니다.”</p>	(심충면담 응답, I교장)
<p>“교사 스스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을 통한 만족감과 효능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부담은 줄이고 자율성은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p>	(심충면담 응답, L교감)

4) 학교자율시간 안내 매뉴얼의 범위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운영 가이드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제공할 때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제, 시수, 내용, 방법, 평가 등)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으로 18.5%의 교원이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공을 선택함(필요한 지원 중 2순위, <표 IV-22> 참조)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안내 자료와 관련해서는 면담 참여자 대부분이 다양한 사례가 포함된 매뉴얼이 제공되기를 희망했다. 또, 지나치게 자세한 안내와 가이드는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리는 데 해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적어서 교육청에서도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현장에 적용할 때를 예로 QnA 자료집, 실천 사례집, 각종 연수 등을 통해 학교별 특색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이 점차 진행되고 있듯 단위 학교만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나치게 구체적인 매뉴얼 보다는 사례 중심의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처음이라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할지 막막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연초에 제공하는 교육과정 편성 매뉴얼처럼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관해서도 전체적인 것들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 처음에는 가이드북을 보고 따라 하면서 적용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례를 중심으로 적용해나가다가 보면 학교만의 특색을 가진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편제, 시수, 내용, 방법, 평가 등이 들어가는 순간, 학교자율시간은 새롭게 생긴 교과에 불과하다고 여겨집니다. 범위를 두지 않고 예시만 제안하여 학급별로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G교사)

“편제, 시수, 내용, 방법, 평가 등 모든 것이 망라된 다양한 규모의 학교에서 실제로 운영된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H교사)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확실적인 매뉴얼이 아니라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안내하여 교사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라. 학교자율시간 운영 성과 및 종합

1) 학교자율시간으로 얻은 성과에 대한 의견

물음	학교자율시간 운영 결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대효과를 포함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관련 설문	교원 대상 설문 결과, 학교자율시간의 목표로 할 학생 역량은 협력적 소통 역량(26.4%), 공동체 역량(22.4%), 자기관리 역량(18.1%), 창의적 사고 역량(17.1%), 지식정보처리 역량(9.2%), 심미적 감성 역량(6.8%)순으로 조사됨(<표 IV-20> 참조) 학생 대상 설문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 싶은 능력으로 60% 이상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64.5%)'를 선택함(<표 IV-10> 참조)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통해 얻은 성과나 향후 기대되는 효과로는 교사와 학생 측면에서 언급이 되었다. 교사 측면에서는 교육과정 관련 전문성 향상과 인식 전환, 교원 간 협력 문화 형성, 교사로서의 성취감과 자긍심 등이 있었다. 학생 측면에서는 배움의 성취를 통한 학습 참여도 제고와 학습자 주도성의 신장, 학교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 형성 등을 성과로 들었다.

“학생들이 교과서를 통해서 배움에 한계가 있었던 부분들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고, 교사도 적절한 주제와 과목을 선정하여 활동들을 배치해나가는 안목이 서서히 늘어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개인적으로는 학교 구성원 간의 공통적인 관심사 형성으로 공동체의 움직임을 위한 촉매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통해 교사는 성취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학생은 학교 또는 지역과 연계한 활동으로 학교와 지역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E교사)

“수업에 대한 참여 태도가 향상되고, 배움의 성취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 요인으로 인해 다시 학습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향상되고, 순도가 높은 배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심층면담 응답, H교사)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는 교원들의 교육철학이 담긴 과목이나 활동 생성, 교원 협력 문화 형성, 학생들의 학습자 주도성 신장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I교장)

“가장 큰 변화는 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 봅니다. 주어진 교육과정의 전달자에서 교육과정의 개발자로 인식이 바뀐다고 봅니다. 이는 주어진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문해력뿐만 아니라 실행 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더불어 학교와 학생의 특성에 맞는 활동과 과목이 만들어져 교사의 역량과 더불어 학생의 역량도 함양될 것이라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2) 심층면담 종합 의견

심층면담에서 학교자율시간 관련 종합 의견에 대해서는 ‘학교자율시간의 적용 방안’,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단위학교 지원 방안’의 3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추출하였다. 면담자가 여러 범주에 포함되는 내용을 기술한 경우에는 각각의 범주에 따로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표 IV-30> 심층면담 종합 의견 분석

구분	빈도(건)	비율(%)
학교자율시간의 적용 방안	4	25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	3	18.8
단위학교 지원 방안	9	56.3
계	16	100

분석 결과 제시된 의견 중 ‘단위학교 지원 방안’이 9건, 56.3%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여건 마련이 부족한 실태이고 따라서 다양한 지원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각 범주에 해당되는 의견으로 먼저 ‘학교자율시간의 적용 방안’에 관한 의견으로는 단위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적용하고 개발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일종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시행 초기에는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 점차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한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경북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활용하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과 교사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가 중요하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연구학교를 운영 중인 본교도 계속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장에 정답을 가져오는 방식은 오히려 기존 교과를 답습하는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각 학교에서 길을 찾아가는 기간을 가져야 하며 구체적으로 최소 3년 정도는 융통성을 더 주어야 합니다. 학교가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1년 만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A교장)

“학교자율시간은 도교육청의 정책으로 다가가면 안 되고 실제 운영해야 하는 교사들의 자발적인 관심을 이끌어 내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심층면담 응답, D교사)

“학교자율시간의 적용은 ‘개방성’에서 ‘엄격성’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원을 명목으로 엄격한 체계와 내용을 요구하면 틀에 갇힐 위험이 있어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되, 운영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체계적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질 것이라 봅니다. 또한, 경북에서 하고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봅니다.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의 목적처럼 교과외의 제한 없이 학생들의 개별적인 요구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기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봅니다.”

(심층면담 응답, M교감)

다음 종합의견에 포함된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에 관한 의견으로는 학생 생활 지도와 업무 처리 등으로 인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원들의 준비 시간 부족,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시수 부족 문제,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경험 부족에서 오는 혼란 발생 등이 있었다.

“통상적으로 제시된 교과서를 끝까지 진도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에 학기 말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층면담 응답, B교사)

“학교자율시간 운영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학교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학교와 교사가 성취기준부터 평가 전반을 편성해본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층면담 응답, C교사)

“학교자율시간 운영은 교사에게 엄청난 수준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교사에게 친숙하지 않은 주제로 활동이 운영될 때 교사는 새로운 지식 및 경험의 확보를 위하여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차치하더라도 현재 교육 여건에서 학생 생활지도, 업무 처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생각한다면 교사에게는 막중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교사가 잘 알지 못할 때 학생들의 배움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것이라 판단됩니다.”

(심층면담 응답, H교사)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지원 방안’에 관한 의견으로는 교과용 도서 개발 시 인정 절차 간소화, 운영 사례집 배포·공유 및 플랫폼 마련, 편성 관련 도움 매뉴얼 제작, 선도 인력 양성, 관련 연수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관련 연구와 실천 사례를 통해 학교 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방안 등 구체적인 안내 자료를 마련하고,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의 역할 정립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본적인 편성에 대한 안내 매뉴얼, 다양한 사례 공유, 관련 연수 지원 등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한 협력 체계가 마련된다면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효과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심충면담 응답, C교사)

“일반화를 위해서 많은 사례를 보급하고 이를 공유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든 선생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나누리와 같은 공유 플랫폼 제작 및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자율시간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하여 선도 인력을 양성하여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심충면담 응답, E교사)

“적정 규모의 학생수,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활동이 아닌 과목으로 하는 경우 교과서 인정절차의 간소화, 자율적 운영을 위한 사례집 배포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은 담임교사 한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학교 구성원 전체가 함께 협력해야 함은 물론 학부모와 지역의 전문가, 인근 학교, 지역단체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위한 최소한의 업무 매뉴얼이 있으면 합니다.”

(심충면담 응답, F교감)

“교육과정 문해력이 우선되어야 학교자율시간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리라 생각합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지금까지의 강의식 전달 형태가 아니고 총론을 함께 읽으며 총론에서 진술하고 있는 내용들을 교사들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마련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충면담 응답, J수석교사)

“관련 연구활동과 사례 수집 등을 통해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방안처럼 단위학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을 정립하여 관련 지원 계획도 함께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충면담 응답, K교감)

3. 시사점

가. 학생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학생 대상 학교자율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확인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면에서 많은 학생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학교자율시간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종합 의견을 통해서도 학교자율시간이 기대된다는 표현이 다수 확인되어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신설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학교자율시간의 주제에 대해서는 진로 탐색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았으나 각 항목들이 전반적으로 고른 응답빈도를 보여 학생들의 관심 주제가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추후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 편성 시 학생들의 희망과 요구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주제를 선택하는 방법에 있어 내가 선택한 주제를 스스로 알아보거나 학년·학급 친구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 주제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선생님이 정한 주제나 지역 단위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는 것을 선택한 비율은 크게 낮았다. 이를 고려하면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주제를 결정할 때 학생들에게 선택하도록 하거나, 학교·학년의 필요에 의해 준비한 주제라 할지라도 학생들과의 협의와 설명의 과정을 통해 학생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학교자율시간의 수업 방법으로는 프로젝트, 체험 또는 실습, 디지털 기기나 기술 활용 방법을 선호하였다. 이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개선의 방법으로 꾸준히 추진해 온 다양한 수업(학습) 방법들을 학생들이 경험을 통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프로젝트 학습이나 협력·협동학습 등의 수업 방법을 학교자율시간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학습공동체 등을 통해 과목·활동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수업 방법을 선택하고 적용하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 싶은 능력으로 64.5%의 학생들이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를 택했는데, 이는 초등학교 단계의 학생들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성으로 초등학교 진로교육의 목표와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로 진로교육을 선택할 수도 있겠으나, 진로교육은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을 통해서도 운영이 가능한 만큼 해당 설문 결과를 '학교자율시간을 진로교육으로 운영해야 한다'로 해석하기보다는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방법'에 대한 시사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즉,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를 정할 때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 요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를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학교자율시간 활동 자체를 학생 생성 교육과정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다.

나. 교원 설문조사 결과 시사점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추후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과 지원 방안,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교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교원 인식과 관련하여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다수의 교원(61.6%)이 '그렇다'이상으로 응답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 실태를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설문에 대한 부정 응답 비율 또한 25.5%이고, '보통이다'까지 포함하면 38.4%로 10명 중 4명의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 신설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아직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기 전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학교자율시간의 안정적 도입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중 학교자율시간의 신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하는지를 묻는 문항에는 응답 교원 63.9%가 '그렇다' 또는 '매우그렇다'로 응답해 대부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문항에는 '그렇다'이상의 응답이 평균 55.0%로 조사되어 필요성에 대한 공감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현장 교원들이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신설한 취지는 이해하나 실제 운영에서는 그 취지에 부합하는 운영이 되지 못할것이라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 학교자율시간이 그

동안 추진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 범교과 학습,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과 차별화 된다고 생각하는 교원의 비율이 적었는데 이는 학교자율시간이 현행 교육과정의 교과나 창의적 체험활동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충분한 안내가 필요함을 알려준다.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학교 현장의 실태와 관련한 인식은 과반수의 교원들이 학교 자체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답했으나, 학교 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7.9%에 그쳐 현장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과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학교별 여건 마련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또,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은 경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저경력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및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 개발 주체, 편성 방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과목보다는 활동으로 운영하거나 과목과 활동의 병행 운영을, 개발 주체는 학년 단위의 개발을, 편성·운영 방식은 특정 시기에 집중하여 운영하는 집중형이나 분산 운영을 병행하는 혼합형이 적합하겠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와 같은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 수립과 편성·운영 방식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단위학교의 여건과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내용 등에 따라 최적의 방법을 학교 구성원들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교자율시간에 적합한 주제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생 대상 설문 결과와 동일하게 진로 탐색의 응답 비율이 높았으나 특정 주제에 대한 큰 쏠림 현상이 없이 여러 주제가 다양하게 선택되었다. 이는 학교의 상황, 지역 특성, 교사의 전문성 등에 따라 다양한 주제가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향후 단위학교의 과목이나 활동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자율시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료 제공과 사례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 구성과 평가 방식에 있어서는 별도의 성취기준과 평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여서 성취기준 마련과 평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교자율시간이 정규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편성·운영되는 만큼 성취기준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평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을 경우 단위학교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학교자율시간의 성취기준 구성과 평가에 대해 현장 교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수준의 지침 마련과 관련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중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역량으로 적합한 것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협력적 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물론,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의 경중을 비교할 수도 없고 학교자율시간이 특정 역량만을 목표로 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 현재 이러한 역량들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고, 교육과정의 다른 영역보다 학교자율시간으로 접근이 유용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따라서,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자료를 만들거나 연구를 추진할 때 이를 염두에 둔다면 현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필요한 지원에 있어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 과목 또는 활동 개발의 어려움, 운영 사례 등 관련 자료의 부족,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시수 확보의 어려움, 평가·기록·통지 등 결과 처리의 어려움 등이 있었다.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 최소화,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공,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승인 절차 간소화, 학교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등이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 결과를 볼 때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 운영으로 부담이 커지는 것에 대한 우려는 갖고 있으나, 학교 자율성의 보장을 통해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를 살린 내실 있는 학교 자율시간 운영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들이 특정 항목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선택되는 것으로 보아 학교의 여건과 교사 개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을 묻는 질문에 대한 설문에서 학교급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 교육청 체험 기관(시설) 활용이 상대적으로 응답 빈도가 높은 것을 볼 때 이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 지역의 관련 여건과 운영 역량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교육과정에 명시된 학교자율시간의 목적이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인 만큼 교육(지원)청, 학교, 교원 공동체 단위에서 축적되어 온 특색있는 교육활동과 관련 시설들을 학교자율시간과 접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이러한 학교자율시간의 내용적인 측면의 접근과 함께 편성·운영 방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지역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운영 여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다. 심층면담 조사 결과 시사점

도내 교육과정 연구학교 근무 교원 및 담당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교원들의 생각과 요구를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을 잡기 위한 의미 있는 의견들을 얻을 수 있었다.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교자율시간 운영과 관련 지원에 도움이 될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교육과정과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식 실태를 고려할 때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분명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학교자율시간은 지금까지 실천해 온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교육활동과 편성 방법에서 분명히 구분될 수 있으며, 내용 면에서도 교과 외의 특색 있는 내용을 학교의 필요에 따라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육과정 연구학교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을 교과 또는 창의적체험활동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뚜렷한 차별성을 갖도록 편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현재까지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향후 학교자율시간을 교육과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편성 주체인 교원들 스스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교육과정 개발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교육청 단위에서는 학교자율시간 편성의 방법과 내용 측면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에 있어 과목과 활동의 선정은 초등학교의 특성과 실정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자율시간을 과목과 활동 중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지는 단위학교의 여건과 필요한 내용의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다만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과 학생들의 발달 단계, 교사의 자율성 보장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에서는 '과목'보다 '활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리고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 과정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면담 대상자들은 과목이나 활동을 학년별로 편성할 때 학년 단위로 각기 다른 다양한 활동의 운영보다는 학교단위나 적어도 학년군 단위의 큰 틀에서 활동 영역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학년별로 계열화하여 세부 활동을 구성하는 것을 추천했다. 이러한 방법은 해당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을 살리고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주제 편성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학교자율시간 운영 주제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 단위학교가 효과적인 주제를 선정하고 과목 또는 활동으로 편성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면담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의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주제를 선정할지 보다 어떤 과정을 거쳐 선정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우리 도의 경우는 학교의 필요에 의해 선정된 주제와 함께 도내 모든 초등학교가 그동안 추진해 온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그에 따른 학생 자유 주제 선정 방식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향후 학교자율시간은 물론 학생 생성 교육과정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교자율시간의 평가와 기록에 대해서는 나이스 개선 등 평가기록을 위한 시스템은 갖추되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해치지 않고 교사들의 관련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추진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즉, 학교자율시간이 특정 영역에 대한 내용의 성취보다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주도성 신장과 교과 교육과정을 넘은 경험의 확대, 교원의 교육 과정 개발 역량 제고와 단위학교의 교육력 제고 등이 궁극적 목적이라고 볼 때 학교자율시간의 평가는 교사와 학생의 평가 관련 부담은 줄이되, 학교자율시간 운영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어려운 점과 현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면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면담 대상 학교에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의 방법적인 부분보다는 사전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소통과 의견 합의,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부분에 더 큰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교자율시간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학교자율시간의 편성과 운영에 중심 역할을 하여야 하는 담당 교사 대상 연수와 함께 전체 교원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의견으로는 운영의 어려운 점과 연관된 내용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제고, 토의·토론 문화 조성,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 여건 개선 등이 있었다. 특히,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할 교사들의 역량 제고와 함께 업무 경감 등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면담 대상 교원들의 경험으로 볼 때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이 출발단계에서부터 완성도를 갖기는 힘들기 때문에 수행 과정에서 구성원 간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학교자율시간 관련 매뉴얼과 관련하여 안내 자료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그 범위에 대해서는 다소 상반되는 의견들도 있었다. 학교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상세한 가이드 성격의 도움 자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구체적인 방법보다는 다양한 사례 중심의 안내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처음 실시하는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가 필요하겠지만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담은 자료의 제공이 자칫 획일적인 학교자율시간 운영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이점을 고려하여 향후 관련 자료 제작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연구학교 운영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선제적으로 경험하면서 학생과 교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성과가 관찰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특히,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부담도 되었지만 교사로서 자긍심과 성취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 교사 측면의 중요한 성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주어진 교육과정을 수행하던 교사들이 직접 계획하고 소통하며 만든 활동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이유로 해석된다. 따라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 등 내용을 구성할 때 교사들의 자율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V. 결론 및 제언

1. 연구 결론

본 연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부터 신규 운영하게 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현장의 인식 실태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과 타 시도 및 해외 관련 교육과정 운영 사례, 도내 연구학교의 관련 선행 연구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대상 학년인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학생과 도내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 연구학교 소속 교원 및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의 연구 과정을 통해 얻은 연구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론을 정리하고자 한다.

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및 교원의 인식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학교자율시간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학습을 기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시기, 운영 주제, 학습 방법과 기타 의견 등 설문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학생들은 학교자율시간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가지 흥미로운 방법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원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자율시간 신설 취지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존 교육과정 재구성 등과 학교자율시간의 차이점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하고, 운영 효과에 대한 기대 정도가 학교자율시간의 신설 취지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 정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학교자율시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여러 설문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과정에서 학생은 자신들의 선택권을, 교원은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 보장을 희망하고 있었다. 또,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효과에 있어서도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학교자율시간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 전반에서 제약을 최소화하고, 학습자들과 교육과정 편성 주체인 교사들에게 충분한 자율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한 교사와 단위학교의 여건 및 준비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교원의 이해와 역량을 높임과 동시에 단위학교의 자율성 발휘와 창의적인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제반 여건 마련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학교자율시간」운영 시 예상되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는 부분을 조사하였고, 심층면담으로 면담 대상 교원들이 연구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선행 운영하며 경험한 어려움도 파악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도출된 학교자율시간 관련 어려움과 그에 따른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어려움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교사의 부담 가중에 대한 것이었다. 따라서 위의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내용에서 언급하였듯이 교사들의 관련 부담을 줄이고 실천 동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과 관련한 제약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의 승인 절차, 평가 및 기록 처리의 간소화 등으로 관련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단위학교의 자율성은 보장하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설문조사 결과 교원들은 학교자율시간의 시수 확보, 결과 처리 등 편성·운영의 절차와 방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했다. 또,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경험한 교원들도 학교자율시간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 등 참고 자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처음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

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지침과 안내 자료가 없는 상황이며, 참고할 만한 운영 사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대로 학교자율시간이 도입될 경우 교육과정 연구학교에서 처음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고민할 때와 같은 어려움을 대부분 학교에서 겪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는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와 편성·운영 관련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학교자율시간 안내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는 한편, 연구학교와 교원 학습 공동체를 통해 실천 사례 중심의 안내자료를 개발하고 관련 연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설문조사 결과 많은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을 계획하는 과정 중에서 특히 과목·활동의 선정 또는 개발에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했으며, 심층면담 대상자들도 과목·활동의 내용 선정과 적합성 여부 판단, 질적 제고 방법에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고려하여 단위학교 교원들의 학교자율시간의 과목·활동에 대한 이해와 선정·개발, 질적 개선을 위한 역량 제고를 지원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에서 과목·활동 선정에 참고할 다양한 예시를 제공해 주고, 과목·활동의 선정이나 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점검표 등의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학교자율시간 운영 경험을 한 교원 대상 면담 결과,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소통과 의견 합의, 특히 학교에서 계획한 자율시간에 대해 소속 교원과 학생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였다. 연구 결과의 시사점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학교자율시간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위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한 것처럼 학교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노력이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과정에 교원들의 참여를 유기적으로 유도하는 장치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한 운영 절차적 모형을 교육청 단위에서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위학교에서는 구성원 간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소속교의 학교자율시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토의·토론문화 형성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교자율시간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어려움 외에도 여러가지 난점과 문제점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지역, 학교,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곤란한 점에 대해 단위학교와

지역 단위에서 즉각적인 자체 지원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단위의 여러 공통 지원과 함께 지역별 관련 협의체 구성, 교원 공동체 형성 지원 등 현장 중심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으로 교원 행정 업무 경감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사들이 교육과정 운영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지속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다.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른 시사점, 학생 및 교원 인식 실태와 단위학교 지원 방안을 바탕으로 우리도의 여건에 부합하는 학교자율시간,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향 및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첫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단위학교의 자발성에 가치를 두고 각종 제약을 최소화한 형태이기를 희망한다. 학교자율시간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은 참여하고 싶고, 교사는 실행하고 싶은 동기를 해치지 않아야 한다.

기존의 교과 교육과정과 같이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교과가 아니라 다소 미숙하고 불완전하더라도 오롯이 단위학교의 고민을 통해 만들어진 과목이나 활동으로, 필수라는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 동기로 운영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단위학교와 교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목(활동)의 선정과 승인 절차, 편성 시수, 평가와 통지 방법 등 학교자율시간 관련 각종 편성·운영 과정에 대한 각종 제약을 최소화하고 그 방법을 간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우리 지역의 다양한 자연·인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경상북도는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과 다양한 자연환경, 도·농을 아우르는 인문환경, 역사적 가치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심층면담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언급된 바 있듯이 현재 국가수준 교육과정 만으로는 지역적 특성과 균형 발전에 대한 깊이 있는 학습을 운영하기에 한계가 있기에 학교자율시간이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다. 또, 지역 상황에 따라 학교 간 학교자율시간의 공동 운영, 특히 소규모 학교 간 공동 운영으로 학생들에게 부족한 경험을 제공하고 교사들도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학생 생성 교육과정」의 적용으로 학생의 요구와 선택권을 보장한다. 학교자율시간의 도입으로 학교의 필요에 의해 다양한 특색 교육활동의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교육과정의 궁극적 목적인 핵심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동안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운영해 온 경험과 사례들을 학교자율시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 설문조사에서 나타나듯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이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통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어려움이나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은 학교자율시간의 질적 제고와 학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학생 주도형 수업」의 실천 방법 및 미래 지향적 수업 매체 등을 적용한다. 앞서 언급한 학생 생성 교육과정과 함께 우리 도의 장점인 다양한 교실수업 개선 노력들을 학교자율시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 수업, 거꾸로 수업, 협동·협력 학습, AI 활용 등 그동안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적용한 다양한 방법과 매체들은 단위학교의 학교자율시간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유용하게 접목이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모형은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계획, 실행, 평가 과정을 통해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제로 운영된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개정 교육과정으로 인해 도입되는 학교자율시간이 처음부터 완성도 있게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 이미 과목 또는 활동을 개설하여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을 경험한 학교라 하더라도 학교 여건의 변화나 학생의 요구에 따라 학교자율시간의 과목과 활동을 새로이 구성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과 단위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 그리고 평가와 성찰, 피드백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이나 활동, 운영 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역량과 체제가 갖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청 단위에서는 선행 연구 사례의 학교교과목 개발단계, 연구학교의 선택과목 운영 단계(그림 II-4) 참조) 등을 바탕으로 위에서 언급한 과정을 포함하는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모형을 개발·보급하여 학교자율시간의 선순환적 운영 체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방안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이 지양해야 할 운영 방향의 성격으로 간략히 제안했다. 하지만 앞으로 단위학교에서 구성원들의 소통을 통해 형성된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의 자발성에 의해 학교자율시간이 실천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의 과정과 성공의 경험을 거친 사례들이 모아진다면 진정한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성격과 구체적 운영 방안이 도출될 것이라 기대한다.

2. 제언

본 연구의 시사점과 결론에서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경북형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을 위해 추진할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가. 단위학교 정책 제언

첫째,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학교자율시간 관련 학교 단위 자율연수를 통해 학교와 교사의 교육과정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과정 연수를 통해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관심과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 교육과정 문해력과 개발 역량을 키워야 한다. 특히, 관련 선행연구(이광우, 임유나, 2023)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학교자율시간은 학교와 교사의 역량에 따라 격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단위에서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자율시간의 운영을 위한 단위학교의 실태 분석과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 학교자율시간을 도입하게 되는 당해연도 이전에 학교자율시간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의 절차를 거쳐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을 편성하기 위한 기반을 사전에 마련해 두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과 수업 중심의 소통 문화를 조성하여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토의·토론과 일상적으로 수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문화의 형성은 학교자율시간은 물론 학교 교육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학년 또는 학교단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상시 의사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학교자율시간을 계기로 학교 구성원들 상호 간에 협력과 공동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소통과 나눔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나. 교육(지원)청 및 유관 기관 정책 제언

첫째,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적절한 범위의 안내자료 제작·보급이 필요하다. 학교자율시간은 학교 자율에 의해, 학교의 필요에 따라 계획되고 운영되는 것이지만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과 기본적인 편성·운영 방법을 담은 최소한의 가이드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현장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부담과 두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하면서 그 도입 취지는 훼손하지 않는 적절한 범위의 자료 제공이 필요하다.

둘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교원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여야 한다. 교원 학습 공동체를 통해 현장·실천 중심의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사례 및 과목(활동)의 예시 자료를 개발하여 단위학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별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학교자율시간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시기인 만큼 단위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지역별로 학교자율시간 연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의 역할을 담당할 운영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넷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대상별 맞춤형 연수와 홍보가 필요하다. 단위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강화 연수와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연수, 학생과 학부모 대상 홍보와 안내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연수와 홍보를 지속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 학교자율시간 관련 각종 자료와 사례의 공유를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연구 결론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움은 관련 자료의 부족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교육청 단위에서 학교자율시간 관련 유용한 자료를 모으고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는 현장 교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시론적 성격의 연구라는 한계가 있기에 실천에 기반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2022 개정 초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서」 및 도교육청 차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 가이드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심도있는 실천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2022a). 2023학년도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안내.
- 경기도교육청(2022b). 함께 만들고 같이하는 초등학교 자율교육과정.
- 경상북도교육청(2022). 학생이 배움의 주인 되는 학생 생성 교육과정.
- 교육부(2021).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시안).
- 교육부 보도자료(2021.11.24.). '2022 개정 교육과정'총론 주요사항 발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8967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N에서 2023년 2월 17일 인출.
- 교육부(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 김덕년, 정윤리, 최미현, 김지연, 고승선(2022). 교사 교육과정: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서울: 교육과실천.
- 김세영, 이윤미(2020). 학교교과목 개발 절차에 관한 사례 연구. *교육과정연구*. 38(3), 7-32.
- 김종훈(2023). '교사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 자율시간'을 중심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김종훈, 강지영, 김정윤, 김현경, 이주은, 김행연(2022). 서울 지역교육과정의 설계방향 탐색 및 학교 자율교육과정의 효과적 운영 방안 연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 명호초(2022). 협력적 주체성 신장을 위한 학교자율시간 확보·운영 방안. 교육부요청 경상북도교육청지정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운영 보고서.
- 명호초(2023). 학교자율시간 확보·운영을 통한 협력적 주체성 신장. 교육부요청 경상북도교육청지정 정책연구학교 2차년도 운영 계획서.
- 문덕초(2022). W.I.T.H.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미래시민 역량 신장 방안 연구. 교육부요청 경상북도교육청지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1차년도 운영 보고서.
- 문덕초(2023). 맞춤형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향상. 교육부요청 경상북도교육청지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정책연구학교 2차년도 운영 계획서.

- 박수원, 심성호, 이동철, 이원님, 임성은, 정원희, 최진희(2020). **교사 교육과정을 디자
인하다: 이론편**. 서울: 테크빌교육.
- 박승열, 이전이, 이원님, 손다정(2021). 학교 자율교육과정 편성·운영 양상과 교사의
인식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보고서.
- 온정덕, 김종훈, 박상준, 이수련, 이승미, 정기효, 정소영(2020). 초·중학교 교육과정
구성 방안 연구. 교육부·경인교육대학교 연구보고서.
- 유영식(2020). **수업 잘하는 교사는 루틴이 있다: 교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수업의 모
든 것**. 서울: 테크빌교육.
- 이광우, 임유나(2023). 2022 개정 교육과정 ‘학교자율시간’의 성격 및 편성·운영에
관한 시론적 논의. **교육과정연구**, 41(1), 162-184.
- 이동섭(2022). 핀란드의 학교 내외 정서 및 사회성 함양 프로그램 운영사례와 시
사점. 한국교육개발원 이슈 페이퍼 CIP 2022-07.
- 이수영(2021). 영국과 독일의 에코스쿨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
원 이슈 페이퍼 CP 2021-04.
- 임재일, 박은영, 박주훈, 김택헌(2022). 학교자율과정 적용 양상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
방향 논의 :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3), 75-104.
- 전라북도교육청(2022a). (전라북도교육청고시 2023-9)전라북도초등학교교육과정 총론.
- 전라북도교육청(2022b). 2023학년도 초등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도움 자료.
- 정광순(2020). 초등교사의 교육과정 문해력 내용 탐색. **통합교육과정연구**, 14(4),
27-52.
- 정제영(2015). 미국의 학교와 지역사회 간 연계 사례와 시사점: ‘커뮤니티 스쿨’ 사례
를 중심으로.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 5호. 한국교육개발원 현안보고 CP
2015-02-5.
- 충청북도교육청(2022). (충청북도교육청고시 제 2022-2호) 충청북도교육과정 총론.
- 파천초(2022). 미래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신장 방안. 교육부요청 경상북도교
육청지정 정책연구학교 2차년도 운영 보고서.
- 파천초(2023). 미래교육과정을 통한 학습자 주도성 신장 방안. 교육부요청 경상북도교
육청지정 정책연구학교 3차년도 운영 계획서.

[부록 1] 학생 대상 설문 조사지

안녕하세요?

2024학년도부터 1, 2학년을 시작으로 앞으로 학생 여러분이 배우게 될 교육과정이 바뀌게 됩니다. 새 교육과정의 가장 큰 변화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나 다니는 학교의 상황, 여러분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과목 또는 활동을 만들 수 있는 '학교자율시간'**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설문은 '학교자율시간'에 배우고 싶은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므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본 조사의 결과는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로만 활용되며 연구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정책연구팀)

응답 학생의 기본 정보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나의 학년을 선택해 주세요.

- ① 3학년 ② 4학년 ③ 5학년 ④ 6학년

2. 우리 반 학생 수를 선택해 주세요.

- ① 10명 이하 ② 11 ~ 20명 ③ 21 ~ 30명 ④ 31명 이상

3. 우리 학교가 속한 지역(시·군)을 선택해 주세요.

- ① 포항 ② 경주 ③ 김천 ④ 안동 ⑤ 구미 ⑥ 영주 ⑦ 영천 ⑧ 상주 ⑨ 문경
 ⑩ 경산 ⑪ 군위 ⑫ 의성 ⑬ 청송 ⑭ 영양 ⑮ 영덕 ⑯ 청도 ⑰ 고령 ⑱ 성주
 ⑲ 칠곡 ⑳ 예천 ㉑ 봉화 ㉒ 울진 ㉓ 울릉

□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입니다. 다음 각 물음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안내에 따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제] 학교자율시간의 주제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은가요? 희망하는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해 주세요.

- ① 우리 고장의 역사 또는 문화 알아보기
- ② 언어, 수리, 디지털 관련 기초적인 지식이나 기술 익히기
- ③ 교과학습 진단 및 보충 활동하기
- ④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사회 대비하기
- ⑤ 생태환경 관련 활동 및 체험하기
- ⑥ 민주시민으로서 역할을 알아보고 실천하기
- ⑦ 나의 진로에 대해 알아보기
- ⑧ 내가 직접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보기

5. [주제] 위 4번 질문에서 8번을 선택한 경우 희망하는 주제를 적어주세요.

6. [주제 선정 방법] 학교자율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 ① 내가 알아보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스스로 계획을 세워 알아본다
- ② 학급에서 원하는 주제를 1가지 정하여 계획을 세워 알아본다
- ③ 같은 학년 친구들의 의견을 모아 학년별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본다
- ④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본다
- ⑤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우리 고장 및 지역에서 정한 주제에 대해 알아본다

7. [학습 방법] 학교자율시간은 어떤 방법으로 수업을 하면 좋을까요?

- ① 조사활동 및 교내 체험 또는 실습을 통해
- ② 친구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 ③ 우리 지역의 관련 장소나 공간을 방문해서 체험 또는 실습을 통해
- ④ 디지털 기기나 기술을 활용하여
- ⑤ 기타(자유응답)

8. [운영 시기]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하는 시기는 어떻게 정하면 좋을까요?

- ① 일주일에 1~2시간씩 요일을 정해 학교자율시간을 갖는다
- ② 한 달에 1~2일 학교자율시간의 날을 정하여 하루동안 학교자율시간을 갖는다
- ③ 학기 말 등 특정 기간에 일주일 동안 학교자율시간 주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 ④ 위의 방법들을 학습 내용이나 학년에 따라 혼합하여 운영한다.

9. [기대 효과]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어떤 능력을 기르고 싶나요?

- ① 내가 무엇을 잘하고 좋아하는지 알고 싶다
- ② 정보를 찾고 정리하여 결과를 발표하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 ③ 여러 분야의 정보를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생각해 내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 ④ 나의 생각과 감정을 글이나 말로 친구들에게 잘 표현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 ⑤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싶다
- ⑥ 책임감 있게 규칙과 질서를 지키며 친구를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고 싶다

10. [자유 의견] 이 외에 '학교자율시간'에 대한 학생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2] 교원 대상 설문 조사지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설문조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교육정책 현장연구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신설에 대비하여」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설문은 우리 도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방향 설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조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마련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문항에 빠짐없이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 및 수집되는 개인정보(담당 학년, 성별, 교육경력, 근무지 등)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3. 6.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정책연구팀)

응답 선생님의 기본 정보에 대한 설문입니다. 다음 각 항목에 해당되는 번호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선생님의 직위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담임교사 ② 전담교사 ③ 비교과교사 ④ 수석교사 ⑤ 교감 ⑥ 교장

2. 현재 담당(지도)하고 계시는 학년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④ 4학년 ⑤ 5학년 ⑥ 6학년 ⑦ 교과전담
⑧ 기타(보건, 특수, 영양, 수석, 교감, 교장 등)

3. 선생님의 교육 경력을 선택해 주십시오(2023. 6. 1. 기준).

- ① 5년 미만 ② 5년 이상 10년 미만 ③ 10년 이상 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

4. 현재 재직 중이신 학교 규모를 선택해 주십시오.

- ① 6학급 미만 ② 6학급 이상 12학급 미만 ③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④ 24학급 이상 36학급 미만 ⑤ 36학급 이상

5. 현재 재직 중이신 기관(학교)의 소속 지역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포항 ② 경주 ③ 김천 ④ 안동 ⑤ 구미 ⑥ 영주 ⑦ 영천 ⑧ 상주 ⑨ 문경
 ⑩ 경산 ⑪ 군위 ⑫ 의성 ⑬ 청송 ⑭ 영양 ⑮ 영덕 ⑯ 청도 ⑰ 고령 ⑱ 성주
 ⑲ 칠곡 ⑳ 예천 ㉑ 봉화 ㉒ 울진 ㉓ 울릉

다음은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도입될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현장 교원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학교자율시간]

- 학교자율시간이란?
 - 지역 연계 및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는 시간
-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 학교는 3~6학년을 대상으로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 중 학기별 1주 분량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학교자율시간으로 운영
 - 학교·지역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이나 활동을 개설하여 학교자율시간에 운영 가능

[출처: 2022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2022 개정 교육과정 질의 응답 자료]

6.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한 각 문항에 대해 선생님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이 신설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2	2022 개정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교과(군)별 뿐만 아니라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20 범위 내 시수 증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3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신설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					
4	학교자율시간은 그동안 추진해온 교육과정 재구성, 범교과 학습, 프로젝트 학습, 학생 생성 교육과정 등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순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	우리 학교에서는 자체로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학교자율시간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6	학교자율시간이 지역 또는 학교의 특색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7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이 확대될 것이라 생각한다.					
8	학교자율시간 도입으로 학생이 배움의 주체로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9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이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10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의 교육적 필요와 요구가 더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11	학교자율시간을 운영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가 더 반영될 것이라 생각한다.					
12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교사의 이해와 실천력 확보, 환경 조성 등 단위학교의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 다음은 향후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 방향 설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 문항을 읽고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상 '과목'은 '교과'에서 분화된 하위개념으로, '활동'은 수업을 이루는 계획된 교수·학습행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하는 '과목'과 '활동'에 대한 정의는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대한 방향과 방법에 대한 지침의 성격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합의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아래 질문들과 관련 연구자료 및 문헌들을 바탕으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과 '활동'에 대한 정의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7. [운영 방향]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학교자율시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자율시간에 가장 적합한 운영 방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 또는 학년 지정·활동·개발·운영
- ② 학교 또는 학년 지정·과목·개발·운영
- ③ 혼합형으로 운영(과목과 활동 병행)

8. [개발 주체] 학교자율시간 과목이나 활동의 개발 주체로 가장 적절한 단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역 단위의 과목/활동 개발
- ② 학교 단위의 과목/활동 개발
- ③ 동학년 또는 동교과 단위의 과목/활동 개발
- ④ 교사(학급) 수준의 과목/활동 개발
- ⑤ 학생 스스로 과목/활동 개발(경상북도교육청의 '학생 생성 교육과정'을 의미)
- ⑥ 기타(자유 응답)

9. [편성·운영 방식] 학교자율시간의 가장 적합한 운영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집중형: 학기 중 또는 학기말 한 주에 집중 편성(학교자율시간 주간)하여 운영
- ② 분산형(전일제): 매일 1~2일 학교자율시간의 날 운영
- ③ 분산형(정일제): 매주 1~2시간 학교자율시간을 특정 요일에 고정하여 운영
- ④ 혼합형: 집중형과 분산형을 병행(과목/활동 하나는 집중형, 나머지 과목/활동은 분산형 등)
- ⑤ 기타(자유 응답)

10. [주제] 학교자율시간의 과목 또는 활동에 가장 적합한 주제(영역)는 무엇인지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지역 연계 특색 교육(지역사회 이해)
- ② 기초 소양 교육(언어, 수리, 디지털 소양)
- ③ 학습진단과 개별 보정교육
- ④ 디지털전환 관련 교육
- ⑤ 생태전환교육
- ⑥ 민주시민교육
- ⑦ 진로 탐색 및 계발
- ⑧ 학생 자유 주제
- ⑨ 기타(자유 응답)

11. [평가] 학교자율시간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루브릭 평가(예: 잘함, 보통, 노력요함 3단계 평가 등)
- ② 특기사항 중심 누가 기록(창의적 체험활동과 유사한 방식)
- ③ 관찰 등에 의한 서술평가(관련 교과 또는 종합 의견에 기록하는 방식)
- ④ 별도의 평가는 필요하지 않음
- ⑤ 기타(자유 응답)

12. [기대 효과] 선생님의 학교에서 학교자율시간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무엇이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자기관리 역량
-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 ③ 창의적 사고 역량
- ④ 심미적 감성 역량
- ⑤ 협력적 소통 역량
- ⑥ 공동체 역량

13. [성취기준]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을 개발하여 운영할 경우, 성취기준은 어떻게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개설 과목에 적합하도록 성취기준을 함께 개발
- ② 관련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그대로 활용
- ③ 교과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활용
- ④ 별도의 성취기준이 필요하지 않음
- ⑤ 기타(자유 응답)

14. [문제점]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지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구성원의 합의와 협력의 어려움
- ② 학교자율시간을 위한 시수 확보의 어려움
- ③ 과목/활동 개발에 따른 어려움(주제 선정, 내용 구성, 자료 제작 등)
- ④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 승인 절차의 어려움
- ⑤ 학교자율시간 운영 사례 등 관련 자료 부족
- ⑥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시스템의 미비
- ⑦ 학교자율시간 평가, 기록, 통지 등 결과 처리에 대한 어려움
- ⑧ 학생의 필요, 학부모 및 사회적 요구 파악
- ⑨ 교사의 학교자율시간 편성 및 운영에 따른 부담(시간, 노력, 질 등)
- ⑩ 기타(자유 응답)

15. [지원]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린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지 3가지 선택해 주십시오.

- ① 학교 구성원의 이해 제고 및 공감대 형성
- ② 학교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제약 최소화
- ③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공
- ④ 교원 교육과정 관련 역량 제고
- ⑤ 학교자율시간 과목/활동의 승인 절차 간소화
- ⑥ 지역단위 개설 과목 또는 활동의 개발과 보급
- ⑦ 학교자율시간 지원과 사례 공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⑧ 학교자율시간 운영을 위한 NEIS시스템 개선
- ⑨ 지역 내 학교자율시간 관련 인프라 조성
- ⑩ 기타(자유 응답)

16. [지역 맞춤 운영]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을 고려한 학교자율시간 운영으로 가장 적합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학교급 또는 학교 간 연계 운영
- ② 소규모 농산어촌 여건을 고려한 운영(공동교육과정 등)
- ③ AI·디지털 기술 접목
- ④ 지역 자연환경 및 역사·문화 활용(마을 연계 특색 교육과정 운영 등)
- ⑤ 경상북도교육청 체험 기관(시설) 활용
- ⑥ 진로교육 연계 운영(초-중 전환기 등)
- ⑦ 기타(자유 응답)

17. 이 외에 '학교자율시간'의 편성·운영의 방향 설정과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3] 전문가 대상 심층면담 질문지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마련을 위한 면담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연구원 교육정책 현장연구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신설에 대비하여」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본 면담 조사는 우리 도의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방향 설정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가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마련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면담 조사는 사정에 따라 온라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의 결과 및 수집되는 개인정보(담당 학년, 성별, 교육경력, 근무지 등)는 연구의 기초 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며 어떤 경우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23. 7.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정책연구팀)

1. **[인식]**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교원들이 학교자율시간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이미 실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학교자율시간의 과목을 기존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과 어떻게 구분하고 차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 **[운영 방향: 활동 / 과목]** 설문조사 결과 현장 교원들은 초등학교는 선택 활동으로 학교자율시간 운영이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는데, 학교자율시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가장 적합한 방법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운영 방식: 운영 시기 관련]**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집중형과 분산형의 장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에 적합한 방식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시수 편성]** 귀교(컨설팅 담당교)의 학교자율시간 시수 확보 방법은 무엇이었고지와 학교자율시간의 적정 시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5. **[내용 구성]**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사회적 요구, 우리 도의 실태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 학교자율시간의 운영 내용(주제)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편성·운영]** 과목 또는 활동은 어떻게 개발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단위학교나 교사 수준에서 과목이나 활동의 개발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7. **[편성·운영]** 귀교(컨설팅 담당교)의 학교자율시간 과목 또는 활동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과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8. **[편성·운영]** 단위학교에서 개발하는 과목 또는 활동의 질을 높이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9. **[편성·운영]** 학교자율시간을 활용한 과목 또는 활동의 교육과정 편성 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 공통 주제의 과목/활동을 학년별 계열화하여 편성, 학년별로 각기 다른 주제의 선택 과목/활동 편성, 학교 공통 주제 과목/활동과 학년별 과목/활동의 병행 등)
10. **[학교 특성]** 학교자율시간 운영 시 학교규모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학교규모의 특성을 고려할 때 유의점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1. **[절차·모형]** 귀교(컨설팅 담당교)에서 학교자율시간 편성·운영 시 참고한 모형이 있었습니까?
12. **[평가]** 학교자율시간 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와 기록은 어떻게 하셨으며, 단위학교에 적용 가능한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3. **[문제점]** 학교자율시간 운영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또는 전체 학교에서 운영 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4. **[지원]** 학교자율시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가장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5. **[구성원 참여]** 학교자율시간 운영에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귀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16. **[지원]** 학교자율시간 운영 가이드를 위한 매뉴얼 등을 제공할 때 교육청에서 제시하는 범위가 어느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편제, 시수, 내용, 방법, 평가 등)
17. **[성과]** 학교자율시간 운영 결과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기대효과 포함)
18. **[종합]** 기타 학교자율시간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면담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교육정책 현장연구 연구보고서

경북형 학교자율시간 운영 방안

책임 연구원 김창덕 (장량초등학교 교장)

공동 연구원 이가을 (장량초등학교 교사)

김병덕 (남성초등학교 교감)

이병한 (장량초등학교 교감)

김유리 (포항해맞이초등학교 교감)

김종득 (대이초등학교 교감)

구경미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장학사)

이승현 (초곡초등학교 교사)

자문 위원 서정희 (포항장흥초등학교 교장)

정영석 (경상북도포항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장)

발행일 : 2023년 10월 31일

발행인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장 박용휘

발행처 :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36746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 (054-840-2278)

보고서탑재 : <http://shool.gyo6.net/gber>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홈페이지/정책연구/정책연구담당/정책연구보고서)

- 본 연구의 주장이나 제안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에 있으며, 사전 승인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
Gyeongsangbuk-do Office of Education Research Institute